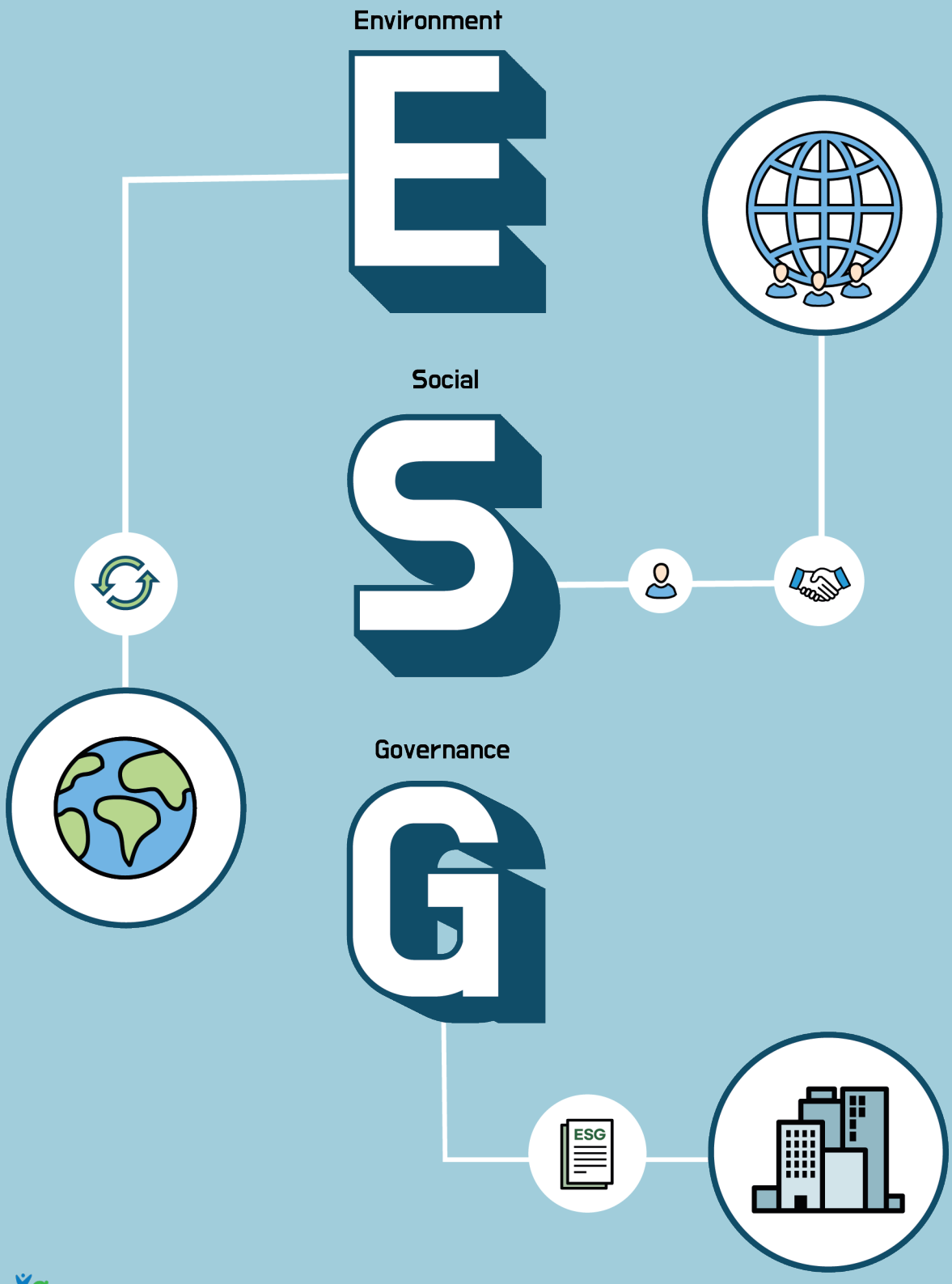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 11-B552745-000037-01

사회적경제 ESG 안내서

Social Economy ESG Guide book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점점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에 더 이상 자원을 낭비하거나, 환경적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기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외 투자사를 포함, 다수 금융기관에서는 투자결정시 ESG경영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도 재무적 수익 외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무엇보다 경제적 활동에만 치중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착한 소비 활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태생적으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균형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사회적경제 본연의 역할과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문헌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사회적경제 ESG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개발되고 있는 ESG 프레임워크의 일률적 적용을 지양하고, 사회적 환경(S in ESG) 관점에서 ESG 진단 항목을 선정한 후, 실제 ESG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경영사례 내용을 주요하게 담았습니다.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이를 위장하는 ESG 워싱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경제 ESG안내서가 ESG경영 실천을 고민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익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욱 의미있는 사례들이 공유되고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정현곤

사회적경제 ESG 안내서

CONTENTS

Part 1. 이해편

1. ESG란 무엇인가

1) ESG와 지속가능성 10
2) ESG 등장 배경 11
3) ESG경영 부상과 국내외 움직임 12
4) ESG경영 관련 국내외 정책과 규제 14
5) 국내 기업의 ESG경영 사례 및 생태계 변화 20

2. 사회적경제기업은 왜 ESG를 실천해야 하는가

1) 사회적경제기업과 ESG의 연관성 23
2)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도입 이유 27

3. 사회적경제 ESG 진단항목 도출 배경과 내용

1) 사회적경제 ESG진단 항목 개요 30
2) 사회적경제 ESG진단을 위한 주요 참고 지표 30
3) 사회적경제 ESG진단을 위한 항목체계 33
4) 사회적경제 ESG진단 항목 정의서 34

Part 2. 전략편

1. ESG 경영 실천 사회적경제 기업 10곳

1) 친환경 · 혁신 제품 생산 - 도시광부 46
2) 사회적 약자 고용 - 테스트웍스 50
3)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 엔젤스윙 55
4) 다양성과 포용성 - 디올연구소 60
5) 내부 데이터 관리 - 라임프렌즈 65
6)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71
7)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제공 - 농부장터 76
8)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 -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82
9)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 네오에이블 87
10)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담심포 92

Part 3. 부록편

1. 해외 사회적경제의 ESG경영 모범사례 Case Study

1) 액티브 프로스펙츠(Active Prospects) 100
2) 리치52(Reach 52) 104
3) 헬스셋고(HealthSetGo) 108
4) 올리오(Olio) 112
5) 솔리파프(Solifap) 115
6) 베번 헬스케어(Bevan Healthcare) 118

개요 | SUMMARY

ESG 경영은 이제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배출권거래제, 공급망 실사 등 ESG 정책과 규제가 강화됐으며,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은 투자 대상 기업에게 높은 수준의 ESG경영체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 ESG 벤처투자 표준 등이 발표되면서, ESG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 벤처 · 스타트업에게도 새로운 경영 기준으로 자리잡게 됐다. 향후 기업들은 ESG를 준수하지 않으면 투자와 기업경영에 큰 리스크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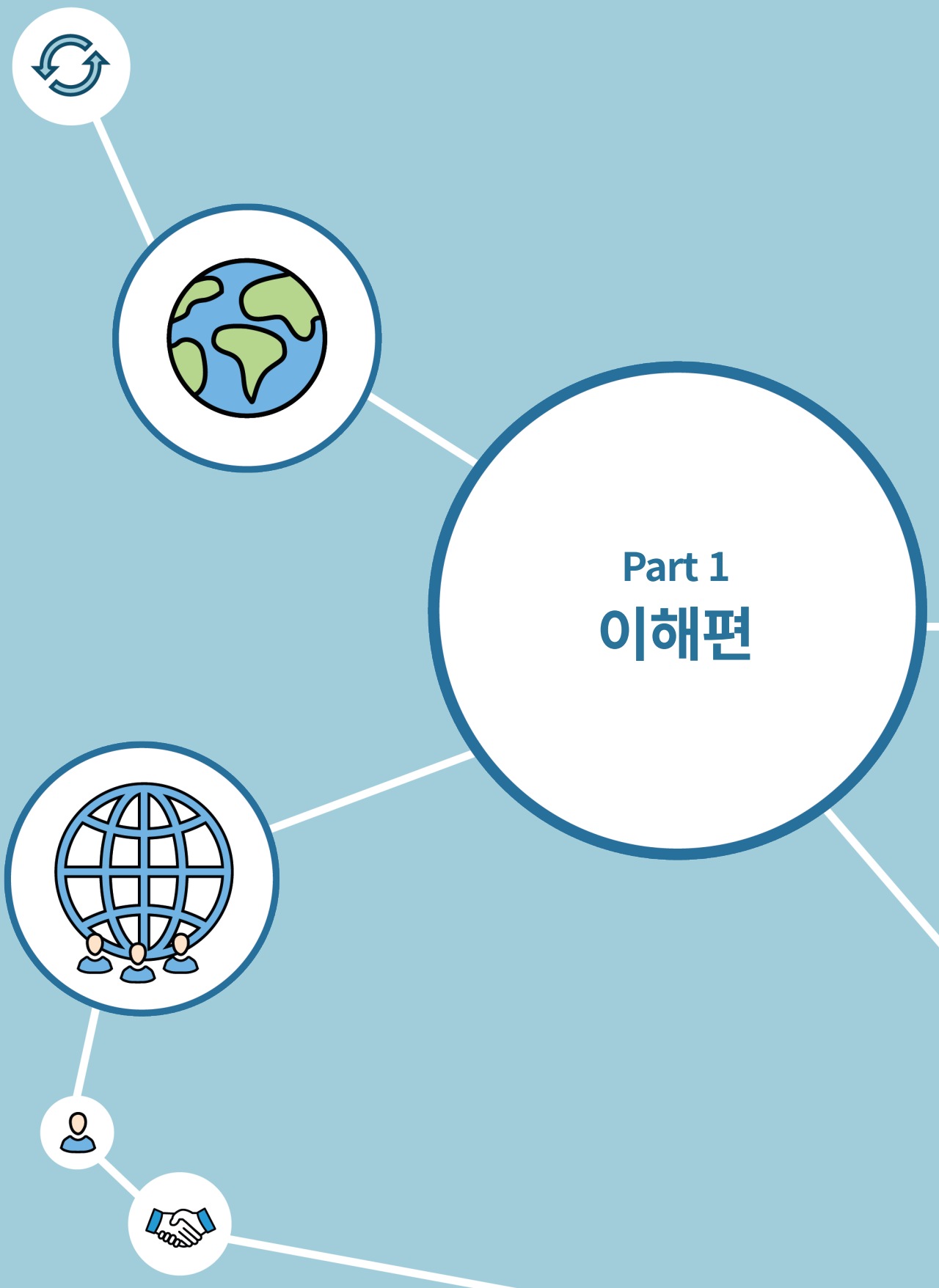
하지만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운영한다. 이미 ESG 경영을 실행하고 있기에 현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은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ESG 안내서는 사회적경제 내 ESG 우수 실천 사례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ESG경영을 강화하는데 참고자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제 1편에서는 ESG 개념, 등장배경, 국내외 ESG 트렌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 ESG의 연관성, 사회적경제에 ESG 도입 필요성 등을 소개한다. 또한 국내 주요 ESG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특화된 ESG 진단 항목을 만들어 제시했다. 사회적기업의 특성상, ESG 중 'S(사회)' 부문에 강점을 두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고용, 다양성,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지표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표 주요 10개를 선정했다.

제 2편에서는 사회적경제 ESG 지표별 국내 대표 사회적경제 기업 10곳을 인터뷰해 ESG 경영 실천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례를 담았다.

제 3편에서는 해외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를 소개해 국내 기업들이 ESG 시대에서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전달하고자 한다.



Part 1
이해편

1 ESG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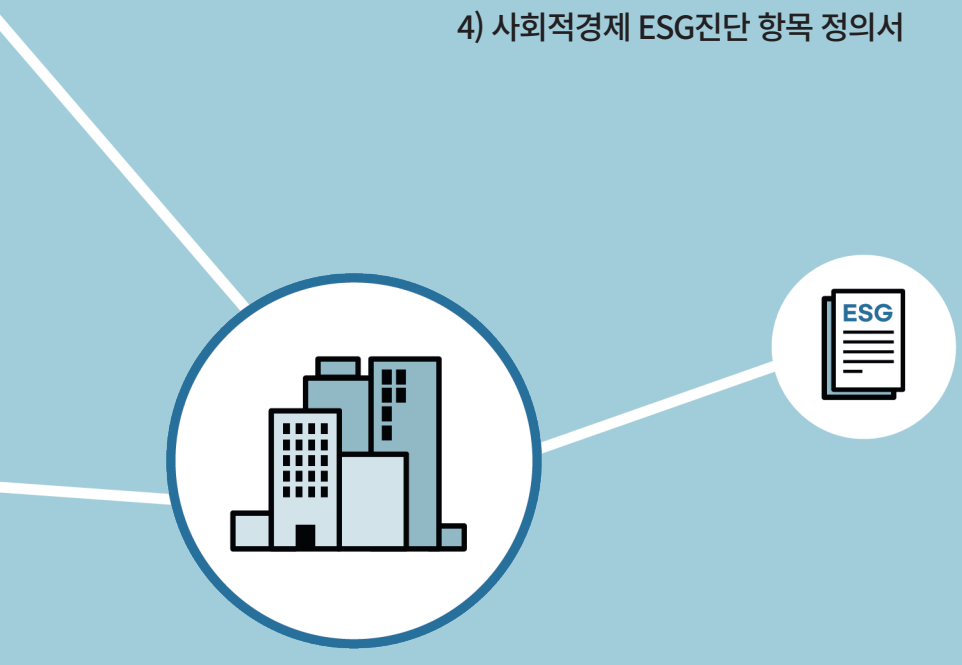
1) ESG와 지속가능성
2) ESG 등장 배경
3) ESG경영 부상과 국내외 움직임
4) ESG경영 관련 국내외 정책과 규제
5) 국내 기업의 ESG경영 사례 및 생태계 변화

2 사회적경제기업은 왜 ESG를 실천해야 하는가

1) 사회적경제기업과 ESG의 연관성
2) 사회적경제기업의 ESG 도입 이유

3 사회적경제 ESG 진단항목 도출 배경과 내용

1) 사회적경제 ESG 진단항목 개요
2) 사회적경제 ESG진단을 위한 주요 참고지표
3) 사회적경제 ESG진단을 위한 항목체계
4) 사회적경제 ESG진단 항목 정의서



1. ESG란 무엇인가

01 ESG와 지속가능성

ESG경영은 생존과 생존의 필수 요소다. ESG의 개념과 등장 배경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 · 기관들이 ESG를 도입하고 있는지 등 글로벌 ESG 동향 흐름을 살펴본다.

ESG경영, 기업 경영의 지속가능성 담보하는 뉴노멀(New Normal)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기업의 3대 비재무 지표다. E(환경) 부문에는 기업의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기후변화와 밀접한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대표적이다. S(사회) 부문에는 기업의 임직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책임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의 안전, 인권 등에 대한 이슈가 이에 해당한다. G(지배구조) 부문은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 주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책임과 관련 있다. 기업이 이사회의 다양성, 임원 급여, 윤리경영 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ESG를 관통하는 정신은 지속가능성이다. 지속가능성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 사회 ·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지속가능성이 주요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87년 UNEP(유엔환경계획)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공동으로 채택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브룬트란트 보고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제시되면서부터다.

이후 2015년 들어 유엔(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라는 개 념이 등장했다. SDGs는 2015년에 개최된 제70차 UN 총회에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이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로 결의한 인류공동의 목표다.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 등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한다. 17개 목표에는 빈곤 · 질병 · 교육 · 성평등 · 난민 · 분쟁 등 인류 보편적 문제, 기후변화 · 에너지 · 환경오염 · 물 · 생물다양성 등 지구 환경문제, 기술 · 주거 · 노사 · 고용 · 생산소비 · 사회구조 · 법 · 대내외 경제 등 경제 · 사회문제가 있다.

세계는 지금 전 지구적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SDGs를 기반으로 함께 노력해야 하고, ESG가 이를 위한 유용한 도구라는 데 뜻을 같이한다. 특히, 기업은 그동안 재무적 가치에 가려져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비재무 지표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작용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ESG경영에 더욱 집중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서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ESG경영은 나날이 중요해질 것이다. 선택의 문제였던 ESG경영은 이미 '뉴노멀(New Normal, 새로운 기준)'이 됐다.

02 ESG 등장배경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및 코로나 이후,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ESG 떠올라

ESG 등장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부상과 밀접하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고객, 근로자,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기업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례는 2014년 미국 슈퍼마켓 체인인 마켓바스켓 사례가 대표적이다. 마켓바스켓 CEO 아서 데몰레스는 이해관계자 경영을 추진해 고객과 직원, 거래업체로부터 높은 지지를 얻었지만, 이사회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직원은 항의 시위를 펼쳤고, 정치인은 이사회를 비난했으며, 소비자는 불매운동을 벌였다. 결국 이사회는 해고한 아서 데몰레스에게 마켓바스켓을 매각했다.

2019년 8월 말 선언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선언'도 있다. 미국의 대기업 CEO 181명을 회원으로 둔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usiness Round Table, BRT)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가치선언 문(Statement on the Purpose of a Corporation)을 발표했다. 기업이 주주, 고객, 직원, 협력사, 지역 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고 선언한 것으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애플의 팀 쿡, GM의 메리 배라 (GM)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BRT의 가치선언문은 이후 2020년 다보스선언(The Davos Manifesto 2020)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역시 ESG에 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증폭시켰다. 전염병은 보건과 안전을 보장할 필요성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의 탄력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코로나19는 ESG 중 사회 부문에 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 사이에서 기업의 직원에 대한 처우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것이다. 아울러, 자본시장에서도 ESG 열풍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이후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이나 금융 안정성 외에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ESG 확산에 한몫했다.

ESG 등장과 확산을 언급할 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의 연례 서한을 빼놓을 수 없다. 래리 핑크 회장은 2020년 투자기업 CEO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새로운 투자기준으로 지속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그는 '지속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겠다', '매출액의 25% 이상을 석탄발전을 통해 거둬들이는 기업에 대해 채권과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연례 서한에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넷제로(Net-zero) 경제와 어떻게 호환될지에 관한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03 ESG경영 부상과 국내외 움직임

ESG경영은 선택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

ESG에 모든 사회 구성원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ESG경영은 기업의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필수 요소로 부상했다. ESG경영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 활동에 따른 환경, 지역사회, 고객 등 경제 · 사회적 영향을 내재화해 기업의 재무적 · 비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하려는 경영활동이다. 기업은 기업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통해 회사와 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영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함으로써 지속가능경영을 달성하기 위해 ESG경영 도입을 서두른다.

기업이 ESG경영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후변화 문제 때문이다. 가뭄과 홍수, 산불 등 자연재해가 빈도와 규모를 더하는 이상기후 현상이 지구를 휩쓸고 있다.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이를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되고 당장 행동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또, 수출 기업의 경우 ESG경영은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 유럽연합(EU)과 미국 중심의 탄소중립 강화 움직임은 ESG 미준수 시 거래 중단이라는 새로운 규제가 돼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타격을 입힌다. ESG경영을 빠르고 적절하게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대형 투자기관의 움직임도 기업 ESG경영 도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형 투자기관은 기업을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지만, 경제활동 주축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에 필요한 효용과 가치를 제공하는 존재'로 봤다. 이에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었다. 구글과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글로벌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 같은 기업이 환경과 노동, 지배

구조의 투명성 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은 밸류체인(가치사슬) 공급망 전반에 이르는 기업에까지 ESG경영을 요구한다.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지난해 12월 '2022 ESG Trends to Watch'라는 보고서를 내고, 내년엔 글로벌 대기업의 탄소배출량 절감 요구가 가격 하락 압박만큼 만연해질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기업구조 변화하고 관련 공시 요구 증가

ESG경영이 부상하면서 국가 단위의 ESG 법안을 마련하는 나라가 늘어났고, 연기금 등의 책임투자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민간 분야에서도 ESG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확대됐다. 기업은 협 · 단체 차원의 글로벌 민간 이니셔티브를 결성해 ESG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런 다양한 움직임 속에서 주목할 점은 ESG경영이 기업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기업이 ESG경영에 자격이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했다. 행동주의 헤지펀드 '엔진넘버원'이 세계 최대 규모의 에너지 기업인 엑손 모빌의 사업 구조를 탈바꿈시키기 위해 이사회 멤버를 교체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바뀐 엑손 모빌의 이사진은 주요 화석연료 개발 계획의 존폐를 논하고, 2027년까지 탄소

배출 절감에 1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엑손 모빌을 비롯한 많은 기업이 ESG 위험을 유발하는 사업은 정리하고, 친환경 · 신산업에 진출했다. '지속가능한 투자 연구소(Sustainable Investments Institute)' 조사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주주 회의에서 사회 및 환경 분야 관련 지지 비율은 2017년 21%에서 2021년 3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SG경영과 관련해 공시 요구가 증가한 점도 눈길을 끈다. 규제 기관이 ESG와 관련된 기후 정보 공시를 우선시하기 시작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자금 운용사에게 탄소배출과 기업 공개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했다. 영국과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기업에 기후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관련 지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SG 투자자의 기업 활동 참여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세계적으로 블랙록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주 활동을 통해 기업 ESG경영에 관여하는 일이 늘었다. 스튜어드십을 도입해 기관투자자에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제너럴 일렉트릭 주주는 CEO인 로렌스 컬프에게 급여 2억 3000만 달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고, 유니온 퍼시픽 주주는 경영진의 퇴직 급여를 제한하는 표결에서 승리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환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주주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울러, ESG 성장과 더불어 ESG 펀드가 급상승했다. ESG가 투자자, 기업, 정책 입안자에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이 되면서 2021년 들어 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에 중점을 둔 펀드에 기록적인 유입이 발생했다. 시장 정보업체 리피티브 리퍼의 자료에 따르면, 2019~2021년 11월 전 세계 ESG 주요 펀드에 6490억 달러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04 ESG경영 관련 국내외 정책과 규제

ESG경영은 기업 경영에서 하나의 새로운 지표가 됐다. 국내외 ESG 정책과 규제를 통해 기업 ESG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본다.

ESG경영 관련 해외 8대 동향

1) EU, 그린 택소노미 최종초안 공개

EU의 '그린 택소노미(Taxonomy, 친환경분류체계)' 최종초안이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각) 공개됐다. EU는 2020년 7월 세계 최초로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법률을 발효했다. 이에 따르면, 6가지 '친환경 목표'인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과 보호 ▲순환경 제로의 전환 ▲오염 예방과 관리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의 회복과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 이번 최종초안에서 조건부이지만 원전과 천연가스에 '녹색 라벨'을 붙여 지속가능한 투자의 길을 터주었다. 천연가스는 kWh당 온실가스를 270g 미만 배출하고, 오염을 더 많이 일으키는 화석연료 발전소를 교체하고, 2030년 말까지 건설 허가를 받는 조건이다. 원자력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 자금과 부지가 있으면 녹색으로 분류된다.

2) ESMA,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 발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2022-2024 지속가능한 금융 로드맵'을 2월 1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그린워싱 등 여러 리스크가 제기됐고, 건전한 시장 형성의 책임을 가진 ESMA가 리스크를 선별해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ESMA는 식별된 리스크를 토대로 3가지 우선 과제를 선정해 2024년까지 집중적인 선제 대응에 나선다. 3가지 우선 과제는 ▲그린워싱 대응과 투명성 촉진 ▲지속가능한 금융 분야의 NCA와 ESMA 역량구축 ▲ESG 시장 및 리스크 모니터링, 평가, 분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7가지 액션은 ▲투자관리 ▲투자서비스 ▲발행인 공시 및 지배구조 ▲벤치마크 ▲등급(신용및ESG등급) ▲거래 및거래소 ▲ 금융혁신이다.

3) EU, 공급망 실사법 초안공개

EU 집행위원회는 역내 기업의 공급망 인권침해 및 환경 훼손 방지를 목적으로 실사를 의무화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법률 초안을 2월 23일(현지시각) 공개했다. 실사법 초안은 기업이 기업 자체를 비롯해 계열사,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의무적으로 실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은 7가지를 이행할 것을 요구받는다. ▲실사를 정책과 통합하고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실제 및 잠재적 악영향을 식별하고 ▲잠재적 악영향을 예방하고 ▲실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해결하고 ▲불만 처리 절차를 세우고 관리하며 ▲실사 정책과 대책을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며 ▲실사에 관해 공개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실사법은 EU에서 생성된 매출액 기준치를 가진 비EU 기업에 적용된다.

4)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공시의무화 규정 발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기업의 기후 공시 의무화 규정 초안을 3월 22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의 공시 요구사항에는 회사 이사회 및 경영진에 의한 기후 리스크 감독과 거버넌스, 식별된 기후 관련 리스크 영향에 관한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리스크 식별과 평가 및 관리를 위한 회사의 프로세스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전환계획을 채택한 기업은 물리적 리스크와 전환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및 목표 등 전환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는다. 아울러, 기업은 자사 운영을 둘러싼 온실가스 배출량인 스코프1, 2뿐만 아니라 공급망 배출량인 스코프3에 대한 배출에 대해서도 공시해야 한다. 대기업은 2023년 회계연도, 중소기업은 2024년 회계연도에 스코프1, 2 배출이 포함된다.

5) ISSB,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초안 발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기업 지속가능성 및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에 관한 표준초안을 3월 31일(현지시각) 발표했다. 표준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국제회계기준(IFRS) S1의 일반 요구사항', 'IFRS S2의 기후관련 공시'다. IFRS S1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일반적인 재무정보 공개 요구사항을 정하는 문서로,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에 얼마나 노출됐는지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회사의 거버넌스 프로세스는 어떤지, 이런 위험을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는지 등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IFRSS2는 기업에 중요한 기후관련 리스크와 기회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6)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표준 초안 발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5월 2일(현지시각)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일반원칙은 ESRS1(일반원칙), ESRS2(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요성 평가 공시 요구사항) 2가지다. 환경기준은 5가지로, ESRS E1(기후변화), ESRS E2(오염), ESRS E3(수자원), ESRS E4(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SRS E5(자원사용 및 순환경제)다. 사회기준은 ESRS S1(자체인력), ESRS S2(가치사슬의 직원들), ESRS S3(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ESRS S4(소비자 및 최종사용자) 등 4가지다. 지배구조는 ESRS G1(거버넌스,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ESRS G2(비즈니스 수행) 등 2가지다. EFRAG가 초안과 발표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기업은 지속가능성 관련 영향에 대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모든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7)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 배출권거래제 개정안 승인

EU 의회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과 'EU 배출권거래제(ETS) 개정안'을 6월 22일(현지시각) 최종승인 · 확정했다. EU의회는 지난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생산 5개 분야를 CBAM 적용대상으로 정했는데, 이뿐 아니라 ▲유기화학물질 ▲플라스틱 ▲수소 및 암모니아도 대상 업종에 포함하기로 했다. 제조업체가 사용하는 전기생산에 수반되는 탄소배출도 '간접배출'로 탄소배출량에 포함되게끔 내용을 확정했다. 또, CBAM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점은 종전 대비 1년 빨라진다. EU 의회는 과도기 종료 기간을 2024년 12월말로 정해 CBAM이 더 빨리 시행되게 했다. EU ETS의 배출권 무상할당 폐지 시점은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개시해 2032년에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정했다.

8) EU, 에너지헌장조약 개혁 잠정 합의

EU의 에너지헌장조약(ECT) 갱신을 위한 수년간의 논의가 6월 24일(현지시각) 일단락됐다. 논란이 많았던 화석연료에 관한 이해관계를 ECT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ECT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3가지다. 개혁잠정합의안에 따르면, ▲ECT 대상 에너지원의 종류를 수소, 무수암모니아, 바이오매스, 바이오가스, 합성연료 등으로 확대하고 ▲유연성 메커니즘에 따라 자국에서 생산된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보호를 배제 가능토록 하고 ▲개정안 발효 이후 5년 간격으로 대상 에너지원 목록을 검토해야 한다. 이전에 포함되지 않았던 에너지원도 포함하며, 에너지원과 함께 울, 암면(rock-wool), 미네랄 울, 단열 유리 등 에너지와 밀접한 제품에 대한 거래까지 포함한다.

*출처

*https://www.euractiv.com/wp-content/uploads/sites/2/2022/01/draft-CDA-31-12-2021.pdf

*https://www.esma.europa.eu/sites/default/files/library/esma30-379-1051_sustainable_finance_roadmap.pdf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2_1145

*https://www.sec.gov/files/33-11042-fact-sheet.pdf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roject/general-sustainability-related-disclosures/exposure-draft-ifrs-s1-general-requirements-for-disclosure-of-sustainability-related-financial-information.pdf

*https://www.ifrs.org/content/dam/ifrs/project/climate-related-disclosures/issb-exposure-draft-2022-2-climate-related-disclosures.pdf

*https://www.efrag.org/lab3#subtitle1

*https://www.europarl.europa.eu/doceo/document/A-9-2022-0160_EN.pdf

ESG경영 관련 국내 8대 동향

1) K-ESG 가이드라인 발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ESG 평가항목 및 기준을 정리한 'K-ESG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1일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외 13개 평가 기관의 3000개 이상 ESG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해 61개 항목으로 평가 기준을 정리한 자료다. ▲정보공시 분야 5개 ▲환경 분야 17개 ▲사회 분야 22개 ▲지배구조 분야 17개로 분류되며, 항목별 평가 기준과 점수를 제시한다. 환경 분야에서 눈여겨 봐야 할 건 정보 공개의 범위인데, 정보 공시의 경우 발간 주기가 2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사회 분야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공급망 관련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분리 방안 등의 내용을 다룬다. 산업부는 1~2년 주기로 가이드라인의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공정거래법은 그룹 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전부개정안은 ▲국외 계열사 현황 공시 기준 구체화 ▲공익법인 이사회의결 · 공시 대상 구체화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 완화 ▲임원 독립 경영 출자요건 완화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 강화 ▲벤처 지주사 제도 유용성 개선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 제도 시행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무엇보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총수일가의 지분 보유기준이 지금은 상장사 30%, 비상장사 20%인데, 이를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했다. 동일인 친족이 계열을 분리해 나가는 친족 독립 경영은 규정이 더 깐깐해졌다.

3) ESG 정보공시 의무화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도 ESG 정보공시 의무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까지 ESG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2030년부터는 전체 상장회사에 대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작성 기준은 없으며, GRI, SASB, TCFD, ISSB 등 국제 표준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ESG 공시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보고서에 포함해야 할 지, 아니면 거래소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서 진행할지에 따라 허위 내용 기재 시 불이익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고형식에 대한 향후 정책적 판단도 주목된다.

4) 금융위원회,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발표

금융위원회는 정부 예산 6000억 원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4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한다고 1월 2일 발표했다. 정책형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디지털 · 그린분야의 중소기업과 인프라에 재정 · 정책자금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올해 정책형 뉴딜펀드는 ▲민간참여 확대 ▲정책 수요 반영 ▲결성 · 투자촉진 ▲성과관리 강화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 주관기관 공모를 추가 선정하고 우수 운용사를 우대한다. 정책 수요 반영과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 지역뉴딜을 지원하고 뉴딜투자 공동기준을 개편한다. 결성 · 투자촉진을 위해 신속한 펀드 결성을 유도하고 투자촉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성과관리 강화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장소통을 강화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인명 피해에 대해 경영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제도다.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 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경영책 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 이사 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오너도 형 사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또, 제3자에게 도급 · 용역 · 위탁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한 다. 한편, 윤석열 정부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을 손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업장 점검 · 감독도 단 편적인 법 위반사항 적발과 사후처벌 중심이 아닌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 이행 여부 등 기업이 개 선하게 지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6)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이 3월 25일 시행됐다. 2021년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온실가스 목표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 · 공립대학,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후변화 영향평가도 새롭게 마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관련 사업 또는 도로 건설 · 산지개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에 적용된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후대응기금' 운용을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7) 한국TCFD얼라이언스 출범

한국기후관련정보공개협의체(TCFD)얼라이언스가 6월 27일 출범했다. TCFD는 주요 20개국(G20)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기후변화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2015년 설립한 글로벌 협의체다. 2017년 제시된 권고안을 통해 ▲지배구조와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목표치 등 4개 항목을 공개한다. 한국TCFD얼라이언스의 목적은 ▲기후금융 시스템의 고도화 ▲TCFD 대응 역량 강화 ▲시나리오 분석 역량 강화 3가지다. 기후금융시스템의 고도화는 금융감독 시스템 전반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해 추진한다. TCFD 대응 역량 강화는 TCFD 국내외 정책과 해외 보고 사례, 멤버 기업 간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행된다. TCFD 전략은 수립할 때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분석해야 하는데, 시나리오 분석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를 지원한다.

8) K-택소노미 최종안 공개

환경부는 녹색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해 12월 30일 공개했다. 액화 천연가스(LNG) 및 혼합가스는 포함됐고, 원자력은 제외됐다. K-택소노미는 2개 부문 69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올해 9월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을 K-택소노미에 포함하는 초안을 새롭게 발표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등 환경피해 방지와 원전 가동의 안전성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LNG에 대해 탄소중립이라는 최종 지향점으로 가는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이라면서도, 최소 2030년까지 인정기간을 부여하되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기술동향 등을 감안해 최대 2035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출처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bbs_seq_n=16493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1230&lsiS eq=238355#0000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 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B%85 %B9%EC%83%89%EB%B6%84%EB%A5%98%EC%B2%B4%EA%B3%8 4&menuId=10525&orgCd=&boardId=1498700&boardMasterId=1&boardC ategoryId=&decorator=

*https://www.fsc.go.kr/no010101/77179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127&lsiS eq=235883#000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 eq=235581#0000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 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B%85 %B9%EC%83%89%EB%B6%84%EB%A5%98%EC%B2%B4%EA%B3%8 4&menuId=10525&orgCd=&boardId=1550040&boardMasterId=1&boardC ategoryId=&decorator=

05 국내 기업의 ESG경영 사례 및 생태계 변화

RE100 가입, 재생에너지 구매 등 국내 기업이 ESG경영을 실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20개 기업의 ESG 경영 현황을 소개하고, 기업을 둘러싼 ESG경영 생태계 변화를 알아본다.

국내 20개 기업의 ESG경영 현황

사명	ESG경영 주요 현황
삼성	• '2050 탄소중립 선언' 포함한 신환경경영전략 선언, RE100 가입 • 온실가스 직간접(Scope1, 2) 감축, 제품 통한 에너지 감축, 제품 생애주기(LCA) 자원순환 극대화, 수자원 재활용 등 4대 핵심전략 및 탄소포집과 대기오염 저감 등 추진 • 순환경제연구소 설립,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 적용
SK	• SK주식회사, SK하이닉스, SK텔레콤 등 8개 관계사 RE100 가입 • SK하이닉스, 2030년까지 소비 전력의 33% 재생에너지로 조달 목표 • 전기차 배터리 및 배터리 소재 · 수소 · 풍력 ·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사업에 집중 투자
현대차	•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4개 계열사 RE100 가입, 전사 차원의 ESG협의체 구축 • 2045년 탄소중립 선언 발표, 사업장과 협력사 ESG 리스크 평가 도입 추진 • 미래 성장의 핵심축인 전동화 및 친환경 사업 고도화 주력 위해 투자
LG	•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LG이노텍 등 계열사 RE100 가입하며 친환경 사업 확대 • LG전자, 2050년까지 국내외 모든 사업장의 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 LG화학, 국내외 모든 사업장 RE100 추진, 플라스틱 생산-사용-수거-재활용 과정 망라하는 ESG 비즈니스 모델 구축
포스코	• 2018년 '기업시민' 선포 이후 지속가능경영 강화, 이중 중요성 평가 도입 • 2050 탄소중립 선언, 미래 모빌리티 견인, 그린에너지 선도, 미래주거 실현, 글로벌 식량자원 확보 등 지향 • 국내 비금융권 기업 최초로 TNFD(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가입, 생물다양성 보존 위한 활동 전개
한화	• (주)한화 포함한 7개 상장사와 2개 비상장사 ESG위원회 운영 • 2050 넷제로 달성, 그린에너지, 자원순환, 그린수소 등 4가지 부문 사업 강화 • ㈜한화와 한화솔루션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시작으로 모든 상장 계열사 기업지배구조헌장 제정
두산	• ESG위원회 운영, ESG경영 '인재 · 지구환경 · 파트너(People · Planet · Partner)' 3P 지향 •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20% 저감 목표
GS	• ESG위원회 운영, 환경 · 인권 · 지배구조 및 리스크 관리 위한 ESG헌장 제정 • '친환경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성장'을 핵심가치로 친환경 건축과 수처리, 스마트 양식업, 데이터센터 신설, 배터리 재활용 등 추진

S-oil	• ESG위원회 운영, '그린비전 2050' 수립 등 탄소경영 시스템 구축 • 그린 · 블루수소 등 친환경 수소 생산 비롯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사업 전개
롯데	• 상장사 이사회에 ESG위원회 운영, CEO 평가 시 ESG 경영 성과 반영 • 2040년 탄소중립 달성, 소비자 접점 많은 계열사 친환경 유니폼 활용
신세계	• 상장사에 ESG위원회 및 전담조직 운영 •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백화점 선언, 친환경 패키지(포장재) 도입 확대
CJ	• 8개 상장사 이사회에 ESG위원회 및 ESG자문위원회 운영 • 그룹 4대 성장 엔진 중 하나인 서스테이너빌러티(지속가능성)는 친환경 · 신소재 · 미래식량 등 혁신기술 기반의 지속가능한 신사업 육성에 초점 • 2050 탄소중립 선언, 전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25% 감축
한진	• 이사회 내 ESG 경영위원회 운영, 기업지배구조 헌장 선포 • 친환경 항공기 · 차량 도입, 바이오 연료 도입, 친환경 협력사업 등 통해 온실가스 감축
KT	• ESG추진위원회 운영, 친환경 캠페인 '지 · 우 · 개' 통해 환경보호 실천 • '디지털 시민의식' 정립하고 디지털 안전, 소통, 정보활용의 가치 확산 추진
KB금융	• 전 계열사 'ESG 이행원칙' 선언, ESG위원회 운영 • 환경 부문은 'KB 넷제로(Net-zero) S.T.A.R' 수립 및 단계적 이행, 사회 부문은 성별 다양성 확대, 지배구조 부문은 지배구조 독립성 · 공공성 · 투명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성 추구
신한금융	•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 전략 통해 2050년까지 넷제로 달성 계획 •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공동 개발한 '신한 ESG모형'과 '신한지속가능모형' 사용
네이버	• ESG위원회 및 ESG 전담 조직 '그린 임팩트' 팀 운영, RE100 가입 • 친환경 이커머스 생태계 조성, 임직원 성장 · 몰입 지원, 파트너 성장지원 확대, 지배구조 투명성 유지 · 선진화, 2040 카본 네거티브 달성 등 ESG경영 강화 위한 7대 전략 추진
카카오	• ESG위원회 및 ESG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총괄 조직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운영 • 2040년 넷제로 목표를 포함한 '액티브 그린 이니셔티브' 발표, 기업의 디지털 책임 실천
국민연금	• ESG경영 선언문 채택, ESG경영 비전은 '자연(N)과 사람(P)이 더불어 행복한 세상(S) 만들기' • 4대 추진 방향인 기후 위기 극복 기여(E), 적극적인 사회책임 실천(S), 국민 참여 기반의 투명한 제도 운영(G), 기금투자를 통한 ESG 확산 선도(F) 실행
한국수자원공사	• '물 특화 ESG 경영' 추진, '물 분야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탄소중립 정수장 확대 통한 탄소제로 물 관리, 수상태양광 · 수열에너지 확대 등 물 에너지 확대 등 4대 전략 실천

주목할 만한 국내 기업 생태계 변화

국내 기업을 둘러싼 ESG경영 생태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기업의 RE100 가입과 재생에너지 구매가 많이 이뤄졌다. 4월 현대차그룹의 4개사가 RE100 가입을 최종 승인받았고, 9월에는 삼성전자가 신환경경영전략을 선언하며 RE100 가입을 공표했다. RE100 가입사인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등은 RE100을 실행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모레퍼시픽이 국내 기업 최초로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맺은 사례도 있다.

EU가 CBAM 강화안을 낸 것도 국내 기업에 상당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CBAM의 주요 수정내용은 ▲적용 품목의 확대 ▲도입시기 및 무상배출권 폐지 가속화 ▲배출범위 적용 확대다. 수출 산업 중심의 국내 산업 구조상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업은 대응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EU가 적용 품목이 아닌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조선 산업도 적용대상으로 빠르게 편입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서둘러야 한다.

ESG 종합 플랫폼이 속속 등장하고, ESG 평가를 넘어 자체 ESG 지표를 만드는 기업이 늘어났다. ESG 종합 플랫폼은 'ESG 포털', '환경책임투자 종합플랫폼', 'ESG 투모로우', '으쓱' 등이 대표적이며, ESG 금융정보 플랫폼 'ESG 파이낸스 허브'도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경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체 ESG 지수를 내놓기 시작했다. LG는 'LG ESG 지수(index)', 삼성은 'SEPI(Semiconductor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를 마련했고, 포스코건설과 신한금융그룹 역시 자체 ESG 지수 개발에 관해 밝힌 바 있다.

한편, 소비자의 기업 선호도 결정에 ESG경영 영향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6월 EY한영 · 전남대 BK21 사업단이 대규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 결정에 ESG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2. 사회적경제 기업은 왜 ESG를 실천해야 하는가

01 사회적경제 기업과 ESG의 연관성

2020년 하반기부터 국내에 ESG 붐이 급격히 확산되면서, 대기업과 그 협력업체인 중소기업, 최근에는 벤처기업 혹은 스타트업까지 ESG 경영을 도입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2022년 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관련 공시항목 확대를 밝혔고,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내용이 추가되면서 공공기관에도 ESG 경영을 내재화하려는 트렌드가 생겨났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이와 같은 ESG 흐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할까. 사회적경제 기업과 ESG의 연관성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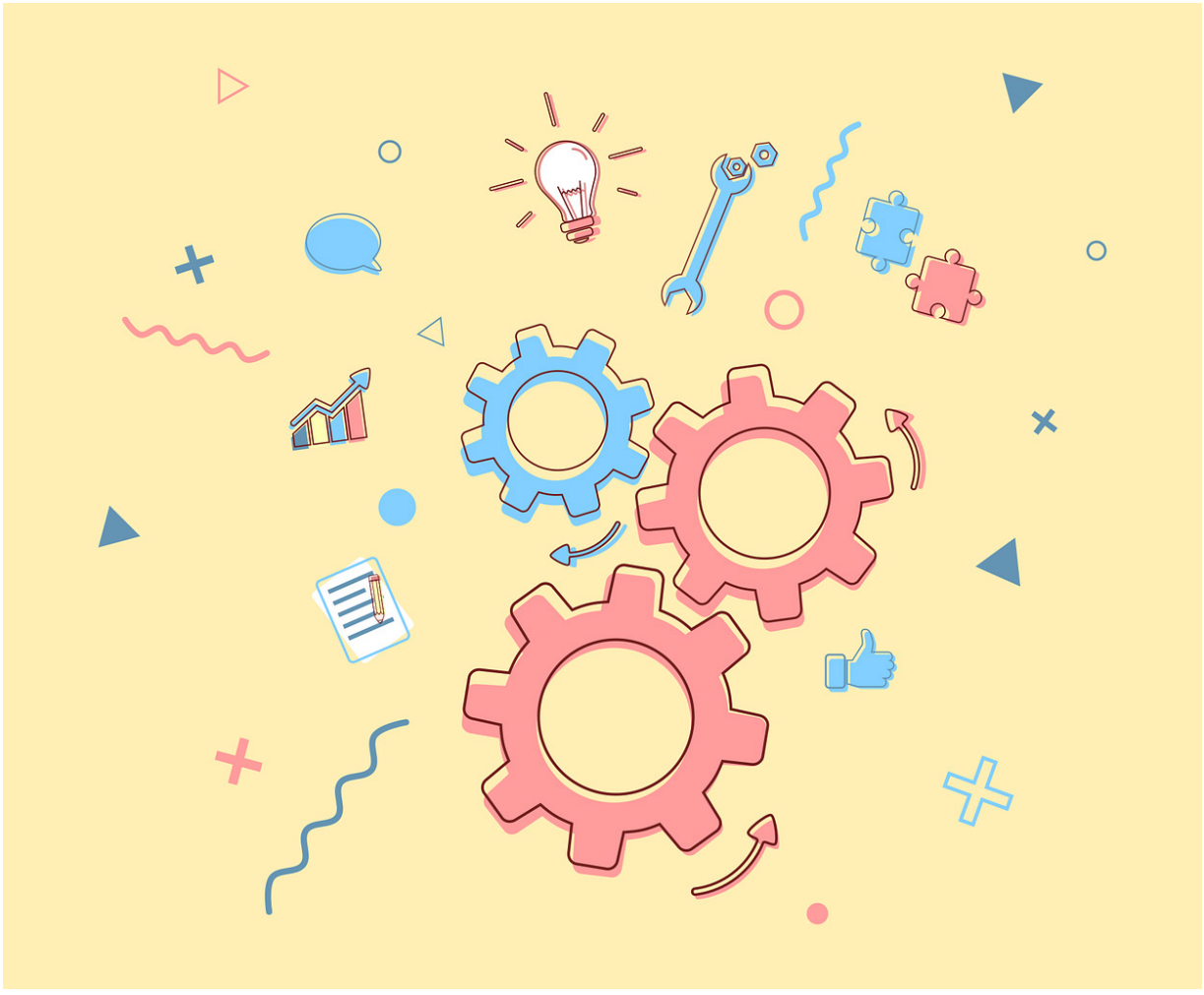
ESG는 꼭 해야 하는 '필수과목'

ESG 경영이 현 시점에 매우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에는 기후변화, 사회적 불평등과 같은 기존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의 부작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기업은 경제적 가치(이윤) 창출에만 집중했을 뿐,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 및 유통하는 과정에서 일으켰던 환경과 사회문제들은 그동안 모두 외부화(externality) 시켜왔다.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가 가뭄과 폭염 등 기후재앙을 피할 수 없고, 경찰관의 흑인사망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인권과 정의, 평등의 물결이 일었던 #BLM(#BlackLivesMatter) 운동에서 보듯 불평등은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이 만들어낸 '환경&사회 문제들

(Environmental & Social Problems)'은 이제 기업에 부메랑으로 돌아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당장 국내의 민자 석탄발전소를 운영하는 S파워의 경우 2021년과 2022년 각각 1000억 원, 1800억 원의 공모채를 발행했으나 단 한 건의 투자주문도 받지 못했고, 신용등급마저 AA-에서 A+로 한단계 강등됐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의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게 될 탄소가격으로 인해 원가 부담, 평판 하락 등 수많은 리스크를 감내해야 한다.

장기적인 경기전망을 통해 미래 리스크를 포착하고 기회요인을 찾는 기관투자자들, 이들의 자금을 운용하는 블랙록 · 뱅가드 등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들은 당연히 이 점을 주목한다. 환경과 사회문제 해결을 소홀히 하거나,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기업이라면 향후 다가올 대변혁의 파고를 제대로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ESG란 바로 이러한 기업을 판별해주는 핵심 지표이다. 때문에 ESG는 향후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필수과목'의 성격에 가깝다. 글로벌 평가기관에서 상장 대기업에 요구하는 200개가 넘는 ESG지표들을 모든 기업에서 다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ESG의 핵심 원리와 흐름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이던 사회적가치(SV), ESG 시대에 커다란 기회

그런데 사회적경제 기업은 어떤가. 사회적경제 기업은 ‘기업가정신에 기초해 비즈니스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이다. 제도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4개 유형으로 이루어진 사회적경제 기업 모두 설립 미션 자체가 ‘사회문제 해결’이다. 환경, 일자리, 에너지, 빈곤과 기아, 공동체, 양성평등과 불평등, 건강과 복지, 위생, 양질의 교육, 상생협력, 책임있는 소비와 생산, 국제개발 등 다양한 사회문제는 사회적경제의 사업 기회가 된다.

지금까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 혹은 메이저 글로벌 다국적기업들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고충을 이해하지 못했을 지 모른다. 경제적 가치라는 단일 목적만 추구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메인스트림의 대기업들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면서 이중 목표(double goal) 수립과 이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2035년이면 유럽연합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가 중단된다. 자동차의 평균 수명, 전기차 판매율 급증, 글로벌 산업의 흐름 등을 고려해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내연기관차와 현저히 다른 제조방식을 지닌 전기차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직구성과 구성원들을 대부분 바꿔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유지를 위한 직무전환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소위 ‘공정 전환(just transition)’ 이슈는 산업계에 닥쳐올 ‘뜨거운 감자’다. 경제적 가치를 위해서는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지만, 사회적 가치도 고려하려면 공정 전환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이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해온 롤 모델 기업을 찾을 수밖에 없다. 친환경 사업모델을 가졌거나, 장애인 및 약자고용을 하면서도 사업기회를 찾은 기업은 어디일까. 바로 사회적 가치(SV)와 경제적 가치(EV)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느라 고군분투해온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회적경제 개별 기업 한곳 한곳은 대기업들에게 ESG 경영 지표별로 ‘벤치마크(benchmark)’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SV)는 ‘(하면 좋지만, 안해도 상관없던) 선택과목’이었다. 이러한 선택과목을 택했던 수많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ESG 시대는 커다란 기회의

물결이 될 수 있다.

대기업의 소셜벤처 합병, 벤치마킹 움직임 늘어날 듯

이러한 트렌드를 보여주는 최근의 사례도 등장했다. 국내 의류대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이 소셜벤처 '케이오에이(K.O.A)'를 인수합병한 것이다. 케이오에이는 2014년부터 르 캐시미어 등 윤리적 패션 제품을 판매해온 소셜벤처 1세대다. 르 캐시미어는 몽골 현지에서 자연적으로 채취한 양털로만 상품을 생산하고, 모든 제품을 아시아 지역 수공예 마을과 협업해 100% 수작업으로 생산해온 제품이다. 이번 사건은 소셜벤처 또한 일반 스타트업처럼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는, 소위 '엑시트(Exit)' 할 수 있음을 보여준 드문 사례다.

코오롱FnC는 왜 소셜벤처를 합병했을까.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패스트패션을 통해 자원의 낭비를 극대화시켜온 기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코오롱FnC는 '제로웨이스트(Zero waste)'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바로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이라고 불리는 소재의 재활용과 재사용 등과 맞물린다. 이러한 분야는 수많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들이 강점을 가진 영역들이다.

환경뿐 아니라 일자리, 에너지 등 소위 유엔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의 17개 목표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이나 강점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다.

02 사회적경제 기업의 ESG 도입 이유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왜 ESG를 해야 하는가. 당장 수출대기업들의 경우 글로벌 고객, 자사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 및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ESG 기준을 요구한다. 공공기관은 경영공시 항목에 ESG가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도 ESG가 영향을 미친다. 중소기업은 협력사인 대기업이 ESG기준을 요구하고,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등은 자금조달을 할 때 ESG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 이에 반해 사회적경제 기업은 ESG와 관련한 중대한 이슈가 별로 없어 보인다. 과연 그럴까.

기업을 평가하는 공통기준, ESG라는 '언어'를 배워야

우선 유럽연합에서는 2024년부터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라 약 5만개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ESG 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2026년부터는 상장 중소기업에도 ESG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2022년 3월 하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기후변화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대기업은 2023년, 중견기업은 2024년, 중소기업은 202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직접 배출량인 Scope1과 전기사용으로 인한 배출량인 Scope2) 의무 공시안이 포함돼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늦은 편이지만, 오는 2025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의 ESG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앞으로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과 같은 재무지표처럼 기업의 ESG 지표는 모든 기업을 평가하는 공통기준의 하나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ESG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비즈니스 영역에서 통용되는 '언어'를 익히지 못하는 셈이 된다. 사회적경제 기업 또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대기업의 공급망 가치사슬(value chain)에 속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ESG라는 언어를 배워야 한다.

이미 인증 사회적 기업의 경우 사회적 가치창출 목표와 성과를 자율공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해오고 있다. 지배구조와 관련한 항목인 이사회 구성, 이사회 개최현황, 지분구조 등을 포함해, 사회(Social) 영역인 사회서비스와 제품 판매현황, 취약계층 고용, 사회환원 등을 공시해야 한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환경(Environment)을 제외한 사회, 지배구조에 관한 ESG 경영 보고를 이미 실행해온 셈이다. 이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사에 ESG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중소기업보다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다.

대기업 혁신 통한 시장판도 변화, 자칫 사업기회 잃게 될 수도 있어

한편, 지금까지 사회적 가치를 소홀히 해오던 대기업이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뛰어들기 시작할 경우, 막강한 자본력과 기술력, 인적자본을 활용한 규모의 경제로 밀어부칠 경우, 시장의 판도는 금방 뒤흔들릴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은 대체로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인력, 제품, 비즈니스모델, 자금력 등 많은 측면에서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데, 만약 이 ESG라는 변화의 물결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자칫 대기업에 밀려 사업기회를 잃게 되거나 원치 않는 사업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지를 두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벌어지는 갈등이다. ESG 경영이 중요해지면서 대기업들은 중소 영세기업이 담당하던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을 고도화하고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해 이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 측에서는 대기업의 진출로 업계에서 밀려나거나 고사할 위험을 우려하면서 동반성장위원회에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사회적경제 기업이 사회적 가치 추구에만 몰두하느라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나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소홀히 할 경우, 빠른 속도로 ESG 경영과 비즈니스모델 전환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SG 지표, 사회적경제 기업 그 자체의 지속가능성 위해 필요

마지막으로 ESG 지표는 그 자체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경제 기업 또한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ESG를 지켜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ESG 지표처럼 200여개를 모두 지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용으로 만들어진 30~50개의 ESG 지표를 포함해 사회적경제 기업만이 지킬 수 있는 ESG 지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조직으로서 받는 건강검진이나 다름 없다.

국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규모는 2017년 약 16만곳에서 2021년 28만곳을 넘어섰다. 대기업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작고 유연한 조직이 갖는 문제해결 방식, 비즈니스모델 구축, 조직 운영 방식 등 사회적경제 기업이 대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송호근 한림대 석좌교수가 '기업시민의 길'에서 인용한 네 가지 기업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가치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한심한 기업'은 투자대상 후보군에도 들지 못할 것이고, 기존의 '경제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얄미운 기업'이나, '사회적 가치에만 치중' 하는 '순진한 기업' 역시 투자 대상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결국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모두 추구 하는 기업, 그리고 이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기업만이 '똑똑한 기업'이 투자자들의 최우선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도 ESG 경영 시대에 '똑똑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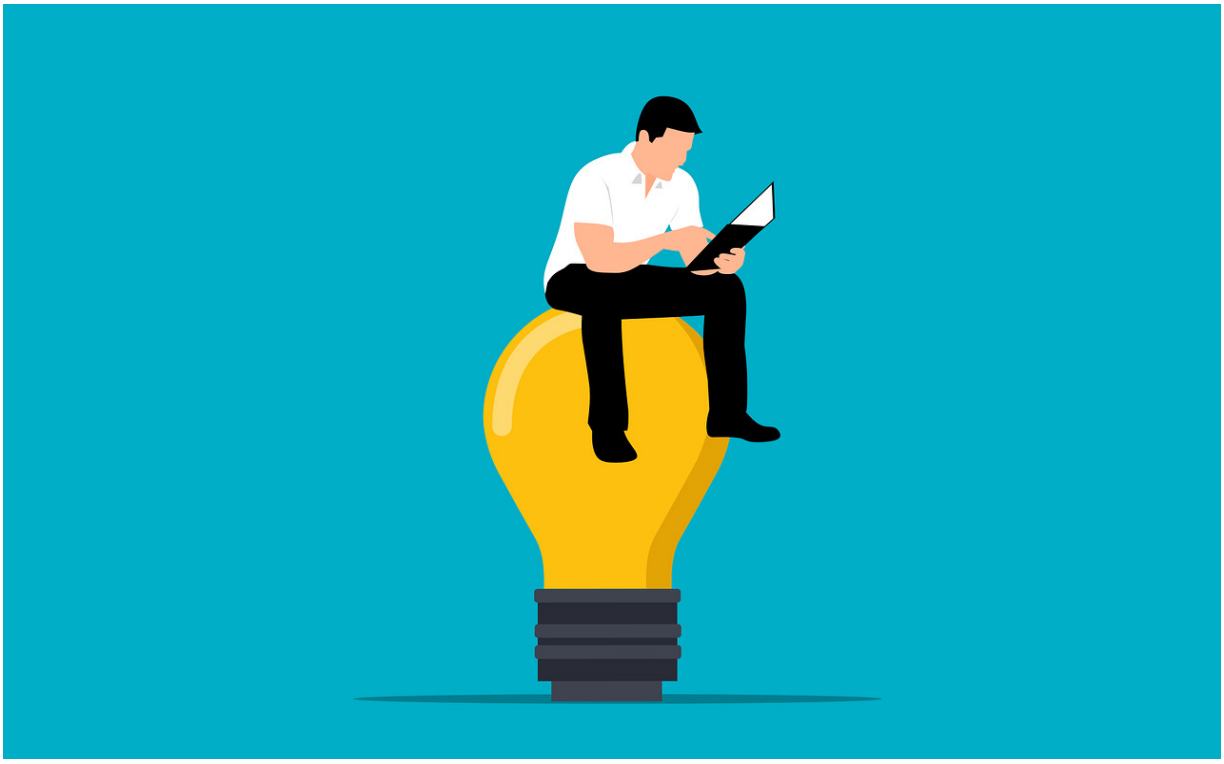
*출처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8408&menuNo=4010100

*https://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2090607460893201035 27&svccode=01

*https://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1059290.html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6282



3. 사회적경제 ESG 진단 항목 도출 배경과 내용

01 사회적경제 ESG진단 항목 개요

- (목적) 사회적경제와 ESG 경영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특화된 지표 구성
- (활용)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경영 리스크 관리 및 오픈 이노베이션 등 ESG 경영 생태계 내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강점 포지셔닝 근거로 활용가능 함
- (구성) 지속가능경영 범주 내에 네거티브 임팩트(Negative Impact) 관리와 포지티브 임팩트(Positive Impact) 창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국내의 주요기관의 ESG 평가 지표, 지속가능발전 목표, 사회적 성과 관련 지표를 모두 활용하여 10개의 ESG 임팩트 지표를 도출함

02 사회적경제 ESG진단을 위한 주요 참고지표

범주	지표	개요
ESG 지표	K-ESG (산업통상자원부)	• 2021년 8월 국내외 주요 13개 평가기관 등의 3000여개 이상의 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ESG 이행과 평가 사항 마련 • 정보공시(5), 환경(17), 사회(22), 지배구조(17) 항목으로 구성
		http://www.motie.go.kr/motie/gov3.0/gov_openinfo/sajun/bbs/bbsView.do?bbs_seq_n=631&bbs_cd_n=30
	중소기업용 ESG 가이드라인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준비 민 · 관 협의회 발족해 중소기업용 ESG 가이드라인 마련 • 환경(10), 사회(7), 지배구조(3), ESG(3) 항목으로 구성
		https://bit.ly/3fVm6UX
	국민연금 ESG 가이드라인 (국민연금)	• 투자대상의 환경 · 사회 ·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평가체계를 마련 • 환경(3), 사회(5), 지배구조(5) 항목으로 구성
		https://bit.ly/3gXFfWK

	한국거래소 ESG 가이던스 (한국거래소)	• 기업과 투자자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ESG 정보 공개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투자 문화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조직(3), 환경(5), 사회(4) 항목으로 구성
		https://esg.krx.co.kr/contents/04/04010000/ESG04010000.jsp#view=1
	KCGS ESG 평가 지표 (한국ESG기준원, 구 한국지배구조원)	•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ISO26000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내 법제 및 경영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여 개발된 독자적 평가모형 • 환경(50), 사회(38), 지배구조(65) 항목으로 구성
		http://www.cgs.or.kr/business/esg_tab01.jsp
	벤처기업용 ESG 투자지침 (중소벤처기업부)	• 유엔(UN) 책임투자원칙과 해외 선진사례, 국내 이에스지(ESG) 지침을 고려하여 글로벌 기준과 국내 ESG 기준의 정합성 확보 • 환경(7), 사회(8), 지배구조(7) 항목으로 구성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34839&parentSeq=1034839
지속가능 발전 관련 지표	UN-SDGs (UN)	• 인류의 보편적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 경제 사회문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적 공동목표를 설정 • 빈곤(2), 사회발전(5), 환경(7), 경제성장(2), 이행수단(1) 주제로 구성
		http://ncsd.go.kr/unsdgs
	K-SDGs (관계부처 합동)	• 국제사회의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한국사회에 처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 사회, 환경, 경제 등 17개 목표로 구성
		http://ncsd.go.kr/research?content=1&post=2320
	KSI (한국표준협회)	• ISO 26000 국제 및 국내 간사기관인 KSA(한국표준협회)와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정권 교수)이 함께 개발 • ISO 26000 기반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사회적책임 이행준수 측정모델 •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공운영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 등 7개 지표로 구성
		https://www.ksa.or.kr/ksi/4973/subview.do

사회적 성과 관련 지표	사회가치지표(SVI)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운영을 통해 창출하는 사회적 성과와 그 영향을 보다 종합적 ·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지표 • 사회(3), 경제(1), 혁신(1) 지표로 구성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evalSVI.do?m_cd=E032
	서울형 사회가치지표 (S-SVI) (서울시)	• 사회가치지표(SVI) 성과 항목 측정을 내부운영성과로, 서울시 전략 및 지역과 연계되는 활동을 지역협력성과로, 개별기업의 고유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미션 중심의 미션실천성과 등 3개 영역으로 구성
		https://sehub.net/archives/2064142
	사회성과인센티브 (SPC) (사회적가치연구원)	• SK 산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가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현금으로 보상하기 위해 개발된 측정방법 • 이해관계자 회계, 보수성, 준거 시장 기준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사회적 기업의 사회성과(사회서비스성과, 고용성과, 사회생태계성과, 환경성과)에 대한 측정 산정식을 제공
		http://www.socialincentive.org/%EC%82%AC%ED%9A%8C%EC%84%B1%EA%B3%BC-%EC%9D%B8%EC%84%BC%ED%8B%B0%EB%B8%8C-%EC%B8%A1%EC%A0%95-%EB%A7%A4%EB%89%B4%EC%96%BC-2020/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에 의거한 사회적 기업 유형과 인증 기준 • 5개 분류(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로 나뉘고 각 유형마다 기준 존재 • 조직형태,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 목적의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등 7개 기준으로 구성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board/view.do?m_cd=D019&pg=3&board_code=BO02&category_id=&category_sub_id=&com_certifi_num=&selectyear=&magazine=&title=&search_word=&search_type=&seq_no=247049

03 사회적경제 ESG진단을 위한 항목체계

영역	진단항목	체크리스트
환경	친환경 · 혁신 제품 생산	• 친환경 · 혁신 제품을 생산 및 소비하고 있는가? • 현재 조직의 주력 사업과 미래 사업은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선호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
사회	사회적 약자 고용	• 사회적 약자 · 고용취약계층을 고용하는가? • 사회적 약자 · 고용취약계층 고용성과가 지속되고 있는가?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 공정 및 사업장 내 위험작업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위험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 계획 및 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다양성과 포용성	• 고용 과정에서 성별, 인종, 국적,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사회적 약자 및 직원 포용성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내부 데이터 관리	•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조직 내 모든 지적 재산 및 주요 영업정보의 반출 · 입이 적절한 보안관리시스템 하에서 행해지는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하는가? •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가?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역량 발굴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	• 지속가능한 도시 ·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문화적 자산을 확보하는가? • 안전하고 포용력 있는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가?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의 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가?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조직의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는가? • 조직의 내부 방침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04 사회적경제 ESG진단 항목 정의서

<table>
<tr><td rowspan="2">구분</td><td colspan="3">영역</td><td colspan="3">범주</td></tr>
<tr><td colspan="3">환경</td><td colspan="3">환경성과</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친환경 · 혁신제품 생산</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자원 · 에너지 사용, 오염물질 배출, 인체 · 생태계 독성 등 제품 전 과정의 환경영향을 파악하며, 제품의 긍정적 환경영향을 확대하고 부정적 환경영향은 축소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친환경 · 혁신 제품을 생산 및 소비하고 있는가?
• 현재 조직의 주력 사업과 미래 사업은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선호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O</td><td>O</td><td></td><td></td><td>O</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K-ESG] ISO 등 국제인증표준에 준하거나, 환경부 등 정부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 획득 제품이 전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점검
•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제품 및 서비스, 또는 친환경 인증 원부자재 등이 포함된 제품군의 매출비율에 따라 산정</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20. 7. 30. 시행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부, 2021. 10. 14. 시행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 2021. 8. 24. 시행
• 「저탄소제품 기준」, 환경부, 2020. 8. 24. 시행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2022.4.20 시행
• 「ISO14024」, Environmental labels and declarations, 2018</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영역</th><th colspan="3">범주</th></tr>
<tr><td colspan="3">사회</td><td colspan="3">고용(근로)</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사회적 약자 고용</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사회적 약자(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 노력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고용 성과를 지속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을 고용하는가?
•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 고용성과가 지속되고 있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td><td></td><td>O</td><td>O</td><td></td><td></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사회적기업 인증]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취약계층의 범위와 기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뜻함)
• [SVI & S-SVI] 직전연도와 비교한 고용성장률</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ISO 26000」, Labor practices
•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2012.08.02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9. 12. 20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2. 6. 8 시행</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영역</th><th colspan="3">범주</th></tr>
<tr><td colspan="3">사회</td><td colspan="3">고용(근로)</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 관리</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국내외 표준에서 제시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조직이 이를 따르거나 준용하여 사전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한 안전보건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근로자 보건 및 안전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만들고 있는가?
• 공정 및 사업장 내 위험작업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위험작업에 대한 적절한 안전 계획 및 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td><td>O</td><td></td><td>O</td><td></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K-ESG]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안전보건 정책,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조직의 안전보건 관리가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①경영자 리더십, ②근로자 참여, ③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 ④비상조치 계획의 수립, ⑤평가 및 개선 여부 등)</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8 발간
•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2021. 11. 19. 시행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2021. 11. 19. 시행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안전보건공단, 2019. 5. 2.
• 「ISO 45001」,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2018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2022. 1. 27 시행</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영역</th><th colspan="5">범주</th></tr>
<tr><td>사회</td><td colspan="5">인권</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다양성과 포용성</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고용과 제품서비스 생산 과정에서 성별, 인종, 국적,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관리하고, 조직이 인권정책(Human Rights Policy)을 통해 인권보호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는지 점검</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고용 과정에서 성별, 인종, 국적, 신체적 자유 등에 대해 차별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사회적 약자 및 직원 포용성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O</td><td>O</td><td></td><td></td><td></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K-ESG] 조직의 인권정책 내 차별금지, 근로 조건 준수, 포용성 확보 등이 다뤄지고 있는지 측정</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고용노동부, 2021. 7. 6. 시행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국가인권위원회, 2014. 1
• 「UN Global Compact 10 Principles」, United Nations, 2011
•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00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영역</th><th colspan="5">범주</th></tr>
<tr><td>사회</td><td colspan="5">소비자와 정보보안</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내부 데이터 관리</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정보자산 해킹, 네트워크 침입 등의 외부공격 및 물리적 · 인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 조직 내 모든 지적 재산 및 주요 영업정보의 반출 · 입이 적절한 보안관리시스템 하에서 행해지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td><td></td><td>O</td><td></td><td></td><td></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K-ESG] 정보통신망 및 기타 정보자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규정, 정보보호 추진 계획 및 결과, 정보보호 공시 내역 조직의 지난 5개년 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 · 규제 위반 건수를 종합한 감점으로 총점 측정)</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정보통신용어사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12. 10.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2. 2.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
•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8. 5. 시행</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영역</th><th colspan="3">범주</th></tr>
<tr><td colspan="3">사회</td><td colspan="3">지역사회</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조직이 신규 채용을 통해 지속적 성장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성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하는가?
• 조직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투자하는가?</td></tr>
<tr><td rowspan="3">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O</td><td>O</td><td></td><td></td><td></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td><td>O</td><td>O</td><td>O</td><td></td><td>O</td><td>O</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사회적기업 인증] 지역의 인적 · 물적자원 활용유형
• 지역에 소속된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이면 인증 사회적기업 요건 충족</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분야별 정책 > 취업지원
• 「Core Metrics - Absolute number and rate of employment」, World Economic Forum, 2020
• 「GRI Standards - 401(Employment)」, Global Reporting Initiative, 2016
• 「ISO 26000」, Labor practices, 2010
•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2012.08.02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9. 12. 20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2. 6. 8 시행</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영역</th><th colspan="3">범주</th></tr>
<tr><td colspan="3">사회</td><td colspan="3">지역사회</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제공</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지역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의 성장에 기여하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지역사회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역량 발굴 및 성장에 기여하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td><td></td><td></td><td></td><td></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O</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사회적기업 인증]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 인증 요건
-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기업 전체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SPC 사회성과 산정식] Σ[(SE의 기존 채널 대비 대상자별 단위당 추가 지불 비용 또는 부가가치액 × 총거래량]</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ISO 26000」,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2010
•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2012.08.02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9. 12. 20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2. 6. 8 시행</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영역</th><th colspan="3">범주</th></tr>
<tr><td colspan="3">사회</td><td colspan="3">지역사회</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복원력이 높은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와 포용적인 주거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물리적, 사회적 자산을 확보하는지 점검</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지속가능한 도시 ·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문화적 자산을 확보하는가?
• 안전하고 포용력 있는 인프라 조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td><td></td><td></td><td></td><td>O</td><td></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O</td><td>O</td><td>O</td><td>O</td><td></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SPC 사회성과 산정식] Σ[SE가 창출한 사회문화적 자산의 단위당 가치 × 총 거래량] ※ 단위당 가치 추정은 다양한 표준식을 조합, 변형하여 적용</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ISO 26000」,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2012.08.02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9. 12. 20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2. 6. 8 시행</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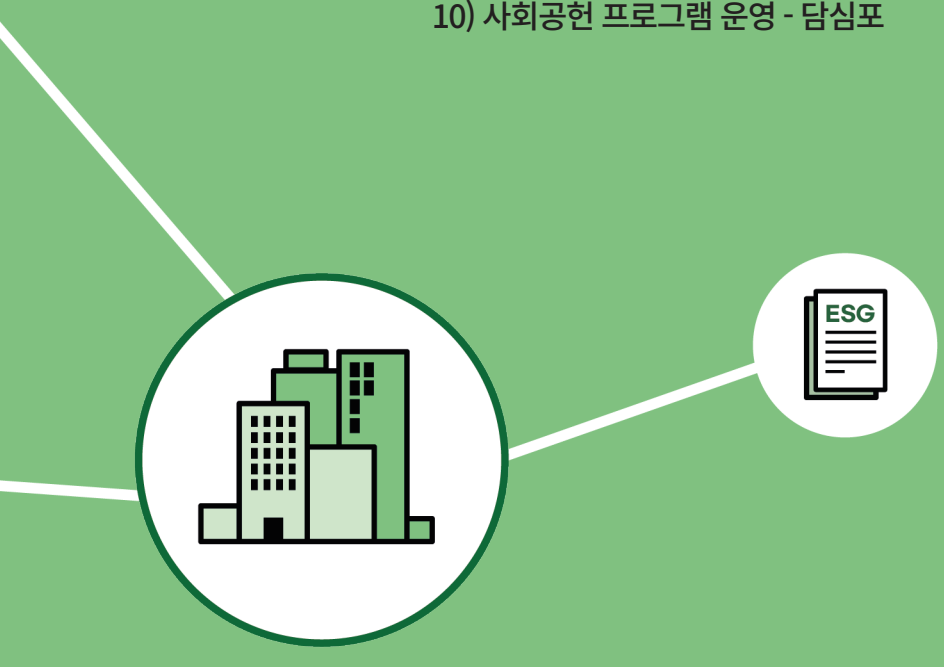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영역</th><th colspan="5">범주</th></tr>
<tr><td>사회</td><td colspan="5">지역사회</td></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해 원활한 사회적응과 자립에 기여하는지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을 위한 제품 ·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사회적 약자 · 취약계층의 개발과 자립을 지원하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td><td></td><td></td><td></td><td>O</td><td></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O</td><td>O</td><td>O</td><td></td><td>O</td><td>O</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사회적기업 인증]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율 50% 이상
• [SPC 사회성과 산정식] Σ[유사서비스 대비 사회적 기업(SE) 서비스의 추가 가치 × 서비스 제공량 + (SE 제공가격 + 추가가치) × 취약계층 대상 자부담 무료 서비스 제공량] – 관련 지원금 또는 기부금</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ISO 26000」, Community involvement and development
•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 2012.08.02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2019. 12. 20 시행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2022. 6. 8 시행</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영역</th><th colspan="5">범주</th></tr>
<tr><th>사회</th><th colspan="5">사회공헌</th></tr>
<tr><td>진단 항목</td><td colspan="6">•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td></tr>
<tr><td>항목 설명</td><td colspan="6">• 조직이 지역사회로부터 사업을 운영할 권리(License to Operate)를 획득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공동의 환경 · 사회 문제 해결에 필요한 활동에 앞장서는 등 전략적 사회공헌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
• 자선활동을 비롯하여 후원,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참여방법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는 수준을 확인</td></tr>
<tr><td>항목
체크리스트</td><td colspan="6">• 조직의 사업적 필요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사회공헌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는가?
• 조직의 내부 방침에 따라 사회에 기여하는 전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td></tr>
<tr><td rowspan="4">기존 ESG 지표
해당 여부</td><td>K-ESG</td><td>중진공 ESG</td><td>국민연금</td><td>한국거래소</td><td>KCGS</td><td>벤처기업 ESG</td></tr>
<tr><td>O</td><td>O</td><td></td><td></td><td>O</td><td>O</td></tr>
<tr><td>UN-SDGs</td><td>K-SDGs</td><td>KSI</td><td>S-SVI & S-SVI</td><td>SPC</td><td>사회적기업 인증</td></tr>
<tr><td></td><td></td><td>O</td><td></td><td></td><td></td></tr>
<tr><td>성과 측정
기준 예시</td><td colspan="6">• [K-ESG] 국내 및 해외 사업장의 사회공헌 전략, 사회공헌 분야 · 영역, 사회공헌 성과 지표 등 내부 자료를 통해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공헌을 추진하려는 조직의 노력 수준을 측정</td></tr>
<tr><td>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td><td colspan="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2017. 7. 26. 시행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2021. 5. 18. 시행
• 「Corporate Sustainability Assessment Companion」, S&P Global Inc., 2021</td></tr>
</table>

Part 2
전략편

1 ESG 경영 실천 사회적경제 기업 10곳

1) 친환경 · 혁신 제품 생산 - 도시광부
2) 사회적 약자 고용 - 테스트웍스
3)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 엔젤스윙
4) 다양성과 포용성 - 디올연구소
5) 내부 데이터 관리 - 라임프렌즈
6)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7)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제공 - 농부장터
8)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 - 안산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
9)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 네오에이블
10)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 담심포



1. 친환경 · 혁신 제품 생산

커피찌꺼기를 소재로 업사이클링 제품 만드는 도시광부

도시광부는 커피원두 찌꺼기를 가공해 친환경 바이오 흡착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바이오 흡착소재란 콩, 옥수수 등 바이오 연료로 액체나 기체를 고체에 부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냉장고 안이나 의류에 있는 냄새를 빨아들이는 원리다. 도시광부는 도심 속 주요 폐기물이자 바이오 원료로 커피찌꺼기에 집중했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한 해 버려지는 커피찌꺼기는 약 15만 톤에 달한다. 1톤을 소각하면 338kg의 탄소가 배출된다. 한국은 전 세계 커피 소비량 3위이며, 국내 커피 시장 규모도 2016년 5조9000억 원에서 2023년 8조6000억 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커피 소비량이 많아지는 만큼 커피찌꺼기로 인한 탄소 배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커피찌꺼기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3월 이를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를 완화했다. 기존 '폐기물 관리법'상 커피찌꺼기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경계선에 있었다.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만이 수거처리할 수 있는데 이제는 누구나 커피찌꺼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커피찌꺼기가 연료료 사용되는 경우 일반적인 목재 펠릿보다 발열량이 높아 바이오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연간 최대 5만 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매립 혹은 소각됐던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를 넘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도시광부 나용훈 대표는 친환경에 대한 사회 인식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ESG 지표 중 '친환경 · 혁신 제품 생산'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도시광부 나용훈 대표를 만나 혁신 과정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URBAN MINER

커피찌꺼기의 정부 규제가 풀리기 전부터 커피찌꺼기를 제품 자원으로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2007-2008년부터 우리나라와 해외에 모두 확장 가능한 제품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했다. 2016년부터 커피를 주 원료로 하는 바이오 원료를 만드는 일을 시작해서 시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커피 찌꺼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잘못됐다는 문제의식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커피찌꺼기를 가져와서 화장실이나 냉장고 안에 두려고 하는데 냄새를 잡으려면 흡착제를 넣어야 한다. 그런데 커피찌꺼기는 방향제와 같은 탈취의 역할만 한다.

제품 전과정 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 차원에서도 접근하고자 했다. 1kg 플라스틱을 썼을 때 탄소가 대략 3-5kg 배출되는데 커피 1kg을 생산하면 탄소는 15kg 정도 배출된다. 플라스틱은 그래도 용도대로 다 쓰이기는 하지만 커피는 1%밖에 쓰이지 않고 99% 폐기된다. 커피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배송되는 데까지 쓰이는 운송 때문에 탄소 배출이 높은 편이다. 커피찌꺼기에 대한 여러 문제의식 속에서 커피찌꺼기를 자원으로 활용하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제품 개발을 시작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나 개발된 제품이 있는가.

3월 이후에 정부 규제가 완화돼 그 전에는 시제품으로 제작됐다. 지금은 커피찌꺼기로 만든 바이오 흡착제가 핵심 상품이다. 바이오 흡착제 기술로 세탁기, 냉장고 필터 등 회사가 필요로하는 제품에 따라 맞춤화해서 만든다. 지금은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 제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 LG화학, 현대자동차, GS건설, 코웨이, SK매직 등 여러 국내 기업들과 협력해서 매출은 작년 기준 3억 원 정도 된다.

그리고 이너뷰티용 제품도 준비 중에 있다. 스크럽, 마스크팩 등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는데 피부 노폐물을 흡착제로 제거할 수 있다. 흡착제는 피부 유해세균을 저감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11월에 아마존에 제품을 론칭할 예정이다. 캐나다, 미국, 일본, 중국 등 흡착제 제품 인지도가 높고 합법적으로 제품 상용화가 가능한 주로 선진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흡연자를 위한 천연해독 스틱 젤리로 담배의 독성을 덜어낸 푸드 테크 제품, 참숯, 공기청정기 · 정수기 탄소 필터 등 다양하게 개발했다. 우리 제품들은 모두 환경에 무해하며, 원료로써 커피 원두 활용도를 확장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해외와 비교했을 때 환경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친환경이라고 해도 바로 상용화될 수 있는 제품 샘플부터 받길 원한다. 반면 해외는 탄소포획이나 에너지 등 아이디어를 보고 투자해서 같이 개발해 나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비건 문화, 에코(eco) 콘셉트 문화가 자리잡혀 가고 있다. 세대별 특성과 트렌드가 서비스와 제품을 바꿔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제품 안에 가치와 스토리를 담으려고 한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 문제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새로운 길을 가다보니 물어볼 사람도 없지만 그래도 재밌기도 하다. 예전에 기업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한 적이 있다. 기업이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당장 구현은 못하지만 프로젝트 비용을 받아서 제품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판매한다. 그래서 2017-18년도에는 아이템 개발 제안도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대기업들로부터 아이템을 확장 개발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는다.

기업과는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가

개별 기업과의 협업은 임팩트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협업 제안이 들어오면 아무곳이나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곳과 협력한다. 탄소와 환경에 대한 공감대와 고민이 같으면 어떻게든 의사소통을 하고 탄소를 감축해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 한국 제품을 생산하는 LG생활건강과 협력을 하고 있다. 천안에 공장이 있는데 패키징 순환구조를 만들어서 기여할 수 있는 시험 중에 있다. LG생활건강은 기능성 소재를 만들었을 때 안전성 평가를 도와주고 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현장에서 각종 폭발 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산업재해는 중요하면서 매우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실제 커피를 흡착제로 만드는 과정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이라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이 필요하다. 기술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LG생활건강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S(사회) 부문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가.

사고 방지를 위해 공장 프로토콜, 교육을 매 분기 진행한다. 내부 데이터 관리도 철저히 한다. 협업을 하기 전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제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 매출 등 직접 지표가 많지만 금전적·비금전적인 이익을 모두 고려한다. 특히 프로젝트를 하거나 협업을 할 때 다른 일에 충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화장품 소재, 기능성 소재를 개발할 때 한쪽은 생활 건강, 다른 한쪽은 화장품 회사와 동시에 일을 하면 안된다. 이렇게 되면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다. 생활 건강과 협력해서 만든 것을 다른 화장품 회사에도 판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SG 가치에 부합하는 내부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앞으로의 성장 방향이 있다면?

핵심 콘텐츠를 만들려고 노력 중이다.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이라는 게 우리만의 주장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게 고민이고 숙제다.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친환경을 객관화하고 인식을 높여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싶다. 제품 개발의 경우 커피원두를 로스팅한 식이보조제 등 제품 영역을 확장해 개발해나갈 것이다.

도시광부는?

· 제품영역: 유해가스 발생하지 않는 참숯, 공기청정기 · 정수기 탄소 필터 등
· 차별성: 커피숯 관련 지식재산권 최다 보유, 커피 찌꺼기 수집부터 건조, 탄화할 수 있는 기술 보유
· 매출: 약 3억 원, 2021년 기준
· 직원: 5명
· 주요 고객사 및 투자, 성과: 20여곳 대기업 협력, SK사회성과 인센티브/COOLIDGE CORNER Social Venture Startup/BMW MINI Urban Lifestyle Startup/미국 igniteXL Accelerating Startup/중국 Tuspark Accelerating Startup 등 국내외 대기업 엑셀러레이팅 선정

도시광부의 핵심 제품은?

커피찌꺼기로 만든 고품질 활성탄

2021년 LG생활건강과 도시광부는 커피박의 처리 공정과 활성탄을 제조하기 위해 협력을 체결했다. LG생활건강이 커피 음료 제조 후 폐기되는 커피찌꺼기를 도시광부에 제공하고 도시광부는 고품질 활성탄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다. 활성탄은 폐수 정수 및 대기 정화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소재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제품이다. 이 원료는 탄소함유율이 높아 흡착성이 우수한 무해물질이다. 도시광부는 커피찌꺼기를 순환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자체 기술을 활용해 피지흡착제 화장품과 냄새 제거 생활용품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2. 사회적 약자 고용

직원 171명 중 28%(48명) 취업 취약계층 고용, 테스트웍스

테스트웍스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SW) 테스트 전문 사회적기업이다.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위한 시작과 끝, 양쪽 끝단을 담당한다.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해선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소위 '데이터 라벨링' 작업이 맨 먼저 이뤄져야 하고, 또 서비스 최종 출시에 앞서서 소프트웨어를 테스트해보면서 품질을 검증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작업에는 워낙 많은 인력과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해, 소위 '더티 워크(Dirty Work)'라고 불린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삼성전자를 거친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전문가 윤석원 대표는 2015년 테스트웍스를 창립했다. 테스트웍스와 데이터큐의 전체 직원 수는 2020년 말 기준 126명에서 2021년 말 기준 171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한 해 동안 45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졌다.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직원 수는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등을 포함하여 48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28%에 해당된다. 혼합형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인 20%를 훌쩍 넘는다. 2021년 전체 45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장애인 직원은 11명이다. 2021년 말 기준 테스트웍스와 데이터큐의 전체 장애인 직원은 30명으로 발달장애인은 16명, 청각장애인은 14명이다.

ESG 지표 중 '사회적 약자 고용'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를 만나, 고용과 관련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발달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 고용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원래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전공이었고, 창업 이후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개발하기 위한 분야를 찾다보니 이렇게 커졌다. 인공지능 분야가 시장성이 좋다보니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2015년 창업할 때만 해도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테스트웍스밖에 없었는데, 2019년 5개, 최근에는 100개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테스트웍스는 톱 5위 내에 포함될 만큼 품질이 좋다.

윤석원 대표는 삼성전자 시절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경력단절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테스터'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을 도왔는데, 70~80%의 합격생을 배출했지만 막상 취업에는 성공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을 알게된 후 아예 사회적기업을 직접 세웠다.

때문에 사회적 약자 고용은 테스트웍스의 소셜 미션이다.

사회적 약자 고용이 확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장애인과 경력단절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도 증빙을 위한 절차가 따로 있다. 예를 들면, 경력단절 여성이 되려면 40세가 넘어야 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 교육을 받아야 취약계층 인증을 받는 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회(Second Chance)'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포지셔닝했다. 통계에는 잡히지 않지만 취약계층인 분들이 많이 들어왔다. 생물학과 졸업 후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을 노렸지만 실패한 청년, 40대 후반에 퇴직 후 자영업하다 2년 가량 실직 상태였던 분, 공무원 시험을 오래 준비하던 청년 등 상당히 다양하다. 이 분들에게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처음에는 낮은 직무와 직급으로 시작하더라도, 업무를 잘해내면 승진이 이뤄지는 등 기회와 처우가 공정해야 한다. 회사 내의 정보를 되도록 오픈하는 '투명성'도 중요하다.

내부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가.

원래 HRD팀이 있으려면 조직 규모가 직원 100명은 넘어가야 하지만, 우리는 창업 초기부터 직무에 맞는 교육을 강조했다. 입사자 교육, 직무별 자격증이나 필수교육도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무교육의 경우 20명이 모이면 강사가 직접 회사로 와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 이뿐 아니라 창업 초기부터 대표인 제가 직접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기도 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15명인데, 이분들이 테스트웍스의 '중추(backbone)'들이다. 1호 사원인 정은미 팀장은 경력단절 여성으로,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은 인연을 계기로 입사했는데 내부직무교육을 받은 후 팀장, 본부장 등으로 승진해 지금은 임원이 되었다. 발달장애인 한 명도 새로운 직무 전환과 직무 확장에 성공해, 파트타임에서 풀타임이 되었다. 청각장애인 한 명도 파트장으로 승진했다.

발달장애인 직원 중 2명 중 1명은 테스트웍스에서 삼성전자, 하니웰, 애터미, 씨젠 등의 장기 고객을 맡고 있는 소프트웨어 검증 사업부로 직무 전환을 통해 품질 검증 및 보안 전문가로 새로운 경력 개발을 시작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직원은 데이터 라벨러 교육에서 강사 경험을 통해 동료 및 신규 직원들 대상으로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다.

윤석원 대표는 "직무 설계와 교육은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핵심 키(key)인데, 없는 기업도 많다"며 "사회적기업 대표들은 직무 설계와 교육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게 좋다"고 말했다.

장애인이나 여성 등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춘 조직문화를 갖추기 위한 노력은 무엇이 있는가.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하다보니, 이 분들의 자리 배치를 넓게 한다. 청각장애인들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가 말을 하면 자동으로 자막을 띄워주는 장치를 갖춘다든지 장애인들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또 여성 직원들, 특히 경력보유 여성들도 많은 근무환경인데, 우리는 성희롱과 관련해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를 시행한다. 여성분들이 매니저일 경우에도 남성 직원에게 언어 사용 등을 통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지시킨다.

사회적기업 테스트웍스는?

· 서비스 영역:

1)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 컨설팅부터, 데이터 수집, 가공, 검수, 자동화, 제3자 품질 검증, 인공지능 학습 모델 추천까지 고품질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2)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시험성적서 발급 등 인공지능 및 소프트웨어 품질 검증 서비스

· 매출: 약 75억 원(정부사업 포함 약 200억 원), 2021년 기준

· 고용: 171명(취업 취약계층 48명), 2021년 기준

· 주요 고객사 및 투자, 성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D3쥬빌리파트너스, SK(주), KDB산업은행, 신한카드 등 55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 2021년 7월 대통령 표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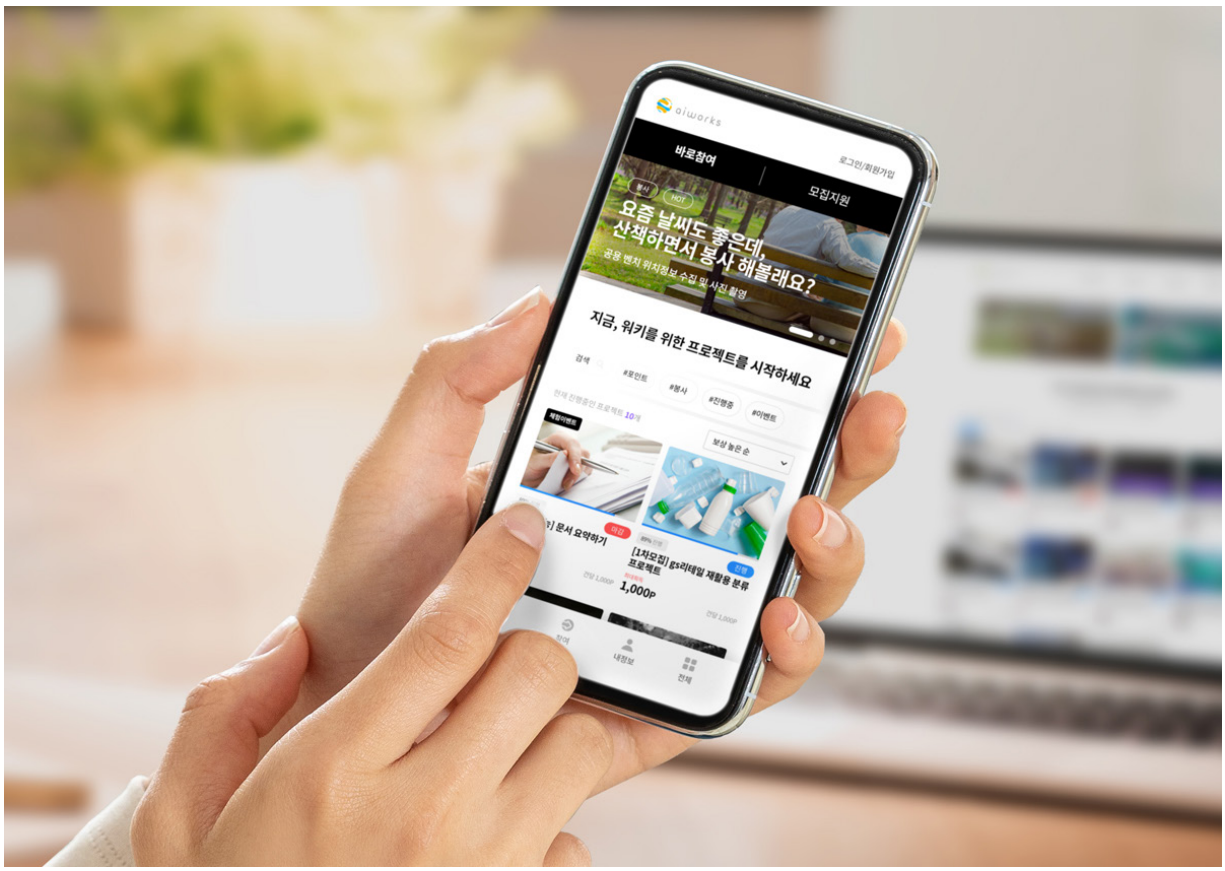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무요건을 채우지 못해 분담금을 내는 기업도 많은데,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면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라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강점을 활용하고, 생산성을 잘 낼 수 있는 직무와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R&D이다. 회사가 스케일업을 하려면 혁신하는 문화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면 안된다. 장애인이 수동으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식이었으면 우리 회사도 성장할 수 없었다. 테스트웍스의 크라우드-소싱 기반 데이터 수집 가공 플랫폼인 '에이아이웍스(aiworks)'를 만들었는데, 여기는 누구나 데이터를 올리면 보상도 받는 형태이다. 이렇게 R&D를 통한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에이아이웍스(aiworks)의 가입자는 2021년 말 약 7만 명에서 2022년 상반기 약 8만 명 이상 성장했다. 2021년 기준 크라우드-소싱으로 창출된 고용효과를 환산하면 고용 인원은 443명에 달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장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

테크기업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사회적 기여를 하는 선순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테스트웍스는 '레퍼런스 모델'을 만드는 조직이라고 생각한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임팩트펀드와 ESG펀드 등도 많이 생겨서 생태계가 훨씬 더 풍성해졌다. 앞으로는 사회문제형 데이터를 모아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소셜벤처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에이블테크처럼 특정기술을 활용해서,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거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



테스트웍스’s 임팩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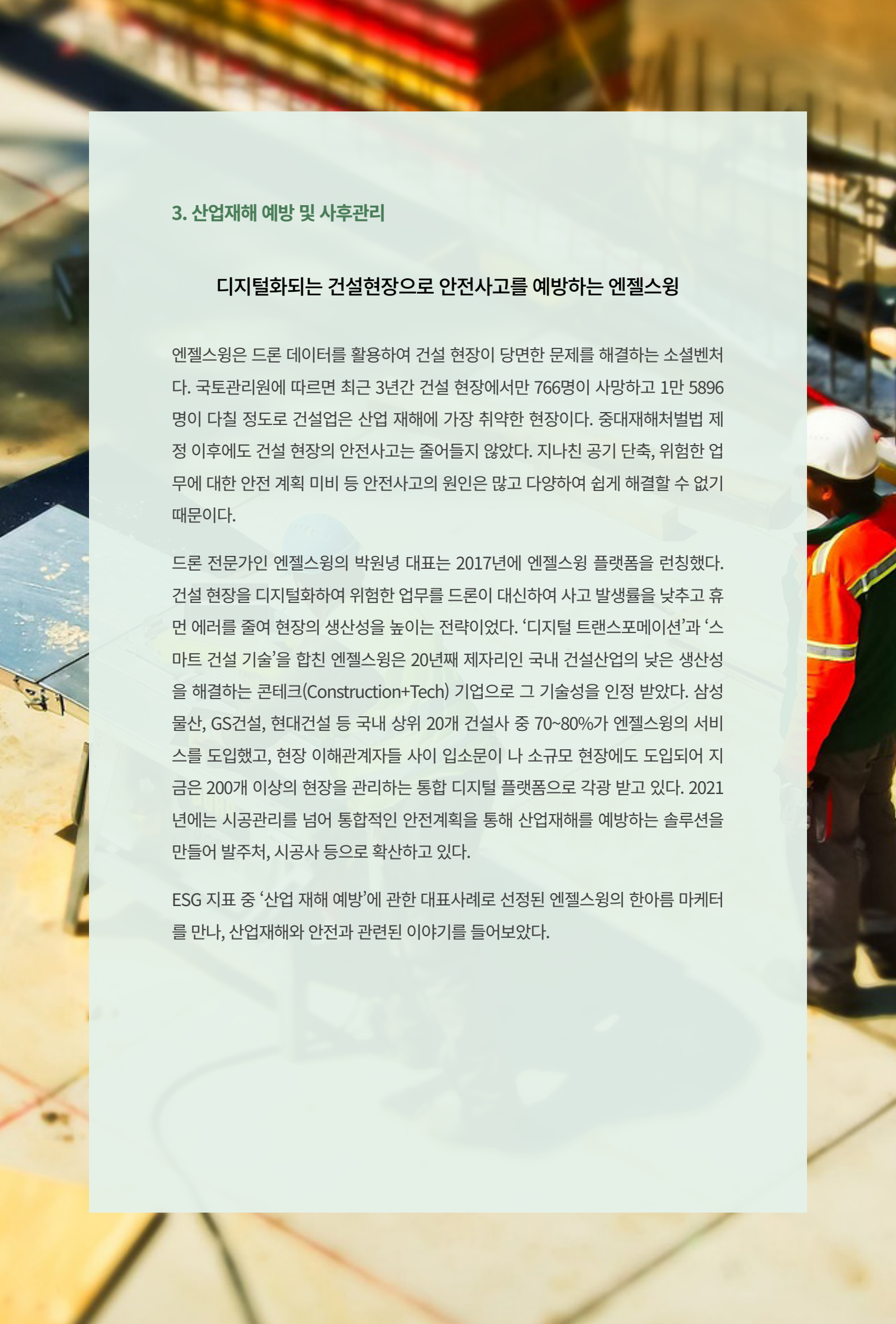
“데이터 라벨링 교육 통해 일자리 + 소득 창출 기회 제공”

· 2021년 약 500명의 디지털 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 시니어, 장애인 등)에게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진행하고, 그중 약 40%가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해 소득 창출.(2021년 테스트웍스 교육 수료 인원 기준)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서부 캠퍼스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교육을 위탁한 지자체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장애인 직무 확대. 특히 데이터 라벨링 직군의 발달장애인 직원들 중 데이터 라벨러 교육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 검증 전문가로 직무를 전환하는 등 성공적인 경력 개발

·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도 보행 영상,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등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 위한 데이터 제공



3. 산업재해 예방 및 사후관리

디지털화되는 건설현장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엔젤스윙

엔젤스윙은 드론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다. 국토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건설 현장에서만 766명이 사망하고 1만 5896명이 다칠 정도로 건설업은 산업 재해에 가장 취약한 현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나친 공기 단축, 위험한 업무에 대한 안전 계획 미비 등 안전사고의 원인은 많고 다양하여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드론 전문가인 엔젤스윙의 박원녕 대표는 2017년에 엔젤스윙 플랫폼을 런칭했다. 건설 현장을 디지털화하여 위험한 업무를 드론이 대신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휴먼 에러를 줄여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이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스마트 건설 기술'을 합친 엔젤스윙은 20년째 제자리인 국내 건설산업의 낮은 생산성을 해결하는 콘테크(Construction+Tech) 기업으로 그 기술성을 인정 받았다.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국내 상위 20개 건설사 중 70~80%가 엔젤스윙의 서비스를 도입했고, 현장 이해관계자들 사이 입소문이 나 소규모 현장에도 도입되어 지금은 200개 이상의 현장을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으로 각광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시공관리를 넘어 통합적인 안전계획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솔루션을 만들어 발주처, 시공사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ESG 지표 중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엔젤스윙의 한아름 마케터를 만나, 산업재해와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GELSWING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엔젤스윙은 미국 조지아텍에서 항공우주학을 공부하고 있던 학생의 네팔 봉사활동에서 시작됐다. 2015년 네팔은 대지진이 일어난 후, 사회 복구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당시 네팔은 넓은 피해 지역과 낙후된 시설로 인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드론을 활용해 피해 지역을 매핑하여 복구에 사용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엔젤스윙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드론을 통해 넓은 피해 지역을 촬영하여 만든 지도는 복구 사업의 통합적인 관리 수단이 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회적 문제를 푸는 것이 기업의 수익화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고, 드론을 통해 촬영한 정보를 활용하여 건설 현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로 엔젤스윙의 시공관리 플랫폼을 시작하게 됐다.

엔젤스윙의 사업 모델은 건설 현장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었나.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과제는 '낮은 생산성'과 '안전'이다. 엔젤스윙은 '낮은 생산성'을 해결하기 위해 시공관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낮은 생산성'은 협력사들 간의 의사소통 오류에서 비롯하는데, 주로 측량의 오류, 시공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실시간 기록의 미비에서 기인한다. 엔젤스윙의 시공관리 플랫폼은 드론이 촬영한 데이터를 통해 가상 지도를 만들어 측량하여 오차 범위를 줄이고 작업 지시서를 디지털화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같은 상황을 공유할 수 있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의사소통의 오류를 줄여 산업 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소셜벤처 엔젤스윙은?

· 서비스 영역:
  1) 드론을 이용한 디지털 매핑으로 건설 현장 시공관리 플랫폼
  2) 건설 현장 안전 관리 및 계획 솔루션 제공
· 매출: 약 7억 원, 2021년 기준
· 고용: 25명, 2021년 기준
· 주요 고객사 및 투자, 성과: 삼성물산, GS건설, 현대건설 등 고객사, 누적 투자액 39억 원, 삼성벤처투자로부터 전략적 투자 유치

시공관리 플랫폼에 이어 안전관리 플랫폼도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시공관리 플랫폼이 건설 현장의 자원 낭비를 줄여 생산성을 높였으니, 현장의 다음 과제인 '안전'에 주목하기로 했다. 마침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표되고, 기업의 ESG 화두 중에 산업 재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대부분의 안전 사고는 부실한 안전계획과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미비에서 기인한다. 기존에 보급된 안전관리 솔루션은 개별 사고 후 수습용 '사후 대처' 솔루션이 대부분이라 현장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엔젤스윙의 안전관리 플랫폼은 드론 데이터로 만든 현장 지도를 통해 현장에 최적화된 안전 계획을 도출해준다. 또 매일 변화하는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현장 작업자가 지니고 있는 어떠한 디바이스로든 웹 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작업 지시 사항을 빠르게 확인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적인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콘-테크(Construction+Tech) 기업으로서 안전 관리 솔루션의 강점은 무엇인가.

드론 데이터가 만들어낸 디지털 트윈(가상 지도)은 시각적 요소를 기반으로 하여 직관적이라는 강점이 있다. 건설 현장에는 다수의 협력사와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들이 참여할 때가 많다. 이때 소통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안전 교육 미디어를 제공하지만, 실제로 소통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엔젤스윙의 가상 지도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현장에서 변경되는 장비, 자재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작업 반경에 따라 안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반복된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 또 방대한 양의 작업 지시서와 안전 계획을 디지털화하여 누구나 안전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콘테크(Con-Tech) 기업으로서 우리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엔젤스윙 사업의 핵심은 드론을 운영해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력인 것 같다. 드론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현장의 인력으로 드론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다. 자체적으로 드론을 갖고 있지 않은 현장도 있고, 드론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의 부재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현장 내부 인력만으로 드론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엔젤스윙만의 고객 성공(Customer Success)팀을 두어 비행 미션 수행을 통해 건설 현장의 가상 지도(Digital Twin)를 만들어주고, 촬영 및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하여 다음 인력이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해결하고 있다.

또 드론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취급하고 있는 기업 특성상,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드론의 기술력에 사업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 엔젤스윙은 드론으로 취득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원천 데이터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 세계 일반 상업용 드론 제조사의 DJI Technology(이하 DJI)의 상용화된 드론은 물론 다양한 시중 UAV 제품이 취득하는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드론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서비스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드론은 한번 비행할 때마다 3~4개의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현장이 커질수록 배터리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진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현장별로 드론 비행마다 배터리를 소모하는 것은 환경 측면으로도, 비용적으로도 손해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DJI의 드론 스테이션이라는 신제품을 도입할 예정이다.드론 스테이션을 도입하면 현장에서 드론을 직접 구비할 필요 없이 엔젤스윙에서 직접 비행을 보내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드론 스테이션은 2주마다 한 번씩 현장의 데이터를 습득하여 상시성도 확보하고, 소모되는 배터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DJI에서도 엔젤스윙에게 한국 기업 중 최초

로 드론 관련 파트너십을 도모해 국내 드론 기술의 발전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기술적인 협업을 제안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이 기업의 수익화와 연결될 수 있도록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인상 깊다. 산업 재해 예방 외에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가 더 있나.

네팔 지진피해 복구 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해외 재난복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플라스틱 쓰레기 모니터링을 위해 수도의 하천 유역 및 바닷가 쓰레기 산 매핑과 정량화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에 팔루 대지진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위해 드론 매핑과 재난 피해 정량화 분석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네팔 카트만두 도시화 현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드론 매핑을 한 적도 있다. 또 네팔 현지에 R&D 센터를 설립하여 개발도상국 엔지니어링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국내에도 드론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서울 지역 판자촌 및 슬럼 매핑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한국자치경제연구원과 협력하여 제주도의 문화유산인 밭담의 현황 파악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공간 및 영상정보의 디지털화에 자사의 드론을 활용했다. 기존의 밭담 측량은 사람이 수동으로 계산하고 기존 문헌과 비교해가면서 높이를 추정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면, 이번에 드론을 활용함으로써 예산과 시간을 최대한 절감하여 DB화할 수 있는 강점을 보이기도 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뿐 아니라 광산, 플랜트, 재난 현장, 문화 유산 등 '넓은 현장의 디지털화'로 나아가 건설 현장을 넘어, 인공위성보다 지구에 더 가까운 곳(Near Earth)에서 엔젤스윙의 'Live earth'를 만드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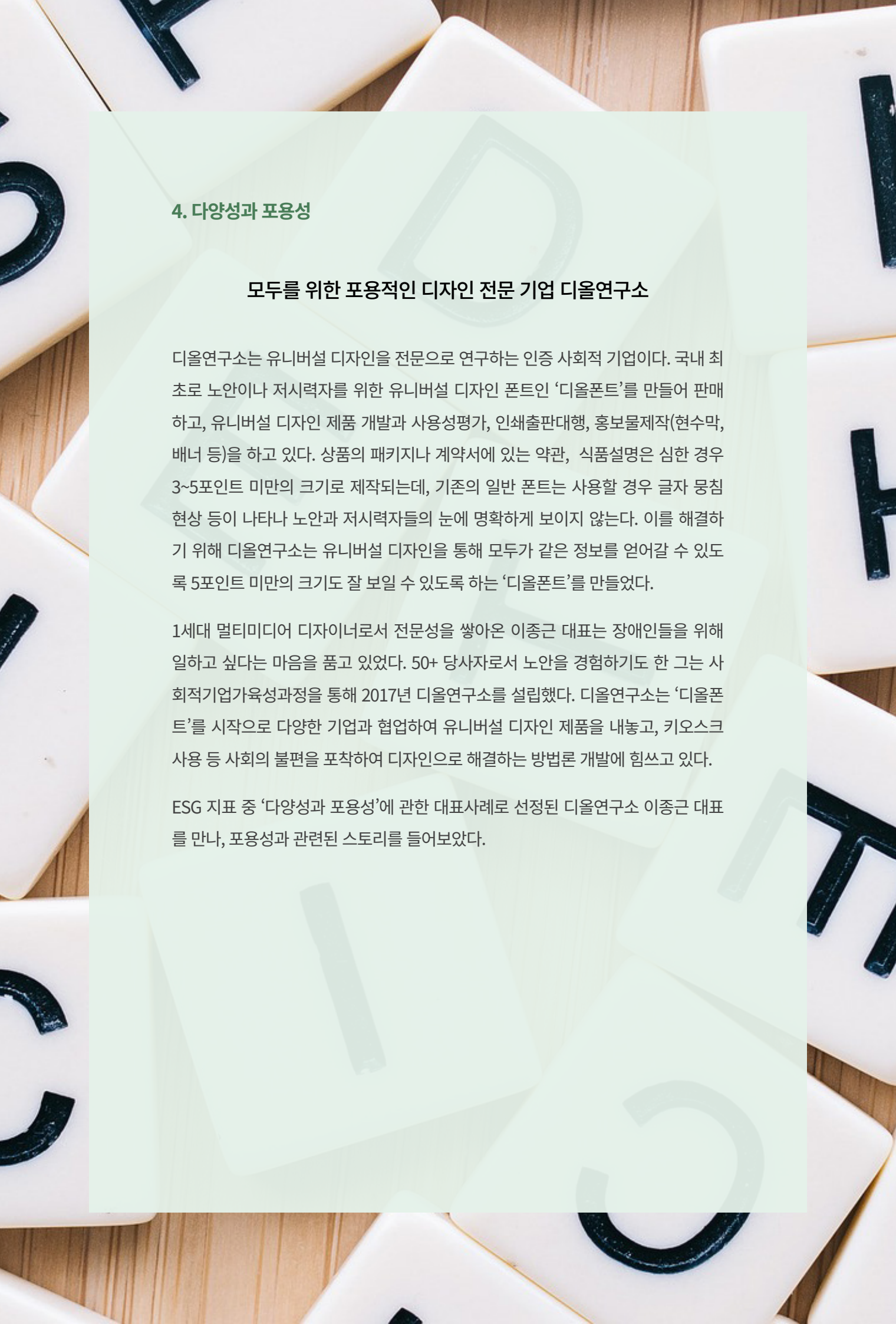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장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

건설 현장을 위한 통합 디지털 솔루션으로 시공관리 플랫폼과 안전관리 플랫폼의 지속과 확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종합 건설사를 넘어서 협력사, 설계사, 감리사, 발주자 등 건설 산업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소통하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플랫폼이 될 계획이다. 또 현장의 실질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작업 공정별 모듈을 제공해서 현장의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 계획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업 범위를 해와 건설 현장으로 확대하고 광산, 골재, 재난, 환경 등 디지털 매핑이 필요한 넓은 현장으로도 사업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엔젤스윙 's 임팩트

"드론 기술을 이용한 건설 현장 산업 재해 예방 + 재난 복구 등 사회 공헌 사업 진행"

- 건설 현장 통합 안전 관리 플랫폼을 통한 산업 재해 예방 체계 제공
- 네팔,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지진 및 해일로 인한 재난 사회복구 사업에 참여
- 네팔 현지 R&D 센터 건립과 드론 교육을 통한 개발도상국 일자리 창출
- 제주도 밭담 DB화 사업을 통한 문화유산 사회공헌 사업에 기여



4. 다양성과 포용성

모두를 위한 포용적인 디자인 전문 기업 디올연구소

디올연구소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다. 국내 최초로 노안이나 저시력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인 '디올폰트'를 만들어 판매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개발과 사용성평가, 인쇄출판대행, 홍보물제작(현수막, 배너 등)을 하고 있다. 상품의 패키지나 계약서에 있는 약관, 식품설명은 심한 경우 3~5포인트 미만의 크기로 제작되는데, 기존의 일반 폰트는 사용할 경우 글자 뭉침 현상 등이 나타나 노안과 저시력자들의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올연구소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같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5포인트 미만의 크기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디올폰트'를 만들었다.

1세대 멀티미디어 디자이너로서 전문성을 쌓아온 이종근 대표는 장애인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50+ 당사자로서 노안을 경험하기도 한 그는 사회적기업가육성과정을 통해 2017년 디올연구소를 설립했다. 디올연구소는 '디올폰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기업과 협업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을 내놓고, 키오스크 사용 등 사회의 불편을 포착하여 디자인으로 해결하는 방법론 개발에 힘쓰고 있다.

ESG 지표 중 '다양성과 포용성'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디올연구소 이종근 대표를 만나, 포용성과 관련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모두를 위한 사회적디자인
디올연구소
www.design4all.co.kr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디자인을 전문으로하는 기업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학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멀티미디어 분야에 종사했다.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50+ 당사자로서 노안의 심각성을 몸소 느끼기도 했다. 비장애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불편함을 직접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뛰어들게 됐다. 마침 폰트와 관련된 자문 제작 업무도 여러 차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시력자들을 위한 폰트 사업에 더 용이하게 뛰어들었던 것 같다. 포용성과 다양성은 하나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상 속의 불편을 예리하게 포착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작은 결핍이라도, 그것이 초래하는 사회적 불편은 당사자에게 매우 크기 때문이다. 일상 속의 불편함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실제 당사자들의 불편함을 적극적으로 발견하여 그것을 제품 · 서비스화 하기 위해 기업을 세우게 됐다.

포용성을 고려한 폰트를 만들기 위해 가장 주목하는 점은 무엇인가.

포용성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이하, 유니버설 폰트)는 사용자 리서치(디자인 리서치)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기존 폰트와는 다르다. 대부분의 폰트는 기획 - 제작 -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반면, 유니버설 폰트는 불편을 발굴하고 공감하기 위해 사용자 리서치라는 별도의 사전 단계를 만들어 진행한다. 사용자 리서치는 저시력자들의 불편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살펴보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이 폰트를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연구기관에 작업을 의뢰하여 노안이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오독이 생기는지 확인하기도 한다. 또 최종 샘플을 만들고 다른 일반폰트에는 없는 사용성 평가를 진행하여 차별화된 기능성을 검증하여 최종 완성하게 된다. 장애, 고령자 뿐 아니라 비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세대에게 통합적인 사용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 때 초기에 설정한 목표나 유니버설 폰트만의 기능적 차별성이 생기지 않으면 피드백을 통해 수정 절차를 반복한다.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피드백은 반복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때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디올 폰트도 7번의 사용성 평가를 거쳤으니, 일반 폰트보다 더 많은 정성과 재정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 디올연구소는?

· 서비스 영역:
1) 유니버설 디자인 R&D 사업
2) 시력약자(노안자, 저시력자, 색각이상자(색약, 색맹))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폰트 '디올폰트' 및 컬러유니버설디자인 개발 및 판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쇄, 출판 제작 사업
3)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재택근무 플랫폼 제공

· 매출: 약 2억 2백만 원, 2021년 기준
· 고용: 7명 , 2021년 기준
· 주요 고객사 및 투자, 성과: 삼성카드, 삼성생명, 빙그레, 춘천시청, LG소셜펠로우 9기

사용성 리서치와 평가를 통해 제품이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과정이 인상 깊다. 유니버설 디자인에서도 가장 경계하는 것이 아무래도 '워싱'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려는 없나.

2011년부터 국내 기업들이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를 만드는 시도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는 일반 서체를 만드는 것에 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일반 폰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리서치와 사용성 평가가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았을 때, 기능적인 완성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시장에 출시되어 마케팅적인 요소로만 사용되는 워싱이 발생한 사례가 두 번 정도 있었고, 그들은 모두 시장에서 사라졌다.

폰트와 같이 디자인적 요소를 담은 제품과 서비스는 기능성과 시장성을 접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적 문제 해결 기능을 확보한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서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트렌디함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다수가 이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과, 다양한 부류의 소수 이용자들도 불편함 없이 그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에 철학을 불어넣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칫하면 시장성이 기능성을 앞서게 되거나, 의도한 사용자 리서치와 평가가 면밀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 워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품 도입 전 사용자 리서치와 평가를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평가 위원회를 열고, 완성품이 문제 해결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용자들의 후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워싱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폰트라는 활용도가 높은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 여러 기업, 기관에서 협업 제안이 왔을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 협업하고 있는가.

디올 폰트는 개발 후에 삼성카드, 삼성생명, 빙그레 등 국내 70여 개의 기업에게 납품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를 연구하고 개발한 덕택에 특허도 등록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폰트를 적용한 상품 제작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단발성 프로젝트에서 멈추는 아쉬움이 있다. '서비스 구매'라는 일차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서비스 제공 기업과 구매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공통의 철학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협업 기관들이 우리 기업의 상품뿐 아니라 기업의 철학과 연구 방법론에 많은 관심을 쏟아줬으면 한다. 디올의 기술과 방법론이 저시력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면, 완성된 제품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제품 기획 과정부터 디올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방식이 더 지속가능한 협업 모델이 될 것이다. 디올 연구소도 유니버설 디자인 판매업체가 아닌 유니버설 디자인 R&D 전문 기업인 이유도 이와 같다. 과거 MS도 윈도우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개발을 위해 인류학, 철학, 행동심리학 등의 석학들을 연구에 참여시켜 탁월한 결과물을 냈듯이, 협업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 등 내재적 요소를 연결시키는 것에 집중한다면 더 많은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과 연구 방법론을 다루는 소규모의 R&D 업체로서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제품에 녹아 들게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접목될 수 밖에 없다. 일상의 여러 순간에 내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근 트렌드의 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필요한데, 특허나 지식재산권 문제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예를 들어 최근에 유니버설 디자인 키오스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관련된 R&D 작업을 모두 마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키오스크 안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추가시키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로 모듈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했는데,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적이 있었다. 국방부에서 벤처 기업들에게 일부 기술을 공유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에이블테크(Able-Tech) 기업은 가치 지향성, 시장성, 기술성을 같이 묶어내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전용실시권, 상용실시권 등의 특허를 사회적 문제 해결 용도의 기술로 쓰기 위해 기술권자와 임팩트 조직과의 연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포용성을 확장할 때도, 대기업이 가진 원천 기술을 토대로 한 기술 자문과 지원을 받아 공동 개발 형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집합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시장의 수요가 많지 않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R&D 기업으로서 경영과 연구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사회적 기업 지원금 평가는 고용 확대와 매출 증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경영에 치중하다 보면 연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그 안에서 창의 혁신과 사회서비스 등의 현황과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지표가 비슷했던 것이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소다. 사회적 기업을 개별화 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 방안과 상생 모델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유형화는 필요하다. 각자 정의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갖고 있는 성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수 사례를 선정해준다면 이 생태계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디올연구소 's 임팩트

"유니버설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포용성 확보 + 고령자 &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

- 저시력자를 위한 '디올폰트'를 통해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보급 활성화 및 상품 사용에 대한 포용성 제고
- 글자의 뭉침을 '잉크트랩'을 통해 해결하여 잉크, 토너, 종이 사용량 절감 등의 친환경 성과
- KCC안중근체 등 저명인사들의 서체 개발에 참여하여 사회적디자인 개발, 보급 실천
- 장애인 및 고령자를 위한 재택근무 플랫폼을 출시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제공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장 계획 있으면 공유부탁드린다.

유니버설 디자인 R&D 전문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사회의 불편을 포착하고 해결하는 일에 함께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는 사업을 확장하여 디올 연구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모듈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재택근무 플랫폼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여러 일을 경험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다. 현재 대학원을 다니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적합한 업종과 창직에 대해 고민하고 공부하고 있다. 앞으로 디자인뿐 아니라 보건복지 분야에서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5. 내부 데이터 관리

적정 기술로 내부 데이터 관리하는 IT사회적기업 라임프렌즈

라임프렌즈는 IT사회적기업으로 '기술 소외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미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고객의 80%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다.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는 디지털 담당자가 없어서 회사 내부의 데이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 라임프렌즈는 각 기업에 맞는 적정 기술을 통해 세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리빙랩(Living Lab)이다. 리빙랩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라임프렌즈가 개발한 와이팟과 루티가 대표적인 사례다. 와이팟은 이주민을 위한 동시 통역기이다. 기존의 동시 통역기는 기기 값이 비싸서 소규모 강연장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와이팟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앱을 통해 손쉽게 동시통역사의 통역을 들을 수 있다. 라임프렌즈는 이를 대학교 강의에 먼저 도입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루티는 이주민 관련 법안 번역본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이다. 번역가들이 법안을 네팔어와 방글라데시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서 웹에 올리면, 이주민은 앱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루티를 통해 이주민을 위한 생활 정보나 의료 정보도 번역해 제공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회사에 필요한 홈페이지 제작, 앱 제작 및 기획, 기술 지원 및 정부 지원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 번째는 스마트워크 시스템 도입 지원이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ESG 지표 중 '내부데이터 관리'에 관한 대표 사례로 선정된 라임프렌즈 정영찬 대표를 만나, 어떤 사회 서비스와 혁신을 실행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라임프렌즈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에 적정기술을 보급하려고 한다. 사회적기업은 회사마다 추구하는 미션과 방법이 각양각색이며, 각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깊지만, 이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지에 대해서는 어려워한다. 해당 기업들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적정 기술을 통해 애플리케이션, 웹서비스, 사용자 맞춤정보 제공과 서비스를 만들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20%는 소셜벤처와 영리기업에 프로그램 제작과 컨설팅을 실행한다. 이 기업들은 빅데이터, AI,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술들을 다루고 있고, 라임프렌즈는 이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하이테크 기술들이 보편적인 기술로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IT기업이 많은데, 라임프렌즈가 이 분야에서 갖는 강점이 무엇인가.

라임프렌즈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액셀레이팅 및 토탈 솔루션 제공 기업을 표방하고 있다. 각 기업의 사회 목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도 단가가 맞지 않더라도 의뢰를 거절하지 않고 단계별, 연차별 개발 목표를 제시하여 기업이 한 번에 많은 비용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는 기업에 맞는 적정 기술과 가격 정책을 이용할 수 있다.

IT 서비스는 단가가 높다.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는 인적 자원도 부족하지만, 비싼 IT 서비스 이용료를 감당하기 어렵다. 각자 사업의 특성이 다 달라서 기존의 서비스가 아닌 맞춤형 기술을 활용해야 하므로 비용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라임프렌즈가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임프렌즈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전문 컨설팅 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 경기, 충남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사례가 궁금하다.

라임프렌즈는 시각 장애인 전용 스마트폰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보급, 수출을 하는 충남사회적기업에게 서비스 개발과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후에 정부 R&D 지원사업에도 컨소시엄 형태로 함께 지원했다. 스마트폰은 폴더폰처럼 물리적인 키보드가 없다. 기존 모델들이 단종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은 휴대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아가기 어려운 사회가 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마트폰에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주는 TTS(Text to Speech)라는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가상 키보드를 조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했다.

'에이블톡'이라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하고 있다. 에이블톡은 장애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제공 커뮤니티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기술지원 및 지적재산권 등록 컨설팅을 진행했다. 추가적으로 활동 지원사와 장애인 가족들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확장을 함께 기획하고 있다.

‘먼지구’라는 애플리케이션도 개발 중이다. 이 앱은 초미세먼지에 관한 공공데이터에 기반하여 사용자들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실행할 오늘의 할 일 목록을 제시하고, 이에 참여하면 앱 상의 캐릭터를 키울 수 있는 등 기술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사용자의 관심을 촉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뿐만 아니라, 와이팟이나 루티 등 이주민 통번역 지원 앱, 소상공인 지원사업 앱도 개발했다.

IT기술은 정보 보안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CTO가 직접 데이터 보안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의 상황과 니즈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고 있다. 고객의 개인정보 공개를 최소화하고 보안 유지에 힘쓰기 위해 노력한다.

내부적으로는 구글 클라우드와 노션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에 민감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각 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부서별 권한을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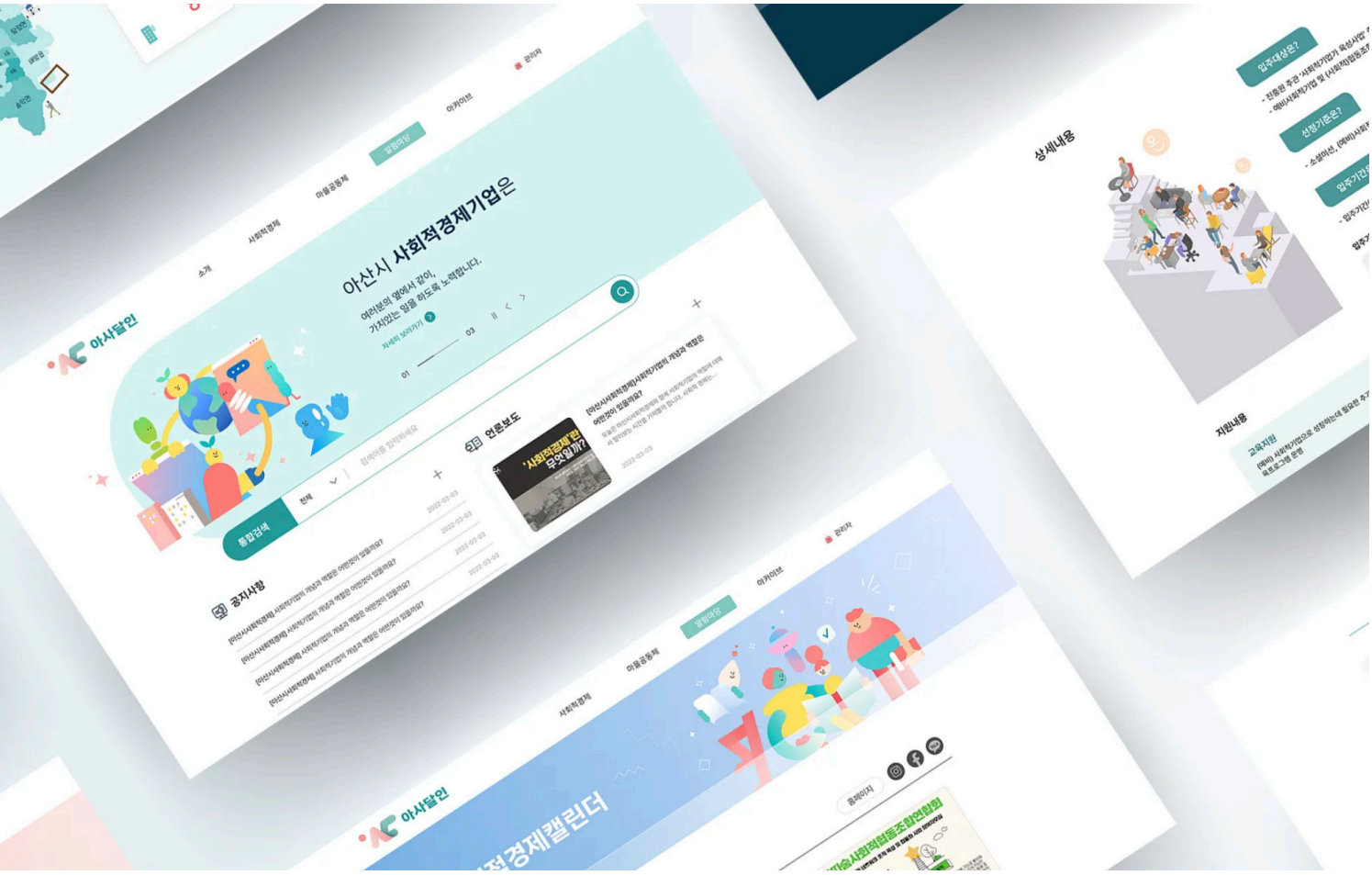
IT기업도 데이터센터 에너지효율 개선과 같은 환경 노력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라임프렌즈도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IT기업은 컴퓨터 리소스를 줄이는게 핵심이다. 개발단가의 상승은 클라우드나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라임프렌즈는 개발서버와 실서버를 분리해서 사용한다. 서버를 분리하면 리소스가 줄어서 에너지 사용량도 함께 준다. 기존에는 두 서버를 통합해서 사용했는데, 서버를 분리하면서 클라우드의 한 달 사용 비용이 절반으로 감소했다. 사용 비용이 줄었다는 것은 리소스와 에너지 사용량도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일반 IT기업은 서버를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서버를 분리하면, 개발자가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늘어나므로 개발자 편의성을 위해 클라우드에 테스트 서버를 신설하고 있다. 라임프렌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낮은 단가로 사회적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발자 편의성을 조금 내려놓았다. 개발은 설계, 구현, 검증, 적용 단계로 매뉴얼화하여 검증 단계까지는 로컬 클라우드의 개발서버를 이용하고, 이를 적용 단계에서 실서버에 옮긴다.

IT개발자가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알고있다.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을 하고 있나.

개발이나 디자인이 과중한 업무로 3D 업종으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라임프렌즈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직원이 일로부터 소외당하지 않고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직원 의견을 회사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고 있다. '월간 라임'은 매월 첫째 주에 모든 직원이 참여하여 회사에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을 함께 논의하는 행사다. 직원들이 회사의 경영과 복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 발굴에 대한의견을 내면 회사는 이에 답하고 운영에 반영한다. 스마트 워크 시스템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워크플레이스'라는 내부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취업 규칙, 운영 정보, 개선 사항 등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연근로제도 운영한다. 기본 근무 시간은 8시간으로 9시부터 시작된다. 직원들은 10시나 11시에 나와서 8시간을 근무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근무 인정 시간을 8시 30분으로 당겨달라는 요청을 반영하여 보다 더 유연한 근무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됐다. 이 산업(SI)은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받아 수행하기에 수직적 구조가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라임프렌즈는 다양한 사회문제에 접근하여 기술적인 해결책을 내야하므로 직원의 창의성이 중요하다.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창의성을 촉진하는 업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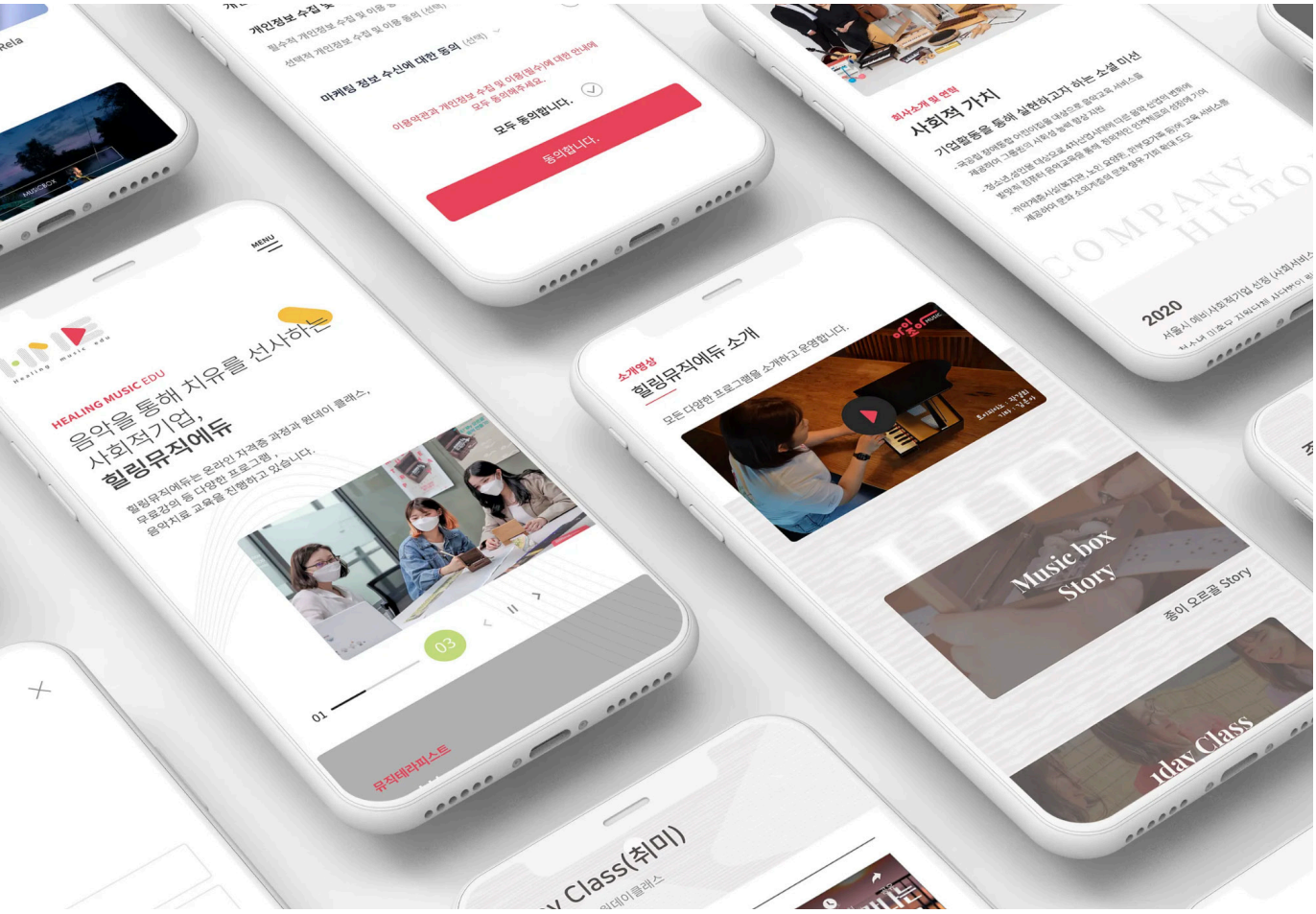
사회부문에서 취약계층 고용과 지원도 하고 있는가.

지속적으로 30% 이상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IT산업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한다는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이 쉽지 않다. 개발자 직군은 진입장벽이 높고, 개발자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높은 임금으로 취직이 잘 된다. 이들이 취약계층으로 분류될 일은 거의 없다. 라임프렌즈는 차상위 계층, 청년 장기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용하고 있다. 사회문제를 IT로 해결하려는 중 ·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커톤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발굴된 팀들이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도전을 지원한다. 일례로, 노년층이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차표 키오스크 구매를 연습할 수 있는 훈련용 맞춤형 앱을 만드는 기술을 지원했다.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확장되려면, 어떤 점을 해결해야 하나.

중소 IT기업에서는 경험 많은 개발자와 디자인 전문가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다. 또한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라임프렌즈는 높은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소속감 높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회사의 비전과 발전 전망을 내부 브랜드로 만들고, 지배구조의 혁신을 실행하고 있다. 월간 라임 등 다양한 인터널(internal, 내부) 브랜딩을 하고 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는 개발자들이 라임프렌즈에 관심을 갖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좋은 일터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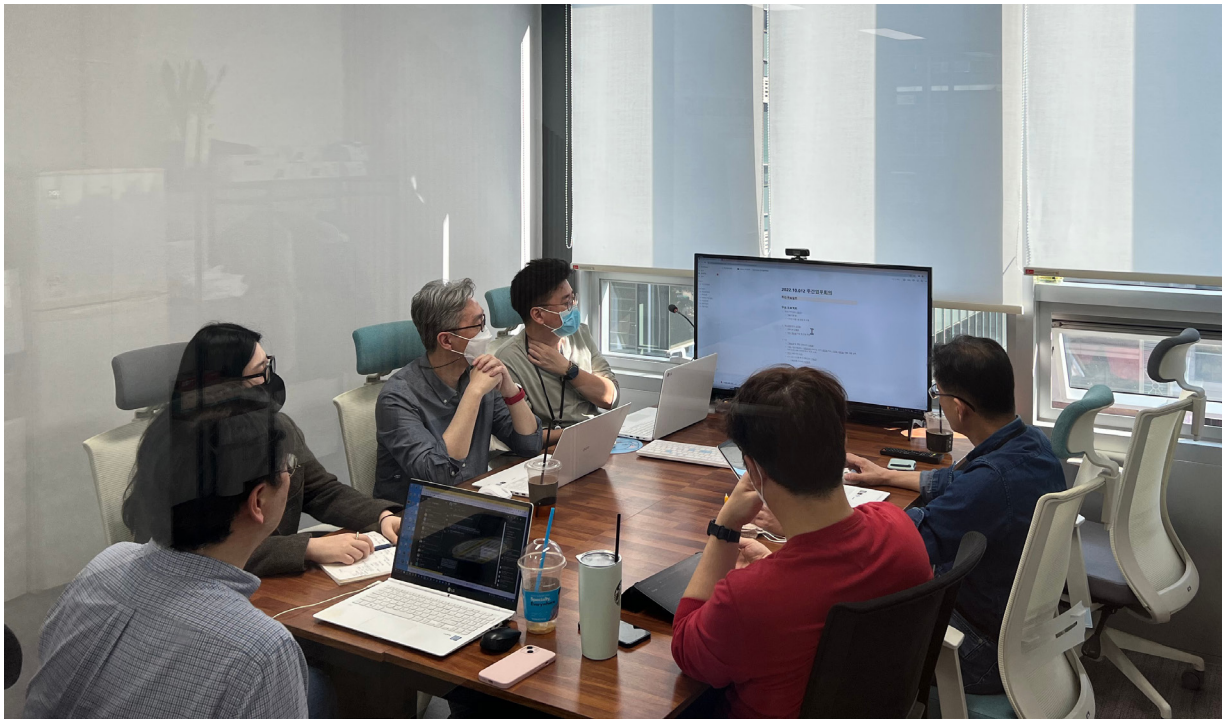
'공정개발'(Fair Development)도 필요하다. 사회적기업과 비영리 단체는 업체를 선정할 때 현실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결과물을 내놓은 효율성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는 편이다.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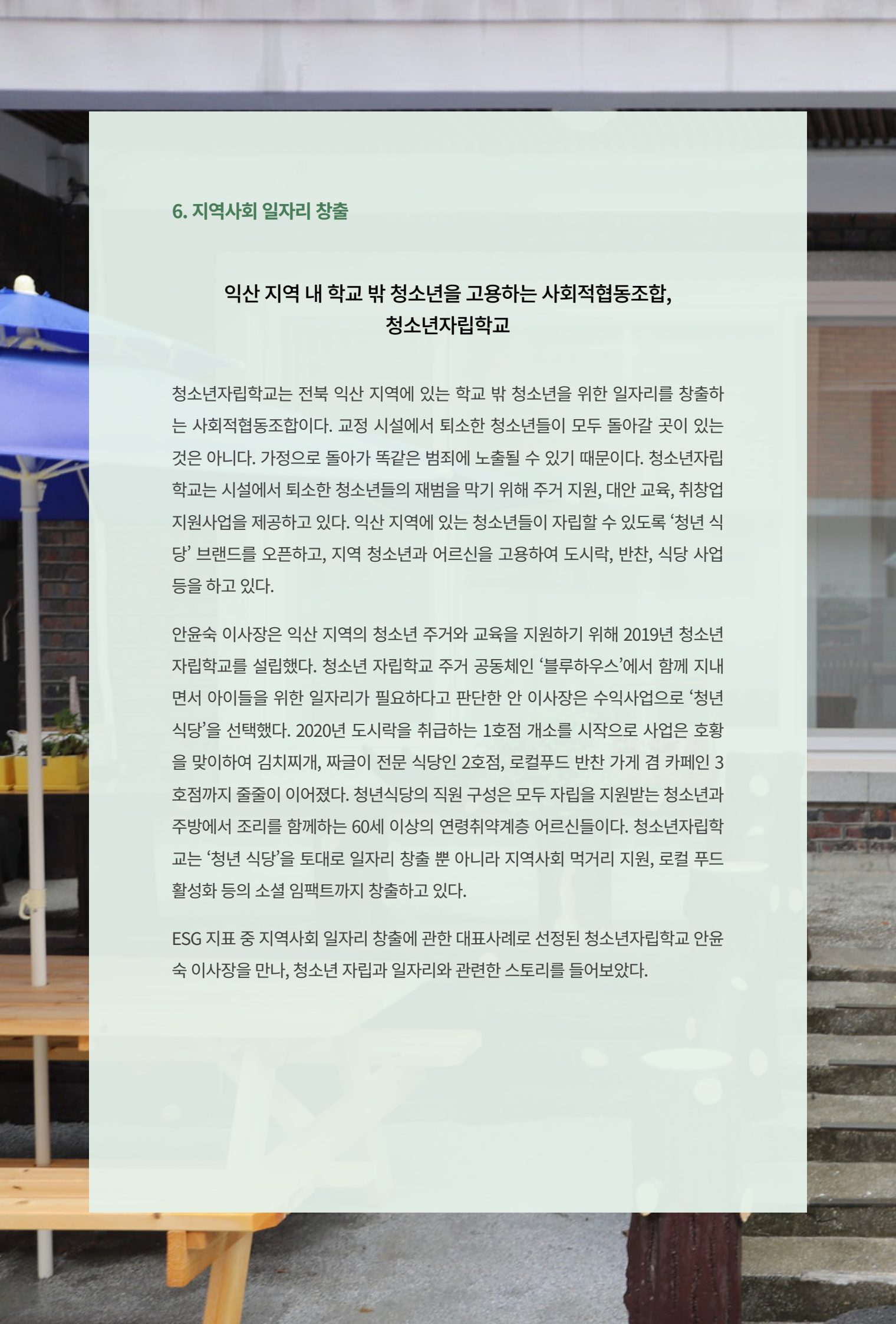


과 비영리 단체는 각자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도가 있지만, 기획안을 받아보면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이 장착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 이에 적합한 IT 서비스를구현하려면 기획 단계에서 사회문제에 대한 스터디와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 업종은 더 저렴하고 빠르게 해달라는 고객의 요구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개발자들이 많다. 라임프렌즈는 사회 문제에대한 IT솔루션을 구현하기 위해 더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발주가 아닌 협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다.

사회적기업 라임프렌즈는?

- 제품 및 서비스 영역: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 단체 IT기술 컨설팅 및 지원
- 매출: 8억 8000만 원(21년 기준), 매출액 성장률 364% (20년 2억 4000만 원)
- 고용: 22명, 전년대비 147% 증가(15명)
- 주요 성과:
  1) 2022년도 SVI지표 '탁월', 충남임팩트지원사업 우수기업 선정
  2) 장애인 관련 사회문제 해결(장애가족 커뮤니티 플랫폼 '에이블톡' 개발, 상표권 등록)
  3) 시각장애인 대상 IT서비스 제공 및 R&D 개발(충남사회적기업과 IT 애플리케이션 개발)
  4) 사회적 경제조직 IT 컨설팅 및 솔루션 구축(110여건)
  5)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컨설팅 및 사업 진행 (12건)
  6) R&D투자 및 전문인력 도입(데이터 바우처 공급기업 지정, AI바우처 공급기업 지정)





6.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익산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청소년자립학교는 전북 익산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교정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모두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정으로 돌아가 똑같은 범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자립학교는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주거 지원, 대안 교육, 취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익산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청년 식당' 브랜드를 오픈하고, 지역 청소년과 어르신을 고용하여 도시락, 반찬, 식당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안윤숙 이사장은 익산 지역의 청소년 주거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청소년 자립학교를 설립했다. 청소년 자립학교 주거 공동체인 '블루하우스'에서 함께 지내면서 아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안 이사장은 수익사업으로 '청년 식당'을 선택했다. 2020년 도시락을 취급하는 1호점 개소를 시작으로 사업은 호황을 맞이하여 김치찌개, 짜글이 전문 식당인 2호점, 로컬푸드 반찬 가게 겸 카페인 3호점까지 줄줄이 이어졌다. 청년식당의 직원 구성은 모두 자립을 지원받는 청소년과 주방에서 조리를 함께하는 60세 이상의 연령취약계층 어르신들이다. 청소년자립학교는 '청년 식당'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지역사회 먹거리 지원, 로컬 푸드 활성화 등의 소셜 임팩트까지 창출하고 있다.

ESG 지표 중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청소년자립학교 안윤숙 이사장을 만나, 청소년 자립과 일자리와 관련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청소년 교정 시설을 주제로 박사 논문을 작성했다. 청소년 교정 시설의 변화가 청소년 범죄 재범을 막는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청소년 교정 시설은 계속 좋아지는데, 청소년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었다. 시설을 퇴소하고 난 후 돌아갈 곳이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자립 모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대학과 청소년 교정시설, 시민단체가 협력해 콜로키엄을 만들어 비행청소년의 사회정착 지원 모델 연구를 시작했다. 일본, 미국, 호주 등 해외 사회적 경제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자립 모델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실현해줄 주체가 없었다. 남들이 하지 않는다면 직접 하자는 마음으로 원광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와 양주 아동보호치료시설 나사로청소년의집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과 꿈' 사업에 선정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를 설립했다. 청소년자립학교는 청소년들이 숨 쉴 수 있는 틈새를 마련하는 중간지원센터로, 청소년의 자립 플랫폼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식당'이라는 브랜드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호점은 도시락을 전문으로 하는 케이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고 2호점은 원광대 대학가에서 김치찌개, 짜글이 등을 팔고 있다. 또 최근에는 익산 모현동 로컬푸드 직매장에 반찬 가게와 카페를 열어서 운영하고 있다. 3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15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고, 그 중에 절반은 청소년으로 두고 있다. 또 주방이나 조리는 익산 지역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연령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직고용이 아닌 다른 기업들에도 취업을 연계해주기도 한다. 아름다운 환경, 상상마루 등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과 자활센터에 일자리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도 청소년들의 고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와의 연관성에 주목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한국연구재단의 '먹거리 지속가능성 연구단'이라는 연구 사업에 10년간 참여했다. 이때 청소년 먹거리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청소년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잘 먹이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정시설 청소년들은 60% 이상이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의 첫걸음은 식사를 잘 챙기는 것이라고 판단했기에 수익 사업도 식당으로 결정했다. 또 식당은 지역 공동체를 하나로 모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 청소년 자립 학교에 관심이 없어도, 밥을 먹으러 오면서 관심을 보인 이들도 있었다.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재료는 모두 지역 농민들의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로컬 푸드, 친환경 먹거리 등의 관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는?

· 서비스 영역:
  1) 학교 밖 청소년 취창업 지원 및 대안 교육
  2) 예비 사회적 기업 '청년 식당'을 통한 지역 결식우려아동 도시락 지원
· 매출: 약 4억 원, 2021년 기준
· 고용: 15명, 2021년 기준
· 주요 파트너사 및 성과: 사회공헌 네트워크행복얼라이언스, 사회적가치연구원, SK E&S, 익산 Like 포럼, 2021 전라북도 협동조합 대상 수상

청년 식당을 통한 먹거리 사업이 일자리 창출 외에 더 큰 임팩트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먹거리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식당 1호점은 도시락 케이터링을 하는 동시에 민간 기업의 후원을 받아 지역 아동, 청소년, 취약계층에 무료로 도시락을 배포하고 있다. 청년식당 2호점의 경우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SK 텔링크, 미래에셋생명 등의 후원을 받아 익산 지역의 결식우려아동 50명에게 6개월 간 도시락을 지원했다. 또 익산시와 Like 익산포럼과 협력하여 지역 8~19세 아동청소년에게 무료 도시락을 전달하는 '0819 청년 도시락' 사업을 진행한 적도 있다. 이외에도 월드비전과 함께한 익산 지역 중고등학교 도시락 교육복지 사업, SK E&S 중소기업 협력기금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의 지원을 받아 익산시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결식 아동을 발굴하고 반찬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하여 지역사회에 결식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성과를 창출하는 가운데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수급이 가장 어렵다. 청소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청소년 교육과 사업체 경영을 함께 맡아줄 사회복지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인력이 쉬는 날 없이 일하고 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법인 사무국이 필요한데, 아직 인력이 제대로 모이지 않아 사무국이 안정되지 못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관심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필요하다.

청소년 자립 학교와 청년 식당의 사회적 임팩트가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한가.

지역 사회의 관심과 독려가 필요하다. '청년 식당'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상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그 모델에는 지역 농민 등 로컬 푸드와 연계, 연령취약계층 고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자립 모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관심을 두고 밥도 더 먹으러 와주고 새로운 사업에도 참여해줬으면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업은 기업의 후원을 받아 1년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는 프로젝트성에 머물러 있었다. 아무리 좋은 모델이라도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없으면 그 사업은 지속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일자리를 꾸준히 창출하기 위해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장 계획이 있다면 공유부탁드린다.

청소년 자립 학교를 운영하면서 청년 식당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 지역 내 결식우려아동 식사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다. 모든 사업을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블루하우스를 청소년자립생활관으로 만들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고 직접 해결하는 리빙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3년 치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익산 지역에 있는 고립가구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고립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40명의 지역 주민 발굴단을 두고, 따로 공간을 두어 공유 부엌, 마을 살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 중이다. 마을 주방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있는 누구나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 먹을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참여하여 세상밖으로 나와 세금을 받는 사람에서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청소년자립학교's 임팩트

"학교 밖 청소년의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 지역 내 결식우려아동에게 사회서비스 제공"

- '청년 식당' 수익사업을 통해 케이터링, 바리스타 직무 등 학교 밖 청소년 40명의 일자리 및 주거 지원
- 연령취약계층을 조리원으로 고용하고, 지역 식자재 수급과 로컬 푸드 홍보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
- 익산 행복 두끼 프로젝트, 0819 청년도시락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익산 지역 사각지대 결식우려아동에게 식사 지원

7.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제공

지역 데이터 기반 로컬푸드 사업, 농부장터

농부장터는 2013년 설립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현재 대구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1차 농장 생산물을 취급하고 있다. 상품은 간마늘, 고추가루, 과일즙과 같은 지역 농가가공품도 포함한다. 농부장터는 로컬푸드를 매개로 지역사회 내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분야는 ▲로컬푸드 공급 ▲농업의 지속성 강화 ▲공공기관 협업사업 ▲지역공동체와의 연대 활성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과 지원 ▲먹거리 사각지대의 해소가 있다.

직매장 판매현황을 보면, 매출액의 77.3%가 지역 농산물에서 나온다. 매출액의 80~85%는 생산자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소비자 모니터단도 운영한다. 소비자가 직접 생산과 입고를 모니터링 한다. 모니터단은 생산 농가에 직접 방문하는데, 여러 혁신 사례를 보고 알리는 사례도 늘고 있다.

농부장터는 직매장을 방문하여 계산할 때 제품을 찍는 포스기와 공공 배달앱인 대구로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직매장은 재활용 제품을 사고파는 라라장터, 발달장애인 직업 교육 및 채용 등 지역 사회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ESG 지표 중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농부장터 김기수 대표를 만나, 지역사회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농부장터 협동조합

로컬푸드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왜 중요한가.

로컬푸드 사업은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품을 판매하여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고,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먹거리를 믿을 수 있는 유통과정을 거쳐 구매하는 구조다. 로컬푸드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로컬푸드 사업은 대부분 적자이며, 로컬푸드 직매장 수는 농협이 가장 많고 지자체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구조다. 이 사업이 지속가능하려면, 충분한 수의 이용 조합원이 로컬푸드를 소비해야 한다. 협동조합은 생산자 조합원의 수익을 보장해야 하므로 적자가 발생한다. 최소한 적자 부분과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소비가 뒷받침돼야 한다.

협동조합과 로컬푸드 자체가 ESG다.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 공헌이 의무이고 평가 받는 항목이다. 로컬 푸드는 농촌에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식자재의 운송거리인 푸드 마일리지를 줄여서 환경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있다.

로컬푸드 사업은 농협이나 지자체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접근하기 어려운가.

로컬푸드 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해서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15% 정도로 낮다. 농부장터는 국내에 많지 않은 민간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카드 수수료를 빼고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므로 실질적인 수수료는 12% 정도이다.

농협과 지자체도 적자 구조를 타개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은 임대료를 직접 내고 운영해야 해서 우수 직매장 인증을 받은 곳들도 대부분 적자 구조로 운영한다. 농부장터도 적자 운영 구조에서 최근 3~4년전부터 이용 조합원 확대를 통해 경상수지를 맞췄다.

농부장터는 어떤 구조로 운영되나.

로컬푸드와 협동조합의 특성을 함께 살려야 한다. 로컬푸드는 수익을 창출하여 사업이 지속가능해야 한다. 그러려면, 조합원이 많을수록 좋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으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게 어려워져서 협동조합의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해칠 수 있다. 이 경계선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다.

농부장터는 직원, 생산자, 소비자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자는 법정 조합원과 이용 조합원(예비조합원)으로 나뉜다. 법정조합원은 출자금을 내고 법적 권리와 조합원 의결권을 갖고 있고 이용 조합원은 그렇지 않다. 이용 조합원은 농부장터의 핵심 고객층으로 올해 3050명이 있다. 이용 조합원은 직매장 이용 포인트 지급, 로컬푸드 식당 할인, 제철 농산물 공동 구매 등 농부장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우선권을 제공 받는다.

생산자 조직은 생산자 조합원과 회원농가(예비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생산자 조직은 로컬 푸드 직매장에 상품을 출하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6개월의 교육을 거쳐야 한다. 조합원 형태는 민주적으로 생산자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자 조합원은 법적 권리가 있고 회원농가는 없다. 생산자 조합원과 회원 농가는 180곳이다. 생산자 조합원은 고령, 여성, 소농이 64.5%이다. 산자 교육은 정기 생산자 교육과 신규 생산자 교육이 있다. 소비자 교육은 로컬푸드 및 협동조합 기본 교육, 워크숍, 농가 체험 교육이 있다.

농부장터는 로컬푸드 사업의 적자구조를 어떻게 깼나.

농부장터는 온 ·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용조합원을 조직해서 공동 구매와 예약 판매를 실행하고 있다. 예비회원들은 3만원 정도를 예치하고 물품을 구매한다. 이 사업이 10년 정도 진행됐고, 충성도 높은 고객을 많이 확보했다. 농산품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업로드 되면 예약 판매가 진행된다. 능이버섯을 한번 온라인에 올렸는데, 상품을 싣고 매장으로 오는 중에 예약 구매가 다 완료된 사례도 있었다.

농부장터는 '대구로'라는 대구의 공공배달앱에 '로컬푸드'탭을 만들어서, 이용조합원을 포함한 소비자 3500명이 어플을 통해 지역 농가의 생산품을 구입하게 하고 있다. 대구경북 로컬푸드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다 소비하지 못하는 농산품을 공급이 부족한 타 지역으로 보내는 등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 식품 산업은 네트워크가 중요한 듯한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로컬푸드는 농산물의 소비나 유통 전체량에 비하면 직매장에서 다룰 수 있는 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로컬푸드 사업화가 어려운 이유는 큰 식품기업과 달리 영세한 소농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다. 사업화는 이들을 잘 조직화하여 상품을 제공해야 가능하다.

농부장터는 데이터 관리를 통해 사업 전략을 개선할 계획이다. 데이터 관리 전용 프로그램 개발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농가는 생산량과 관련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고, 생산자 정보는 현재 연합회 차원에서 1200명 분이 모였다. 소비자 데이터는 농산품 직판장에서 나온다. 조합원이 매장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 포스기에 바코드를 찍는다. 이 정보는 품목별, 시간대별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며 농부장터에서만 1년에 10만 건, 연합회에서는 80만 건의 데이터가 쌓인다.

로컬푸드 외에 다른 지역사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있나.

라라상점이나 발달장애인 작품 전시회와 같은 행사는 농부장터 직매장 2층에서 열고 있다. 하루 매장 방문객은 400~500명 정도이다. 한달에는 1만 2000명 정도로 주민 접촉이 많은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지역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

농부장터가 운영하는 라라상점은 물품의 재사용과 기부 부문에서 임팩트를 내고 있다. 라라상점은 물품을 기부 받아서 판매하며, 모든 수익은 취약계층에 기부한다. 라라상점은 상시 개방되어 있으나, 한 달에 한 번은 '클리닝 데이'라는 이름으로 상점을 크게 연다. 조합원이 3000명이므로 이용율이 높다. 농부장터와 연계된 '연계 마을'을 만들어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농촌은 작은 노력으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의사 네 명이 연계마을에 일주일에 한번 2~3시간 정도만 방문해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다. 농부장터는 연계마을 형성과 솔루션 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조직화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연계 마을에 방문하여 농산물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도농 공동체를 만드는게 목표다.

교류체험활동도 제공하고 있다. 이 활동은 농촌을 이해하자는 취지가 있다. 도시 소비자들이 지역에 방문해서 장을 담그는 프로젝트를 10년간 진행했다. 소비자는 1년 내내 왕래하며 장을 담그고 계절별 채소를 먹거나 김장철에 김치와 수육을 먹는 등 다양한 이벤트도 경험할 수 있었다. 텃밭은 이용조합원들 참여한다. 텃밭은 500평 정도 규모이고 40가구가 가꾸기에 참여하고 있다. 다문화가정도 농사 짓기와 김장행사에 참여한다. 어린이집 공동 육아팀,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주민과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고용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

발달장애인 고용을 사업화하여 고용에 성공했다. 지금도 오전에 발달장애인 두 명이 오전에 매장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집중력이 좋아서 포장과 진열에 있어서 강점이 있다. 다문화센터와도 사업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의 취직을 실행해보려고 했는데 문화와 정서가 달라서 아직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농부장터는 발달 장애인 부모님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원예협동조합과 5년 넘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은 텃밭 일과 원예를 해보고, 농가에 방문하여 간단한 수확과 매장에서 포장하는 업무를 체험하고 있다. 이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사업화했다. 인턴십은 2년씩 직능별로 진행하는데,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교육 받는 지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가 있는 직원들을 받고, 앞서 언급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직원 조합원은 45.8%가 취약계층이다. 전체 직원 조합원은 24명이고, 고령 7명, 저소득층 3명, 장애인 1명이다.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측면은 무엇인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다보니, 포장지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이 상당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개별포장은 1년에 80만 개로 2000원짜리 상추도 비닐포장하다보니, 1년 매출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농부장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종이포장과 곡물 디스펜서를 들여와서 사용하고 있다.

농부장터 조합원들은 자원순환동아리를 만들었다. 동아리는 공식사업화하여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모니터링 한다. 농민이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로웨이스트도 실천하고 있다. 용기를 직접 가져와서 음식을 담는 '용기 없는 알맹이 코너', 아

이스팩 재활용품 수거 사업, 제로웨이스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부장터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인지도는 46%에서 78%까지 올랐고 관련된 생산자 매출도 13배 증가했다

농부장터의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려면 어떤 게 담보돼야 하나.

이 업종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낮고 업무 강도가 낮지 않아서 오랜 기간 근무하는게 쉽지 않다. 농부장터는 다른 마트에 비해 근속연수가 긴 편이다. 농부장터는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저녁 9시에 문을 정확히 닫는다. 관행적인 연장 근무가 없다. 직원회의와 노조 설립도 권장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로만도 운영할 수 없다. 조합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이 조합원 전체로 확장되려면 로컬푸드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조합원 모두에게 이익과 효능감을 줄 수 있는 선순환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이를 훈련하고 있고, 조합원들이 늘어가면서 지역의 사회적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농부장터는?

· 제품 및 서비스 영역:

1) 로컬푸드 공급(직매장, 식당, 카페 운영)
2) 농업의 지속성 강화(도농교류, 로컬푸드 교육, 인센티브를 통한 농민의 수익 보장)
3) 공공기관 협업(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구내식당 운영, 한국가스공사 구내식당 식재료 공급)
4) 지역공동체와 연대(협동조합, 사회적경제, 로컬푸드 조직 연대)
5) 교육(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과정 운영, 소비자체험 및 교육 지원)
6)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먹거리 돌봄 사업, 지역아동센터 및 노숙인 외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 매출: 총자본금 3억 9000만 원, 당기순이익 1000만 원, 매출액 43억 원

· 조합원: 법정조합원 201명, 이용조합원 3000명, 회원농가 64곳, 사업 이용자 28만 명

· 주요 성과:

1) 직매장 농산물 매출 중 지역 농산물 비율 77.3%
2) 생산자 조합원 중 고령 및 여성 소농 비율 64.5%
3) 매출의 80~85% 생산자 소득 보장
4) 지역농가, 농가당 연 평균 1300만 원 소득 발생
5) 취약계층 고용 45.8%

8.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

시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로 수익 나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시 지자체와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유휴부지를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수익을 나누는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다. 대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기존 재생에너지 발전소 사업에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탄소중립, RE100 등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직접 그 인프라 조성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참여형 발전소를 만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안산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환경운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이창수 상임이사는 2012년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은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을 통한 에너지 자립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이 지난 현재,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41개의 시민참여형 발전소를 건설하고 50억이 넘는 시민 출자금을 기록하고 있다. 또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구성에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 발전소 설치 및 계약 등의 자문 업무도 맡고 있다. ESG 지표 중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된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창수 상임이사를 만나,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관련한 스토리를 들어보았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운동연합의 창립 멤버로, 1998년부터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다. 오랫동안 안산을 기점으로 환경운동을 해오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기후변화 대응의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었다.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안산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이사장과 경영위원장을 한 경험을 살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셜 미션을 이루기 위해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주식회사가 아닌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간단하다. 다수의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인프라 조성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기업이 RE100을 선언하듯이, 도시의 시민들도 RE100을 하고 싶다고 하면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빌려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협동조합을 시작했다. 또 안산시햇빛발전협동조합은 매년 5%의 배당을 조합원에게 나눠준다. 조합원 당 최대 출자금액이 1억원인 것을 감안했을 때, 일반 은행 예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율을 자랑한다. 시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소셜 미션이다.

안산시 외에도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도 연계하고 있는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를 만들어서 지역마다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 개의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 있는데, 시군구마다 1개 이상씩 에너지 협동조합을 두어 300개 이상의 조합을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번 발전소를 지으면, 100kW 당 연간 2500만원의 매출이 30년 동안 창출된다. 어떤 조합은 1년 안에 1000kW규모의 발전소를 지어 바로 흑자를 낸 경우도 있어 지속가능한 모델로 주목 받고 있다.

공공기관의 협조처럼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이라는 성과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는가.

10년 이상 활동해보니, 성장 규모를 높이는데 있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먼저 공공부지를 잘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조직보다는 대기업을 더 신뢰하다 보니, 대규모 발전소 부지 입찰 시 입찰 채점 기준이 대기업에 유리한 항목들로 되어 있어서 큰 규모의 사업을 입찰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를 취급하는 협동조합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이익을 시민들이 나누는 것이 그린 뉴딜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사업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이를 위해 입찰 시 일정 비율은 협동조합들에 할당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무원 조직은 기후 위기 대응에 관한 교육과 비전 공유도 잘 안 되어 있다 보니 기상천외한 이유로 우리의 요청을 거절한 경우들이 많다. 시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가격 제도와 금융의 불안정성도 문제다. 현재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 차원에서 가격을 정해서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또 시민 발전소처럼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는 대출이 용이하지 않다. 은행들은 수익성이 확보되는 1000억 원 이상의 PF 프로젝트에만 투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소형 태양광을 위한 보험도 없었다. 다행히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가 신협중앙회와 협력해서 담보 없이도 70%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소형 발전소를 위한 보험도 만들었다. 이와 같은 상품이 활성화돼서 금융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를 뒷받침해줘야 한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 조합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도록 필리핀, 미얀마, 몽골 등에 발전소를 지어줬다. 특히 몽골의 경우 초원과 사막 지대로 햇빛과 바람이 매우 잘 들어 태양광 발전에 최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 만약 많은 발전소들이 설치되서 몽골이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성한 전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면, 새로운 산업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고 유목을 줄여서 사막화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굿네이버스와 협력하여 캄보디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재생에너지 홍보 사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안산시를 넘어 전세계에,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는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삼고 있다.

지속가능한 인프라 조성은 그것을 건설하는 것만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제고가 중요한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협동조합은 다수의 소유주를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다. 먼저 모든 조합원에게 5%의 배당을 나누어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과 경제적 이익 실현을 모두 확보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활동을 열심히 하면 활동 포인트를 주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기후정의비상행동이나 환경운동연합 행사, RE100 캠페인 등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줘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으로 연간 7500만 원 상당의 공익 사업을 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LED 등을 무상으로 교체해주고,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을 하는 등 에너지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해 조합원들에게 나눈 배당액이 1억 8000만 원인데, 공익 사업예산이 7500만 원이니 많은 공익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 서비스 영역:
1) 시민 참여형 발전소 설치 및 유지 관리업
2) 재생에너지 전기 중개 및 판매업
· 매출: 약 66억 원, 2021년 기준
· 고용: 19명, 2021년 기준
· 주요 고객사 및 투자, 성과: 안산시, 한국에너지공단(태양광보급지원사업 참여기업), 시민출자금 50억 원 돌파, 시민참여형 발전소 41개 이상 설치, 2022 베스트 협동조합 어워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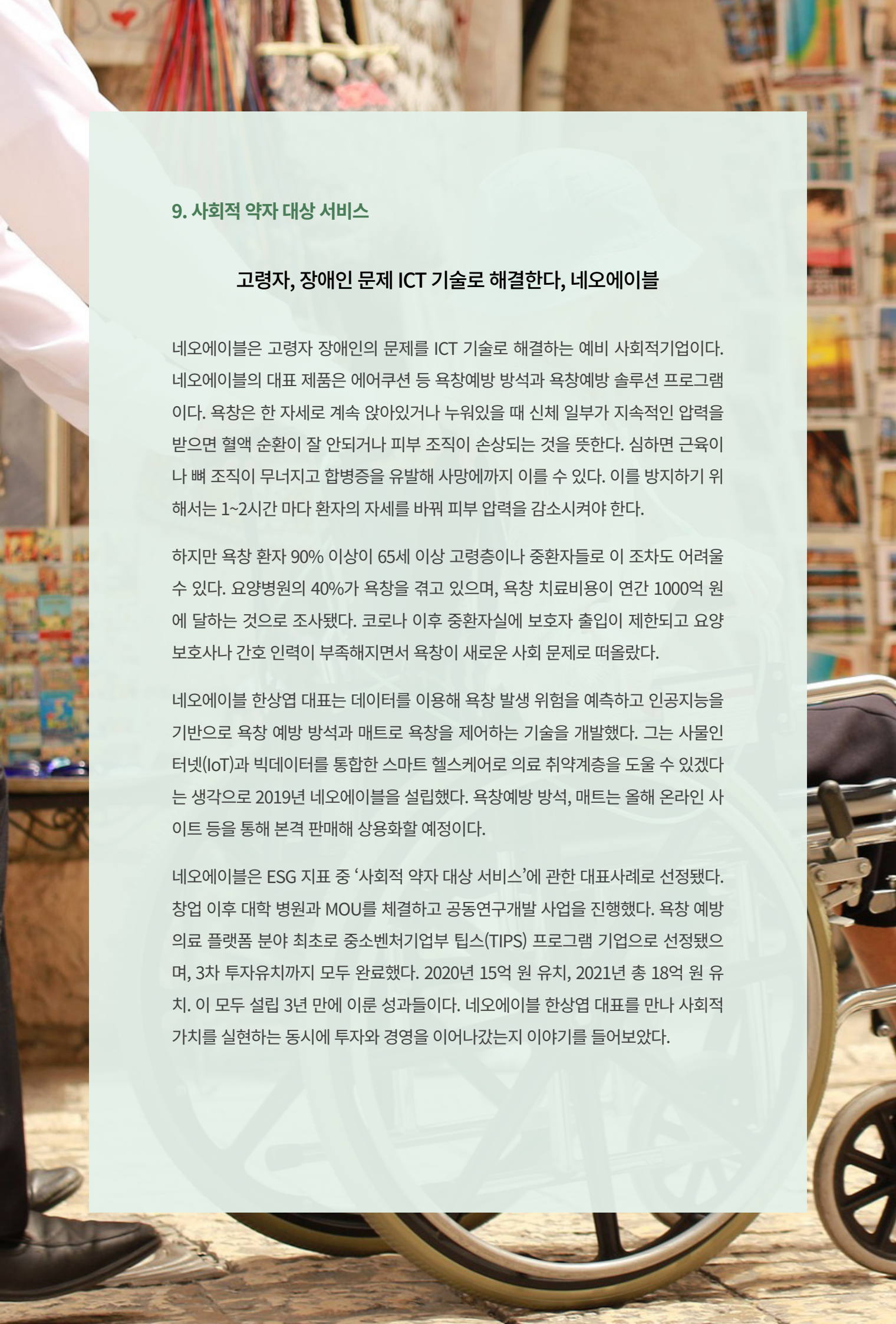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성장 계획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린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발전소의 규모를 계속 키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안산시는 4350kW를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 프로젝트를 통해 더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조합 당 1만kW의 발전소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조만 있다면 3년 안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다. 그러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지금은 안산시를 시작으로 사회적 신뢰도가 많이 쌓여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협조가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s 임팩트

"시민참여형 발전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및 기후변화 대응 + 지역 사회 소득 창출 기회 제공"

- 시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 설립 운영 지원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몽골, 캄보디아 등에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여 모든 지역에 에너지 자립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
-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통해 5%의 배당을 나누어 지역 사회 소득 창출 및 재생에너지 참여 기회 제공
-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참여, 환경재단 교육 참여 등에 따라 활동포인트를 제공하여 시민사회에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서비스 제공
- 수익의 상당부분을 공익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 내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소상공인에게 LED 조명 교체 사업 실시
- 태양광 발전소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자체 인력 개발 및 직무 교육 진행, 추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



9.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

고령자, 장애인 문제 ICT 기술로 해결한다, 네오에이블

네오에이블은 고령자 장애인의 문제를 ICT 기술로 해결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네오에이블의 대표 제품은 에어쿠션 등 욕창예방 방석과 욕창예방 솔루션 프로그램이다. 욕창은 한 자세로 계속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 신체 일부가 지속적인 압력을 받으면 혈액 순환이 잘 안되거나 피부 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뜻한다. 심하면 근육이나 뼈 조직이 무너지고 합병증을 유발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2시간 마다 환자의 자세를 바꿔 피부 압력을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욕창 환자 90%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중환자들로 이 조차도 어려울 수 있다. 요양병원의 40%가 욕창을 겪고 있으며, 욕창 치료비용이 연간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 이후 중환자실에 보호자 출입이 제한되고 요양보호사나 간호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욕창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네오에이블 한상엽 대표는 데이터를 이용해 욕창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욕창 예방 방석과 매트로 욕창을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그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를 통합한 스마트 헬스케어로 의료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2019년 네오에이블을 설립했다. 욕창예방 방석, 매트는 올해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본격 판매해 상용화할 예정이다.

네오에이블은 ESG 지표 중 '사회적 약자 대상 서비스'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창업 이후 대학 병원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욕창 예방 의료 플랫폼 분야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 기업으로 선정됐으며, 3차 투자유치까지 모두 완료했다. 2020년 15억 원 유치, 2021년 총 18억 원 유치. 이 모두 설립 3년 만에 이룬 성과들이다. 네오에이블 한상엽 대표를 만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동시에 투자와 경영을 이어나갔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neoable
Create new value

노인 문제를 기술로 해결한다는 취지로 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1995년부터 게임 개발자로 일해서 소프트웨어 경험이 많았다.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많이 공부했다.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자살 예방 플랫폼이었다.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빅데이터 문구로 필터링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빨리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없었고 공적 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 피보팅(pivoting) 했다. 그 이후에 기술 창업 수업에서 만난 창업파트너가 조기한 부대표다. 나는 소프트웨어, 조 부대표는 하드웨어쪽 경력이 많았다. 두 사람의 경력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어 같이 하자고 했다. 개인적으로 게임 투자 네트워크도 있었고 이전에 회사를 10년 넘게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 사전 준비를 많이 거쳤다.

다른 개발 제품은 있는가.

욕창 방석이나 매트 제품 개발은 이미 2020년에 완료됐다. 인허가 인증이 까다로워 인증 받는 데 2년 넘게 걸렸다. 욕창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 의료진들이랑 욕창 위험 알고리즘을 개발 중에 있다. 인공지능으로 돌려서 체압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결합해 압력 해소하라는 신호를 보내고 자동으로 기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장치다.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과 협력해 제품을 정밀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강원도병원과는 욕창 진단 및 예측을 위한 정밀의료 AI 프로그램의 높여 질환의 진단 및 치료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사회적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든 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다. 어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데 제품 디자인과 컨셉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드는 데 먼저 집중했다. 우리는 테크 제품으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제품 판매로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장기적으로 존속하려면 회사로서의 연속성과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사회적 약자 대상 제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던 강점은 무엇인가.

먼저 시장 공략이다. 고령 친화 제품은 100년 전에 이미 개발됐다. 시장이 작으니까 아무도 진입을 안 했던 것이다. 정부나 연구소로부터 자본 조달을 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확장성이다. 앞으로도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과 장애 아동을 위한 고관절 탈구 방지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스마트 지팡이도 압력 센서를 장착하면 보행 분석이 가능해서 데이터로 노인들이나 환자들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다. 전통적인 압력을 분산하는 기존 전통 방식에서 사회적 가치와 기술을 더해 공략한 것이다.

사회공헌 등 기타 지표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는게 있는가.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고용하지 않는다. 경력이 많거나 투자 네트워크 등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시니어들을 고용하기는 한다. 지금 20대부터 50대까지 직원들의 연령층이 다양하다. 개인적으로 사회공헌에 기여하는 활동은 하고 있다. 며칠 전에도 청년 창업 사관학교 출신 기업 대표들과 강원도에 있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연구는 서울에서 하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육성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주변 창업 대표자들을 도우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강의나 멘토링 같은 지식이나 상식을 공유한다.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부채가 있다. 우리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지원을 2년 정도 받았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도 경쟁하는데 내가 창업 경쟁까지 뛰어 들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나의 과거 투자, 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의 비전은 '사회 각계각층의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창출해 사회적 안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제품 개발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신체적 재활이 필요한 아동에서부터 시니어까지 IT 기반 케어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병원과 기관 협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인 케어 크림 등 제품을 확장해 글로벌 사업 진출도 계획 중에 있다.

네오에이블은?

- 제품영역: 카본 휠체어, 고령자 온열지팡이, 욕창예방 방석 · 매트 등 욕창 예방 솔루션
- 차별성: 인공지능 등 ICT 기반으로 환자들의 상태 진단, 욕창 질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진단
- 매출: 약 2억 원, 2021년 기준
- 직원: 18명
- 주요 고객사 및 투자, 성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협약, 2021 중기벤처부 'TIPS 선정' 정부 투자 유치, 더존홀딩스 Pre-A 유치

네오에이블 제품

1) 카본 휠체어

· 국내 최초로 프레임 전체에 특수 소재 적용

· 장시간 다양한 자세, 움직임에도 높낮이 조절 가능

2) 고령자 온열지팡이

· 지팡이 손잡이 부분에 열선 기능 탑재

· 야간 보행용 후레쉬 기능 (알루미늄, 초경량 카본소재로 제작)

3) 욕창예방 제품

· 정밀한 체압 분산을 위한 휠체어용 압력센싱 에어 쿠션 주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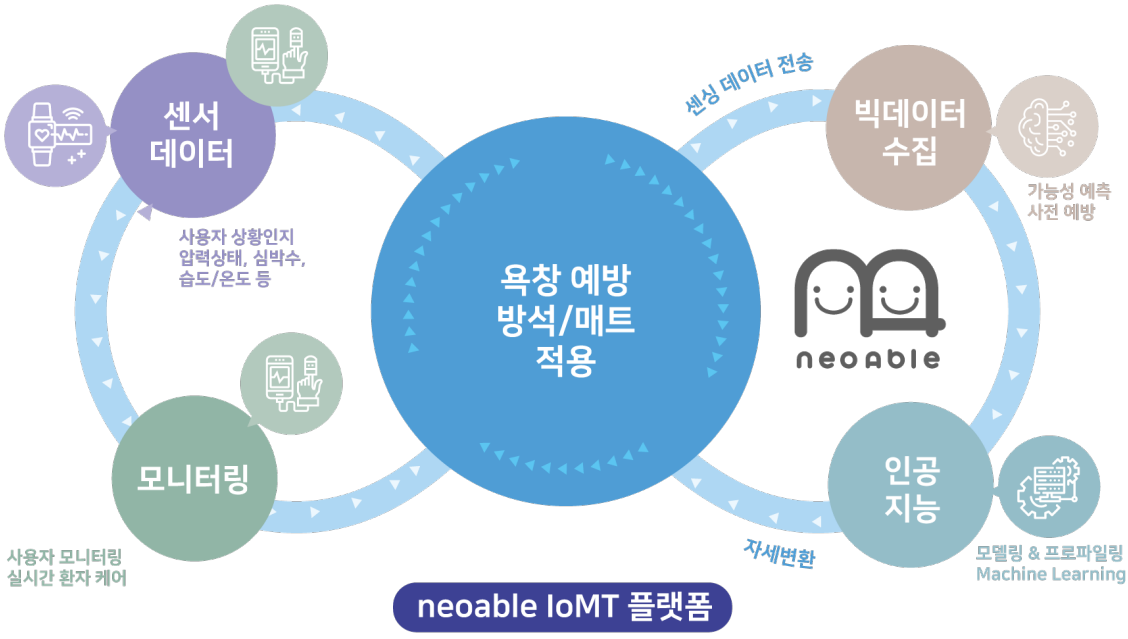
· 압력센싱을 통해 휠체어 사용자 체형에 맞추어 측정되는 압력에 따라 분산되는 에어폼 설계

4) 욕창예방 솔루션

· 욕창 예방 압력센싱 기술로 환자의 체압 모니터링 센서로 압력을 실시간 수집 관리하는 욕창 질환 모니터링 및 예방

· 스마트 시트와 IOT Platform을 통한 실시간 압력 상태 측정

·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매트리스 제어



닥터실버 욕창예방 전동방석

전동방석의자

10.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국내 유일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촉각놀이교구재 개발 · 보급, 담심포

국내 시각장애인은 약 3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점자를 해독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5%에 불과하다. 어렸을 때부터 점자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점자 학습 기회는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다. 점자 교과서가 있어도 장애인도서관, 맹아학교 등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 잘 보급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점자책의 보급률은 1.6%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코로나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맹학교와 도서관의 이용이 제약돼 시각장애인들의 교육 불평등은 심화됐다.

사회적기업 담심포 박귀선 대표는 점자 문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점자촉각놀이 교구재를 처음 만들었다. 주 대상은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이다.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점자는 손가락 끝에 있는 촉지로 익혀야 하는데, 10세를 넘어가면 촉지가 무뎌져 점자를 배우기가 쉽지 않다. 단순히 일반 교과서를 점자화로만 하면 10세 미만 아동들은 책으로만 점자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쉽게 흥미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

박귀선 대표는 시각장애아동들도 일반 아동처럼 다양한 교재로 학습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놀이교구재를 개발했다. 2005년 공방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으로 시작하면서 약 10여년 동안 국내 20여개 문맹학교에 점자교구재를 무상공급했다.

사회적기업 설립 이후에는 교구재를 키트 형태로 만들었다. 국내 기업과 기관 임직원들은 봉사활동으로 점자촉각놀이교구재 키트를 직접 만들고 담심포를 통해 맹학교에 보급하는 데 동참한다. 현재까지 교통안전놀이, 숫자놀이, 점자달력, 단어카드, 윷놀이 등 8가지 교구재 키트가 개발됐으며, KT, 코리아나, 공감 아이앤씨, 근로복지공단 등 매년 국내 130개 기업들이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복지관, 도서관, 학교 등 참여 기관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담심포는 ESG 지표 중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대표사례로 선정됐다. 한 개인이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떻게 국내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었을까. 담심포 박귀선 대표를 만나 사회공헌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교구재를 만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담심포는 처음에 봉사활동 모임으로 시작됐다. 공방을 운영했을 때, 시각장애인 아동을 위한 교구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촉감이 부드러운 천이나 원단으로 만든 교구재는 아동들이 쉽고 재밌게 학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사람들끼리 만들어서 맹아학교에 보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 계속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활동을 이어오다가 2019년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어떤 점에서 반응이 좋았는가.

예를 들어, 윷놀이는 일반 사람들은 말을 던지면 어떤 말이 나왔는지 그냥 볼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잘 모른다. 더욱이 비장애인과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더 소심해진다. 그래서 윷놀이 주사위를 개발했고, 주사위 안에 딸랑이를 넣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해서 주사위를 던져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우리가 만든 윷놀이로 아이들이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많이 밝아졌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어느 기업은 상하반기 봉사활동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프로그램이 1위였다고 한다.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완성도가 높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수요조사다. 교과서가 아니라 교구재를 만들게 된 것도 시각장애인, 부모님, 선생님들이 교과서보다는 교과서와 연계되고 매일 활용할 수 있는 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이다. 점자 학습만을 위한 교재보다는 놀이와 학습을 자연스럽게 연계해 친근하게 점자를 접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한 것이다.

두 번째는 제품 퀄리티다. 제품 개발부터 보급까지 늘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와 의견을 반영해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제품 퀄리티가 높다. 시제품을 학교에 보내 시각장애 아동, 부모님, 선생님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제품 수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 개발한다. 시각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 키트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피드백을 늘 받는다. 바느질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는 키트 안에 미리 바느질 구멍을 다 뚫어놨다. 실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제품 불량률이 5%도 안된다.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우리가 먼저 받아서 제품 검수와 수리를 다 마친 다음에 완성품만을 보낸다.

키트는 폐페트병으로 만든 원단으로 개발했고, 키트 실이랑 손뜨개질 실도 다 순면이다. 전에 만들었던 우리 제품들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장지 빼고 모두 친환경재료로 바꾸었다. 우리 제품이 서울산업진흥원(SBA) 우수 상품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친환경 코드가 없어서 직접적인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원단 제조 회사가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

보급한 이후에도 맹아학교에 필요한 수량을 늘 체크하기 때문에 수요자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항상 갖고 있다. 기업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키트의 확장성을 높여야 한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전히 교구재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영유아에서 13세까지 위한 교재를 만든다고는 했지만 고등학생이어도 우리 제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우리도 제품을 개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키트 자체는 무척 단순하지만 하나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장애아동 대상 자체가 시각장애에 국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다. 시각장애이면서 지적장애, 발달장애 등 장애가 복합적으로 엮여있는 경향이 있어서 대상자들에게 맞춤화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대신 보급률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맹아학교에 교구재를 보급하는 것 외에도 복지카드, 병원 진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개인들에게도 다 지원해준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했다. 이전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공예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했고 강사자격증 프로그램이 지금 12개 정도 된다. 코로나 이후 이 프로그램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다. 내년에 시각장애아동 부모님 중 경력단절인 여성과 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사회적기업 담심포는?

· 제품 및 서비스 영역:

1) 점자촉각 숫자놀이책, 교통안전 놀이, 윷놀이, 만년달력, 단어카드 등 점자촉각놀이 교구재 개발
2) 점자촉각 그림동화책 개발
3) 화상경험자를 위한 북콘서트 후원, 소아암 아동을 위한 히크만 카테터 주머니 보급 등 사회공헌 수혜자 대상 지원사업

· 매출: 약 3억 원, 2021년 기준

· 고용: 3명(시니어 2명, 전문인력), 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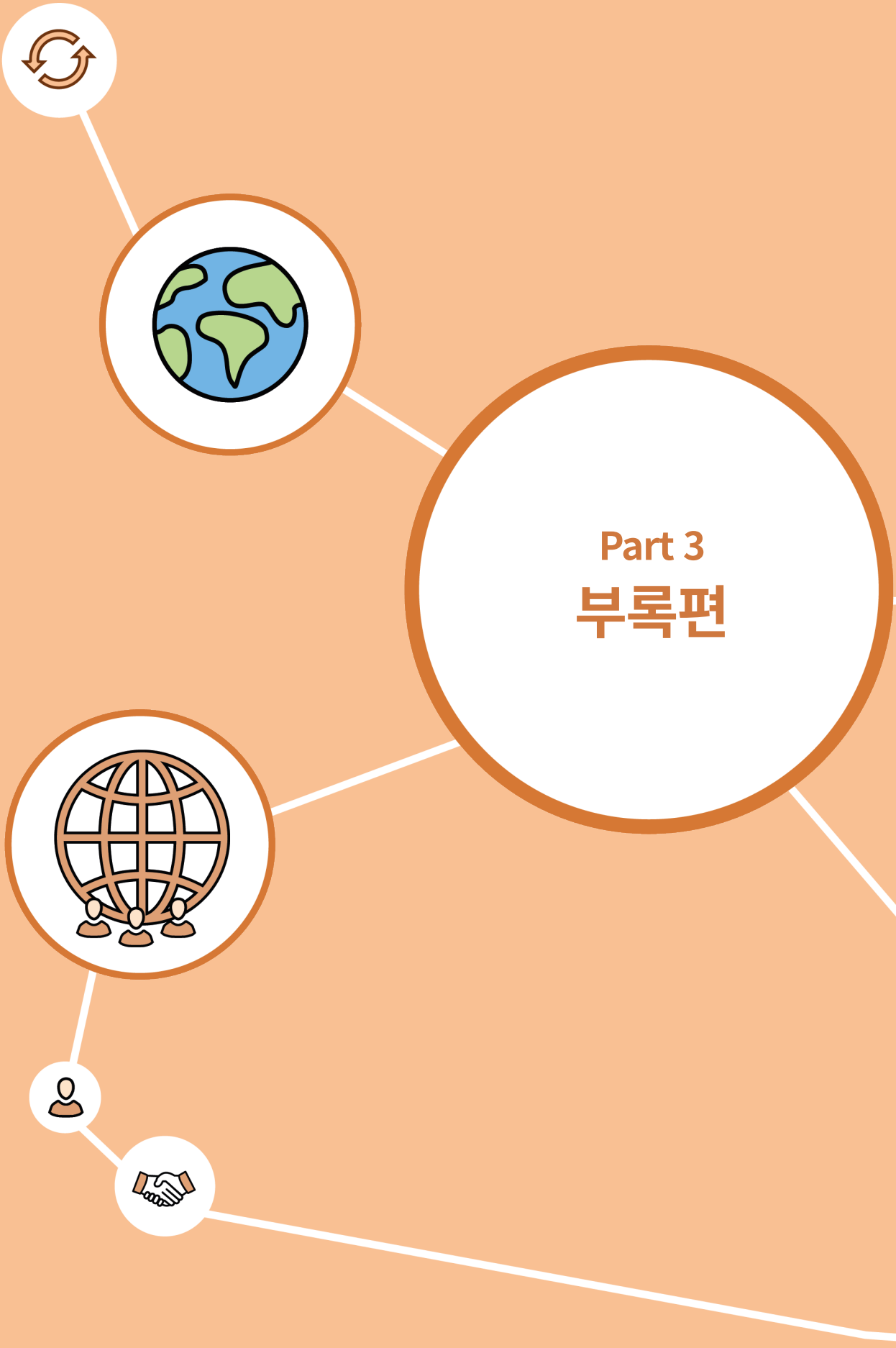
담심포 자체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가

양주시 사회적경제 협의회, 구로, 강남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하고있다. 백혈병 어린이 병동, 동방사회복지회, 서울대 병원 등과 함께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하기도 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북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긴급 상황이 있을 때는 현물 지원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제품 개발도 하지만 보급에 집중하기 때문에 국내에 기부 자원을 보급하고 기증할 곳을 늘 찾아서 기관 풀을 구축하고 있다. 이번에도 국립암센터에서 동화책, 애착인형 등 플리마켓을 열 예정이다. 우리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난민 아동을 위한 창작 동화책을 만들어 해외 난민들에 보급하기도 하고, 암 경험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 암 환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윤슬케어 사회적기업과도 협력했다.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손 뜨개실, 도안집 책 등을 만들었다. 난민 아동 동화책은 글 작가, 그림작가, 디자인, 인쇄 등 우리 수익의 일부를 재투자해 지원했다.

사회공헌 활동 외에도 사회적기업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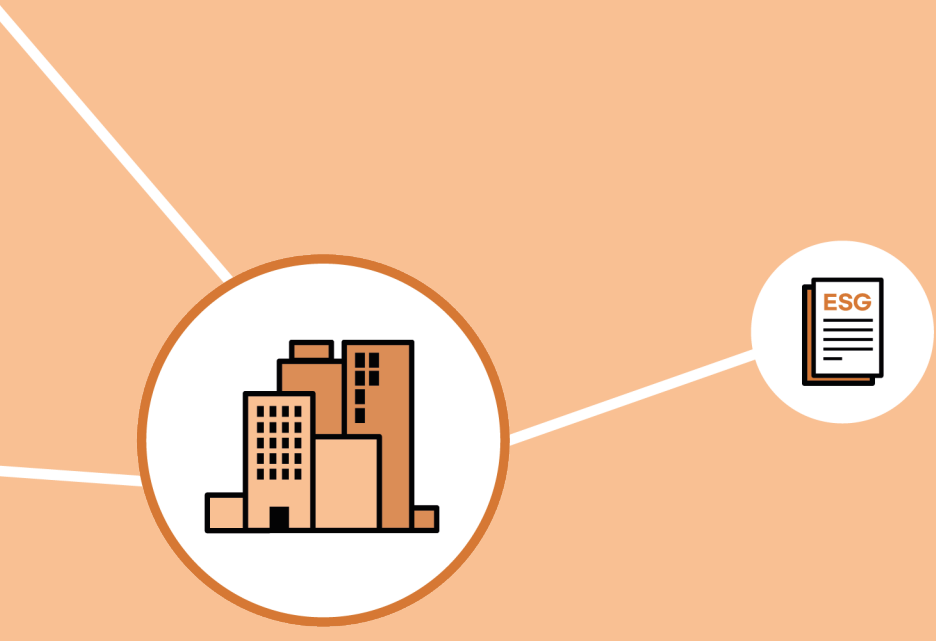
매년 사회적기업 경영공시에도 참여하지만 블로그를 통해 우리 사업과 활동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사회적기업은 유리상자 안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기업, 몇개 기업이 참여했고, 어떤 키트를 개발했는지, 보급 이후 어떤 결과와 성과가 있었는지 등등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해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기업 CSR 담당자들과 주로 일을 하다보니 데이터를 잘 기록해서 정확한 수치와 활동 내용,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내년에는 지속가능보고서를 만들 계획도 있다.



Part 3
부록편

1 해외 사회적경제의 ESG경영 모범사례 Case Study

1) 액티브 프로스펙츠(Active Prospects)
2) 리치52(Reach 52)
3) 헬스셋고(HealthSetGo)
4) 올리오(Olio)
5) 솔리파프(Solifap)
6) 베번 헬스케어(Bevan Healthcare)



1. 액티브 프로스펙츠(Active Prospects)

영국 '사회돌봄 COVID 영웅상' 수상한 돌봄 사회적기업

1. 개요

영국 사회적기업 액티브 프로스펙츠는 학습 장애, 신체 · 정신적 질환, 자폐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거 · 생활 및 사회 서비스 제공함. 환자들에게 맞춤화된 주택을 공동 생산해 공급하며,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지역사회 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함. 영국 100대 사회적기업(NatWest SE100) 리스트에 선정됐으며, 2021년 영국에서 '21번째로 일하기 좋은 자선 단체상'과 영국 남동부 돌봄 분야(Great British Care Awarwd)에서 최고 고용주상을 수상함. 액티브 프로스펙트의 보육 담당 이사 제이드 발란스는 '전국 학습 장애와 자폐증 어워드'에서 코로나 위기 동안 정부 대응에 앞서 지역사회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기여한 공로로 '사회 돌봄 COVID 영웅(Social Care COVID Hero)상'을 수여함

2. 기본정보

기업개요	• **현지주소:** Active Prospects, 1 Castlefield Court, Church Street, Reigate, Surrey, RH2 0AH • **홈페이지:** https://activeprospects.org.uk/ • **전화번호:** +44-1737-924084 • **이메일:** info@activeprospects.org.uk • **대표자:** 마리아 밀스(Maria Mills) • **설립연도:** 2015년 • **종업원 수:** 34명 • **매출액:** 약 2000만 파운드(309억 7940만 원)

설립배경	• 1989년 지역사회 내 학습 장애 서비스를 관리하는 주택 협회로 설립됨. 설립 이후 25년 동안, 영국 서레이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위해 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함. 2005년부터 주택 및 지원 서비스 제공을 했으며, 2015년 프로액티브 커뮤니티를 설립해 환자, 보호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으로 운영해오다가 2020년 공식 자선 단체로 등록됨
미션 · 비전	• 공동 생산 및 사회 돌봄 투자를 통해 학습 장애, 자폐증,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고 충족시킴으로써 삶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가져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움

3.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제공	• 스포츠, 운동 및 웰빙, 건강식품 만들기, 예술, 감각, 여행 등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
주거 서비스	• 환자들이 자폐증, 뇌전증 등 1차 진단을 받으면, 장기 요양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근교 환자가 거주하기 편한 6인용 맞춤형 숙박 시설이나 개인 전용 아파트를 건설 및 제공.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집을 맞춤설계함 • 매년 100명 이상의 개별 아파트 또는 공유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장기 병원에서 숙박 시설로 옮기고 난 2년 이후에도 90% 이상이 숙박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음 • 24시간 대응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며, 상호작용, 긍정적인 행동 지원 등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훈련 고용	• 특수 교육 필요 또는 장애(SEND, Special Educational Need or Disability)를 보유한 17세부터 24세까지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인생 기술 프로그램(The Aspiring Prospects Life Skills Programme)' 운영. 서레이 카운티 의회에서 발행하는 교육 건강관리계획(EHCP, Education Health & Care Plan)만 있으면 참여 가능 • 청년들은 유급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익힐 수 있음. 주 2회 작업장 실습, 주 3회 교육에 참여함. 교육 수료 후 4개 후보 직장에서 교육 훈련 참여 • 준비가 더 필요하거나 미취업된 경우, 추가 2년 동안 프로그램에 참여 가능. 취업 후, 서레이 카운티 의회의 돌봄 담당 직원 추천이 있다면 프로그램 신규 참여자들을 위한 멘토로 활동할 수 있음

(2) 주요성과

환경(E)	• 2019년 9월 자선 부티크 '리워크(RE:WORK)' 오픈함. 질 좋은 옷을 수리해 재사용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임. 지역사회 주민들을 고용하고, 훈련 또는 자원봉사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사회(S)	• 환자 대상 설문조사 시행 결과, 98%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한 주거 생활에 93% '행복하다'고 답함 • 학습 장애자 또는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17개 신규 주택 개발 • 문제 행동, 정신적 및 신체적 문제를 보였던 학생들 최근 1년 이내 70% 감소 • 환자들의 80%가 자립심 및 독립심 향상 • 사회 돌봄 서비스 통해 공공 재원 매년 2백만 파운드 이상 감축 • 지역사회 내 맞춤형 집을 제작하고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으로 환자들의 문제 행동 92% 감축 •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하고, 모든 고용 및 승진 과정은 공정, 투명하고 가시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짐 • 직원을 위한 외부 멘토링 프로그램, 연례 봉사 등 직원 역량 개발 및 기여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거버넌스(G)	• CQC(Care Quality Commission) 법률에 의해 감사 받음. CQC에 등록된 모든 서비스는 '양호' 혹은 특정 검사 영역에서 '우수'로 평가 • 경영진 이사의 20%는 BAME(Black, Asian, Minority, Ethnic), 60%는 여성임. 관리자와 직원의 30%는 BAME, 70%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등임 • 리더십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대표성 반영

참고링크: https://activeprospects.org.uk/

4. 국내 사회적경제 시사점

“영국 최고 고용주상 받은 비결… ‘커뮤니티케어’. 돌봄 서비스 차별성과 경쟁력 필요해”

액티브 프로스펙츠는 올해 영국 100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됐으며, 영국 남동부 돌봄 분야(Great British Care Award)에서 최고 고용주상(The Care Employer Award)을 수상했다. 코로나 대유행 속에서도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은 것이다. 나아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환자들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구축했다. 즉, 차별화된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비즈니스 모델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액티브 프로스펙츠를 포함한 100대 사회적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 대비 약 80% 증가했다. 2021년 액티브 프로스펙츠는 개인과 기관 기부로 4억 원 가량 받았으며, 돌봄지원과 자산서비스 수입으로 각각 822만 유로(114억 원), 282만 유로(39억 원)의 수입을 얻었다.

사회적기업이 재정적 안정을 갖추기 위해서는 서비스 차별성과 경쟁력이 필수임을 시사한다. 최근 국내 예비사회적기업 케어링은 30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받았다. 케어링은 요양보호등급을 받은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도입했다. 최근 방문요양 뿐 아니라 커뮤니티케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중장기적인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리치52(Reach 52)

60만명 앱으로 건강관리하는 헬스테크 사회적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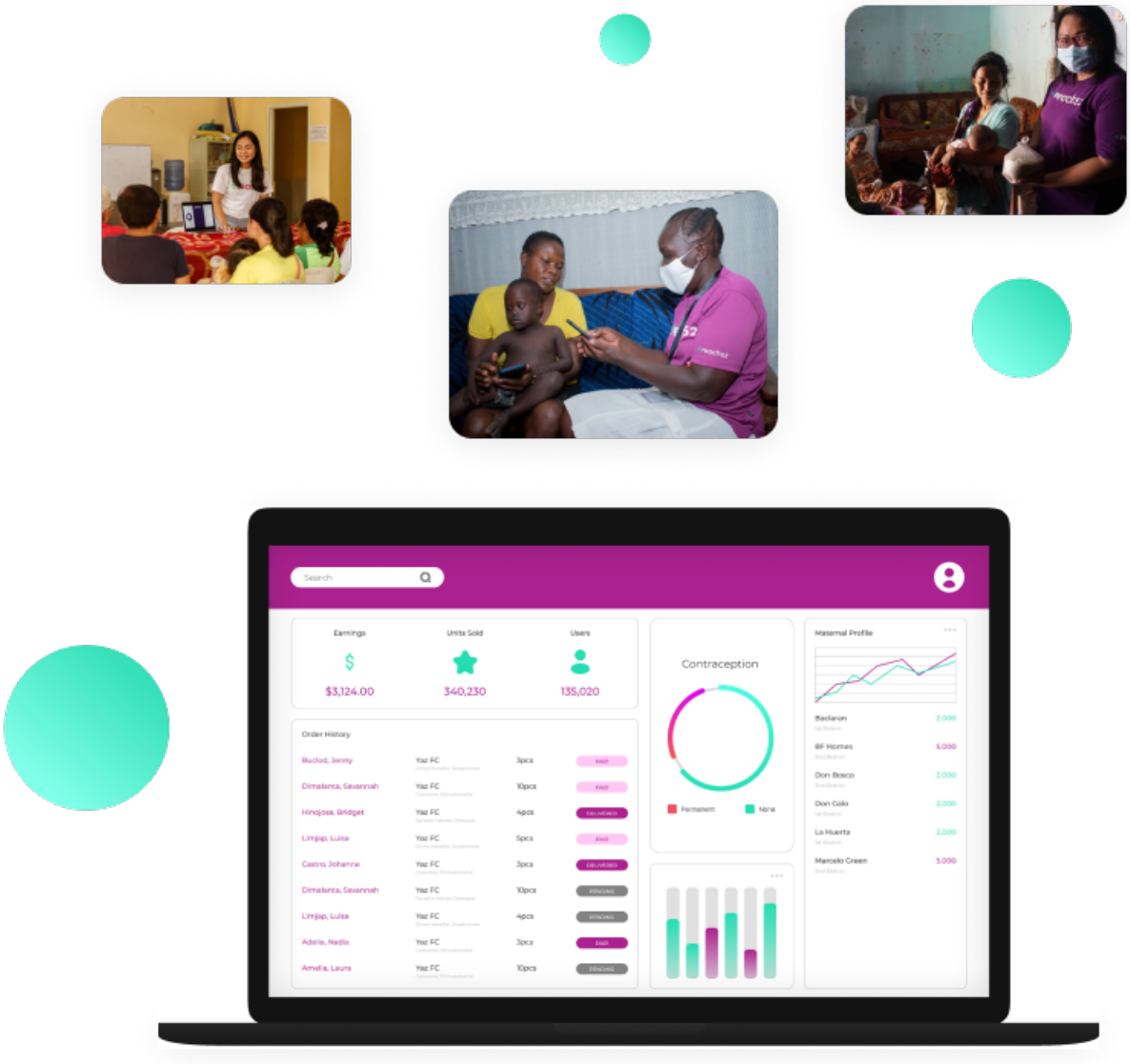
1. 개요

리치52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저개발국가의 지역사회에 건강 관리 장치 및 어플을 제공하는 헬스테크 사회적기업임. 현장학습 모듈, 디지털 학습 채널 등 여러 방식을 혼합해 건강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4개월 간 현지에서 진행함. 교육, 서비스 지원 이후에도 주민들이 앱으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건강 검진 장치와 장비 제공하고, 양질의 1차 의료 서비스를 꾸준히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함. 2021년 8월까지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자사 플랫폼으로 연결했으며, 플랫폼 운영을 위해 5만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들을 교육함. 제약회사, 소비자 건강, 보험, 소비재 분야 20개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와 협력해 의료 생태계를 혁신하고 있음

2. 기본정보

기업개요	• **현지주소:** 531A Upper Cross Street #04-95 Singapore, 051531 (싱가폴 본사) • **홈페이지:** https://reach52.com/ • **전화번호:** 없음 • **이메일:** edward@reach52.com • **대표자:** Edward Booty • **설립연도:** 2016년 • **종업원 수:** 81명 • **매출액:** 21만 9천 달러(3억 1435만 원)
설립배경	• 리치52 대표인 에드워드 부티(Edward Booty)는 런던 정경대학교를 졸업한 후, 인도에 6개월 간 여행을 한 적이 있음. 인도의 한 제약회사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영국 의료 서비스 관리 및 기술 컨설턴트로 일한 후,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 기술 사회적기업을 설립함. 의료 기술 플랫폼, 에이전트 네트워크 및 새로운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7개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

미션 · 비전	• 전 세계 52%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 데이터 플랫폼 구축해 저개발 주민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2030년까지 3억 명을 대상으로 재설계 의료 시스템을 공급하고자 함. 리치52의 의료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의료 올인원 플랫폼으로, 의료서비스가 제한된 곳이라도 쉽고 저렴한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며, 기업, 정부 및 사회 조직과 협력하여 확장 가능한 건강 캠페인을 운영함



참고링크: https://reach52.com/reach52-year-in-review-2021/

3.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의료 · 건강 관리 모바일 앱	• 의료 기관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의료 ·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앱 개발. 안정적인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도 기본 휴대폰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최적화됨 • 플랫폼 기반으로 수요-공급 연계를 통한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 제공해 2021 인클루시브 핀테크 스타트업에 편입됨 • 7개국에서 550건 이상의 의료 서비스 신청을 받아 고객 및 프로젝트 후원자의 요구를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의료진 교육, 배치 등 의료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의료 재단과 협력해 서비스 효율성을 높임
온오프라인 혁신 의료 시스템	• 감염되기 쉬운 질병, 산모&아이 건강을 예방 및 관리하고, 워크숍 · 코칭 · 체크리스트 · 동료 공유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건강 데이터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하면 체중계, 간염 신속검사키트, 혈당계, 청진기 등 각종 의료 장비와 도구 및 온라인 학습 지원도 제공함 • 모바일 장치가 없어도 155대의 전화기를 대여해 모든 사람들이 의료 학습 및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8만 44여 건의 문자 알람을 통해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 54만여 명의 주역주민들이 인터렉티브 페이스북 챗봇을 도입하거나 원격 지원을 상시 지원함. 이는 건강 및 질병 관련 인식을 증진시키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됨 • 필리핀, 캄보디아 등 뎅기열 발생률이 높은 곳에서는 화이자와 협력해 뎅기열 예방 키트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가구 주변에 있는 강가나 물가에 물고기 구피(guppies)를 9천 마리 이상 배치함. 구피는 뎅기열을 옮길 수 있는 모기 애벌레를 먹어 뎅기열을 근본적으로 방지함
당뇨병 및 고혈압 퇴치를 위한 통합 케어 모델	• 지역사회 내 의료 종사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저소득 환자들에게 코칭을 제공하는 통합 케어 솔루션임. 의료진들은 12주 동안 12개 지역사회 내 400여 명의 혈압 및 당뇨병 검사를 실시함. 의료 및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 검진 및 HbA1C 테스트를 거친 후, 2주에 한번 모니터링 및 코칭 세션을 가짐. 환자들이 독립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 정기점검을 함

(2) 주요 성과

사회(S)	• 2021년 초 플랫폼 등록자는 13만 명에서 96만 명 이상으로 증가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5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의료 검진을 받았으며, 5천 명 이상의 의료 종사자 교육을 시행함 • 연간 22만 4천여 명의 주민들이 의료 서비스 확대 캠페인에 참여. 주민들을 고용해 의료 키트 배포, 플랫폼 안내 등으로 일자리와 소득 기회 창출
거버넌스(G)	• 유니세프 이노베이션(UNICEF INNOVATION)과 파트너십을 맺어 새로운 전자 상거래 서비스를 시작함. 전 세계적으로 저렴한 건강 및 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함

4. 국내 사회적경제 시사점

“헬스IT 기술로 비즈니스 모델 확장성 구축”

전 세계적으로 의료 · 건강서비스 분야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리치52도 코로나 이후 헬스케어 기술로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성장 요인은 신속한 의료 대응 시스템 및 헬스IT 기술로 복제 · 확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 분야에 적합한 52개 훈련 커리큘럼을 개발했으며, 디지털 플랫폼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여러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의료 불평등이 심했던 개발도상국에서도 훈련, 데이터 수집 등 전 과정을 모듈화했다. IT 강점을 살려 지역사회 내 건강 및 인구 데이터를 모아 위급 상황 시 지역별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긴급 상황에도 사전 대응을 가능케 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시대 속에서 사회적기업이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 에너지, 환경 등의 분야에서 기술을 구현해 사회 혁신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3. 헬스셋고(HealthSetGo)

디지털 건강 성적표로 의료 접근성 향상 인도 사회적기업

1. 개요

헬스셋고는 인도 최대의 의료기관으로, 건강을 증진하는 학교들의 세계 최대 네트워크를 양성하고자 하는 미션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건강 프로그램, 건강 모니터링, 보건 교육 커리큘럼 등을 통해 77개 이상 도시에 있는 250개 학교에서 25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학교 및 정부가 아이들의 건강과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강 데이터를 제공해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청년들의 대화, 행동, 변화를 이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글로벌 쉐이퍼(Global Shaper)로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민상 '시스코 유스 리더십 어워드' 수상자 21명에 포함됨

2. 기본정보

기업개요	• **현지주소:** HealthSetGo, WeWork, Vi-John Tower 393, Phase III, Gurugram Haryana 122001 • **홈페이지:** https://www.healthsetgo.com/ • **전화번호:** +91-95555-53311 • **이메일:** hello@healthsetgo.co.in • **대표자:** Priya Prakash • **설립연도:** 2016년 • **종업원 수:** 11명 • **매출액:** 43만 7천 달러(6억 2726만 원)

설립배경	• 프라야 프라카쉬(Priya Prakash) 대표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까지 비만으로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받았고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음.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입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해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느끼고 난 후, 아동 · 청소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설립함
미션 · 비전	•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022년까지 100만 명, 2030년까지 1000만 명의 학생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3.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건강 서비스 제공	• 신체검사, 시력검사, 발음 평가 등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70개 항목을 평가함 •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으로 만 2세부터 만 17세까지의 어린이의 건강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건강 성적표'를 만들어 질병이나 기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함 • 학생 건강 상태를 측정해 부모들은 아이들의 건강 상태 결과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고받을 수 있음. 추후에도 아이들의 건강 변화를 추적 및 점검할 수 있음 • 학생들의 건강 데이터를 종합해 학교가 아이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함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	• 헬스셋고가 인증한 의사로부터 온오프라인 무료 기본 건강 상담을 받을 수 있음. 학생들에게 헬스셋고 개인 건강 카드를 제공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의료진들이 아이들의 정확한 건강 데이터를 확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공하며, 외래 환자 및 입원 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전역에 있는 병원 및 클리닉 제휴 및 의료서비스 할인 • 24시간 청구 · 처방전 발행 시스템을 통해 의료 서비스 효율성 향상
학교 보건 교육 · 인프라 구축 및 개선	• 학생들의 보건 및 건강 상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 · 개선할 수 있도록 기여 • 손 씻기, 식품 및 영양, 신체 건강 등 아이들 대상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운동 ·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신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중요성을 깨닫게 함

(2) 전략

건강 기준 구축	• WHO, 인도 소아과 학회 등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따른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 점검을 실시하며, 의료 서비스 평가를 매년 실시함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키트와 프로그램 제공	• 케어박스(Care Box)로 아이와 부모가 건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의료 위급 시 대응할 수 있는 의료진과 완전한 의료 장비를 구축해 엔드투엔드(End-to-end) 보건 인프라를 학교에 제공

(3) 주요 성과

사회(S)	•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약, 안경, 건강검진 · 상담 등을 무상으로 제공 • 식품 안전 및 영양 인식 증대를 위해 인도 최대 규모의 '영양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3000개 이상의 학교 아이들이 참여 • WHO에 등록된 헬스셋고 런(HealthSetGo Run) 프로그램에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참여 • 인도 타밀나두 주 3000명 이상의 청소년 소녀들에게 생리 위생 및 생리대 교육 실시 • 1만 1500명 학생 대상으로 심리상담 진행 • 500명 이상의 교사 훈련, 650명 이상의 의료진 훈련
거버넌스(G)	• 지방자치단체 법률담당 기업(Municipal Corporation), 식품안전협회, 세계 최대 학교 급식 제공업체 악샤야 파트라 재단(Akshaya Patra Foundation) 등과 협력해 학교 및 학생 상황에 맞춤화된 건강 서비스 및 프로그램 제공

4. 국내 사회적경제 시사점

“AI로 스스로 건강관리하고 온라인 진료 받는다”

코로나 이후 헬스케어 플랫폼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들은 AI 기반 의료 솔루션을 도입해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헬스셋고도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으로 만 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건강 정보를 진단할 수 있는 ‘디지털 건강 성적표’를 만들었다. 정확한 의료 정보를 통해 아동과 학부모들이 스스로 영양 개선 및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영양성분, 건강상태를 그래프로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맞춤 분석이나 온라인 진료, 처방전 발급도 가능하다. 향후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건강관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돌봄 · 의료서비스도 IT와 데이터를 통해 사전 예측관리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링크: https://www.healthsetgo.com/

4. 올리오(Olio)

남는 음식물을 앱으로, 600만 사용자가 이용… 지역사회 영양 돌보는 영국 사회적기업

1. 개요

영국의 사회적기업 올리오(Olio)는 지역 사회에 남는 음식물을 폐기하지 않고, 자체 어플리케이션에 올려 이웃들에게 나누어 지역 사회 영양 돌봄에 사용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음.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며, 약 60여 개의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음. 이외에도 테스코(Tesco), 프렛 망거(Pret A Manger) 등의 식품 기업과 협업하고 있으며, 추가 사업 모델로 확장하기 위해 수제 음식과 공예품을 지역별로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OLIO

2. 기본정보

기업개요	• **현지주소 :** United Kingdom, London, 167 Nelson Rd • **홈페이지 :** https://olioex.com/ • **전화번호 :** 없음 • **이메일 :** hello@olioex.com • **대표자 :** Tessa Clarke • **설립연도 :** 2015년 • **종업원 수 :** 141명 • **매출액 :** 2천 2백만 달러 (300억 원)
설립배경	• 2015년 설립자였던 테사 클라케(Tessa Clarke)가 이사하면서 남은 식재료를 버리지 않고 이웃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서 식료품 나눔 앱을 고안했음. 자체 조사를 통해 일반 가정이 700파운드 이상의 음식물을 매년 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명의 참여자들을 모아 지역 기반 식료품 나눔 앱을 만들고 사회적 기업을 설립함

미션 · 비전	• 남는 음식물을 폐기시키지 않고 자체 앱을 통해 나눔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을 발생시키지 않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 돌봄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표. 10년 안에 10억 명의 자원봉사자 및 참여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전국적 식료품 나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함

3.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식료품 나눔 사업	• OLIO 앱을 통해 음식을 올리고, 누구와 공유할지 정하면 바로 음식을 공유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슈퍼마켓, 지역 음식점, 기업 케이터링 업체와 협력하여 자체 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재배포함 • 호텔, 학교, 행사, 오피스 케이터링 등 다양한 공급처에서 버려지는 식료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모아 주 · 일별로 정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남는 음식을 수거하고 올리오 앱을 통해 신청한 지역 주민들에게 배송하게 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수제 식료품과 공예품을 지역별로 판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 식료품과 협업하여 식료품 나눔을 위한 오피스로 사용

(2) 주요 성과

환경(E)	• 5792만 여 개의 식료품를 폐기하지 않고 나눔으로 인해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2만 2000톤)을 감축함 • 음식물 폐기를 위해 소요되는 1억 9178만 2035 마일의 이동 거리를 절감하고, 86억 5300만 리터의 물을 절약함
사회(S)	• 3만 명의 자원봉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62개국에 600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 커뮤니티를 갖고 있음

4. 국내 사회적경제 시사점

"IT 기술 통해 사회문제 해결 범위 넓히고 전 세계 600만 명이 참여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2021년 폐기물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연간 음식물쓰레기는 9억 31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글로벌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10% 가량을 차지한다. 국내의 경우, 개인이나 일반 가정에서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음식 폐기물이 30%에 달한다.

올리오는 지역사회 내 음식물 폐기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을 나누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음식, 식재료 외에도 의류, 도서 등 다양한 물품 교환이 가능하다. 올리오앱은 전 세계 62개국 600만 명 이상의 사용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의 전 세계 확장성이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은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으로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앱에서 위치를 입력한 후 물건, 이동 범위 등을 설정하면 지역사회 내에서 물건과 음식, 식재료를 모두 무료로 공유 받을 수 있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물품을 간편한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며,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 · 환경적으로 미치는 임팩트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도 음식 정보를 확인하거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식단, 적절 발주량 등을 예측해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감축하는 푸드테크 사례가 종종 소개되고 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의 영역이 모바일, 디지털로 점점 확장됨에 따라 국내 사회적기업도 디지털 방식으로 대중들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참고링크 https://olioex.com/

5. 솔리파프(Solifap)

투자자 모아 주거 빈곤 위한 주택 건설하는 프랑스 사회적기업

1. 개요

솔리파프는 2014년 아베 피에르 재단과 AG2R 월드 재단이 설립한 연대 투자 회사임. 주거 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 제도를 구축했으며,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주거 프로젝트에 연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함. 프랑스 도시와 마을의 사회 주택을 건설하는 450개 기관을 지원함. 설립 이후 4천 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편안하고 지속가능한 주택을 제공함

Solifap
INVESTISSEMENTS SOLIDAIRES

2. 기본정보

기업개요	• **현지주소 :** 10 Bd de Bonne Nouvelle, 75010 Paris, France • **홈페이지 :** https://solifap.fr/ • **전화번호 :** 01-42-08-08-98 • **이메일 :** contact@solifap.fr • **대표자 :** Charles Le Gac de Lansalut • **설립연도 :** 2014 • **종업원 수 :** 25명 • **매출액 :** 500만 달러(58억 원)
설립배경	• 아베 피에르 재단이 연대 금융 투자조합으로 2014년에 설립함.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자 함. 600명의 주주들과 4950만 유로의 자본을 동원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적인 주택 솔루션을 만들었음
미션 · 비전	• 사회 내 주거 취약계층들이 적절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함

3.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사회적 통합 주택 건축 프로젝트	• 프랑스 전역 주거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함. 솔리파프 투자 시 투자금 100%를 사회주택 조성 프로젝트나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됨 • 2500만 유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에 투자함. 임대료는 m2당 7유로 이하이며, 저소득 무주택자들의 주거 지원 • 주택과 세입자를 지원하는 지역 협회를 구성하며, 지역 주민들의 복지뿐 아니라 고용도 지원 • 주택 가격의 인상으로 투자자들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당 가격은 512유로임. 2020년 기준 개인 투자 자금은 130만 유로, 556명의 개인 투자자가 있으며, 지난해 신규 투자자가 92명임. 기관 투자자들은 14곳으로 투자금액은 4480만 유로임

(2) 주요 성과

환경(E)	• 주택 개조 시 에너지 소비량의 65% 감축
사회(S)	• 600명의 주주로부터 3810만 유로를 조달하고 2480만 유로를 투자 • 229명의 개인 주주 등 다양한 투자자자를 확보해 179채의 주택 확보, 130개 프로젝트와 54개 지원 조직 지원 • 설립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60개 협회가 추진하는 15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3000명 이상에게 주거를 제공함
거버넌스(G)	• 프로젝트 수행하기 전 프로젝트 성과를 높이기 위해 부지 마련, 자금조달, 건축 설계 및 개발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전 단계를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자문위원회를 소집·운영 •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협회에 재정 지원

4. 국내 사회적경제 시사점

“공공을 넘어 민간 주도로 주거 문제 해결한다”

국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은 공공의 역할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 저소득층을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모델로 사회주택을 공급해왔다. 하지만 공급량 부족, 입주자 보호, 임대보증금 미반환 등의 문제로 서울시는 지난 10일 사회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기존 물량만 관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구조는 어떨까. 주거 문제에 관심있는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모인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프랑스 사회적기업 솔리파프는 550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 프랑스 전역 주거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고 있다. 2020년 기준 개인 투자자들이 모은 자금만 130만 유로이며, 지난 한 해 신규투자자들이 100여 명 모였다. 기관 투자 규모는 4480만 유로로 규모가 훨씬 크다. 이를 통해 솔리파프는 취약계층을 위해 179채의 주택을 확보했으며, 주거 지원 협회를 운영해 150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투자금이나 사업 수익금의 일부는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해 지속가능한 자금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이는 공공, 민간, 대중이 함께 협력한다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베번 헬스케어(Bevan Healthcare)

노숙자, 난민 주거취약계층 위한 진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

1. 개요

베번 헬스케어는 노숙자, 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1차 진료 서비스인 영국 의료보험(NHS) 일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 모든 수익금을 사업에 재투자하여 추가적인 1차 진료 센터를 설립했으며, 의료 돌봄 실천을 통해 2014년 여성 사회적 기업상에 선정됨

Bevan
Inclusive Health and Wellbeing

2. 기본정보

기업개요	• **현지주소 :** Bevan Healthcare CIC, Bevan House Primary Care Centre, 14, Piccadilly, Bradford BD1 3LS, United Kingdom • **홈페이지 :** https://bevanhealthcare.org/ • **전화번호 :** +44-1274-322400 • **이메일 :** b83657.bevanhouse@nhs.net • **대표자 :** Emma Perry • **설립연도 :** 2003년 • **종업원 수 :** 58명 • **매출액 :** 400만 유로(62억 원)
설립배경	• 2003년 영국 브래드포드에서 노숙자, 난민을 위한 1차 진료 센터로 출범함. 2011년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2013년에 1차 진료 서비스에 노숙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 3자 접근 방식인 아웃리치 서비스를 만들어 포용적 의료 돌봄 서비스를 만듦

미션 · 비전	• '사회의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위한 고품질의 건강 및 사회 복지를 촉진하는 대응 조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가장 소외된 집단에 능동적인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됨. 노숙자, 망명 신청자, 난민을 위한 1차 진료 센터를 영국 곳곳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3. 사업 개요

(1) 주요 내용

이동형 진료 서비스	• 노숙자, 난민 등에게 NHS 일반 진료 서비스(1차 진료 서비스) 제공 • 브래드포드, 리즈 등에 빈곤층을 위한 1차 진료소 신설, 노숙자 쉼터를 방문하는 이동형 1차 진료소를 설립하여 주기적인 의료 아웃리치 활동 진행
지역 사회 의료 자원 봉사	• 노숙자, 난민 등 의료 서비스 수요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자 그룹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에 활용
웰빙센터	• 자체 복권 기금을 운영하여 노숙자와 난민을 위한 복지 센터를 개소하여 물리적, 정신적 질병 치료 외에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노숙자와 난민을 위한 예술 교육, 건강한 식습관 교육, 취업 지원,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2) 주요 성과

사회(S)	• 6230명의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 노숙자들의 급성 질병, 입원 일수의 감소, 약 62%의 급성 치료 절감 효과를 기록함 • 일반의(GP, General practitioners) 상담 서비스 이용자의 88%가 GP가 검사와 치료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해 잘 설명했다고 밝혔음(CCG 평균 77%, 전국 평균 86%)
거버넌스(G)	• 정기적인 CQC(Care Quality Commission) 보고서를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 거버넌스 체계를 갖고 있으며, 외부 감사를 통해 좋은 성과를 인정받음

4. 국내 사회적경제 시사점

“국가 의료보험제도로 1차 진료서비스 확대. 이윤 재투자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코로나 이후 경기 악화로 일정 거처와 생계수단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 통계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질환은 대사성질환 34.1%, 정신질환 28.6%, 관절질환 12.1%, 치과질환 11.7% 순이었다. 이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없어서(52.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또 다른 실태조사에서도 대부분 노숙인들은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절차를 잘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사회적기업 베번 헬스케어는 영국 의료보험제도(NHS)를 통해 노숙자, 난민 등 취약계층들이 일반의(GP)로 부터 1차 진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국 지역 곳곳에 빈곤층을 위한 1차 진료소를 설치하거나 이동형 1차 진료소를 설립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 전액 모두를 서비스 향상과 추가 센터 개소에 활용했다. 사회적 목적의 순환에 기여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회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사이트

국내

금융위원회 https://www.fsc.go.kr/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대한민국지속가능성지수 https://www.ksa.or.kr/

사회성과 인센티브 http://www.socialincentive.org/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https://sehub.net/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

임팩트온 https://www.impacton.net/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지속가능발전포털 http://ncsd.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ocialenterprise.or.kr/

한국ESG기준원 http://www.cgs.or.kr/

환경부 http://www.me.go.kr/

해외

국제회계기준(IFRS) https://www.ifrs.org/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https://www.sec.gov/

유럽위원회(EC) https://ec.europa.eu/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https://www.efrag.org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https://www.esma.europa.eu/

유라액티브(EU정책 미디어) https://www.euractiv.com/

유럽의회(EP) https://www.europarl.europa.eu/

사회적경제 ESG 안내서
Social Economy ESG Guide book

발행인	정현곤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47, 새마을금고빌딩(6~8층)
담당	정책연구본부 정책지원팀
전화/팩스	031-697-7700 / 031-697-7889
홈페이지	www.socialenterprise.or.kr

임팩트온

편집	박란희(임팩트온 대표 & 편집장) 김민정(임팩트온 에디터) 김세진(임팩트온 에디터) 김환이(임팩트온 에디터) 송준호(임팩트온 에디터)
디자인	이승진(임팩트온 디자이너)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6길 83-16, B1F
이메일	master@impacton.net
홈페이지	www.impacton.net
전화	02 - 777 - 0603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ESG 안내서

Social Economy ESG Guide book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329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47, 새마을금고빌딩(6~8층)

Tel. 031-697-7700 Fax. 031-697-7889

비매품/무료

03330

9 791192 212203

ISBN 979-11-92212-20-3